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양말 디자인 개발과
DB화 작업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

2001. 9. 30

주관기관 : 서울대학교

참여기관 : (주) 성호실업

(주) 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

산업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양말 디자인 개발과
DB화 작업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

주관기관 : 서울대학교

참여기관 : (주) 성호실업

(주) 프로패션정보네트웍

2001. 9. 30

산업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제 출 문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장 귀 하

본 보고서를 “디자인기반기술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기간: 2000. 9. 1. ~ 2001. 8. 31.) 과제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결과보고서 50부

2001. 9. 30

주관기관명: 서울대학교 (직인)

총괄책임자: 서울대학교 교수 김민자 (인)

책임급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면

서울대학교 교수 최정화

(주) 성호실업 대표 권동철

동덕여대 부교수 최현숙

선임급 연구원: 한남대학교 조교수 김윤희

(주) 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 이사 이승엽

충남대학교 조교수 최윤미

안양과학대학 전임강사 박은경

서울대학교 강사 이민선

경희대학교 전임강사 하지수

영진대학교 전임강사 최수현

경원대학교 강사 김은희

원급 연구원: (주)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 이정민

" 유수진

서울대학교 강사 고희진

수원대학교 강사 서현수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양학미

" 유현정

" 김소영

" 임은혁

기술기능 연구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서성은

요 약 서 (초 록)			
사업명	고부가가치를 위한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 양말 디자인 개발과 DB화 작업에 관한 연구		
주관기관	서울대학교	총괄 책임자	김민자
총 사업기간	2000. 9. 1 ~ 2001. 8. 31 (1년)		
총 개발사업비 (천원)	144,259(천원)	정부출연금 (86,109 천원) 민간부담금(현물49,150천원, 현금 9,000천원)	
참여기관	(주)성호실업, (주)프로패션정보 네트워크		
주 제 어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양말 디자인 개발, 신발·양말·한국적 문양의 DB 구축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의 문화상품개발과 수출증대 · 신발, 양말에서 한국적 이미지의 현재화와 세계화 · 신발, 양말에 대한 사적자료와 트렌드의 DB화 			
<p>[목적 및 중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 양말 디자인 개발과 수집한 자료의 DB화 작업이 주목적임. · 개발 상품을 통해 한국문화의 정체성 부각 및 위상진작과 수출증대에 기여 · 디자인 자료의 DB, 시장환경 조사, 소비자 조사를 통한 디자인 자료의 구축과 브랜드 이미지 강화 전략 위한 기초자료 제시 			

[연구내용 및 범위]

- 신발에 대한 사적 연구와 트렌드 조사를 기반으로한 한국적 이미지의 디자인의 개발
- 신발, 양말에 대한 사적 연구 논문 발표
- 정확한 패션정보 분석과 소비자 정보, 및 시장 환경 조사
- 상품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발의 기능성 및 착용감 연구
- 신발, 양말, 한국적 문양에 대한 DB화

[연구 개발 결과]

1. 한국적 이미지와 사적 연구, 트렌드에 기초한 신발, 양말 디자인 개발
 - 조사 연구에 의한 시장환경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 추출
 - 신발, 양말에 대한 사적 연구
 - 실제의 신발, 양말 디자인 및 샘플 제작.
 - 기능성과 착용감 실험 연구를 통해 신발의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완 제작.
 - 전시회 출품으로 객관적 평가, 및 홍보 작업.
2. 서양신발, 한국신발, 한국적 문양, 양말에 대한 정보의 DB화와 검색 엔진 개발

[기대 효과]

- 신발, 양말, 한국적 문양의 DB는 디자인의 기초 정보원으로 유용한 가치를 지님.
-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 양말 디자인 및 박람회 출품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알리고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개발과 수출 증대에 기여함.

목 차

제 1 장 연구개요.....	1
제 1 절 기술 개발의 필요성.....	1
제 2 절 기술 개발의 목표 및 범위.....	8
제 3 절 개발의 추진전략 및 방법	11
제 4 절 사업에 대한 기술 환경 분석.....	13
제 2 장 서양 신발의 사적 고찰과 미적 가치.....	15
제 1 절 신발의 역사적 고찰	16
제 2 절 신발의 분류.....	22
제 3 절 서양 신발에 내재된 미적 가치.....	26
제 4 절 결론 및 제언.....	40
제 3 장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과 이미지.....	43
제 1 절 양말과 스타킹에 대한 사적 고찰.....	44
제 2 절 서양에서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	51
제 3 절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과 이미지.....	62
제 4 절 결론 및 제언.....	67
제 4 장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 양말 디자인을 위한 소비자 조사.....	70
제 1 절 조사방법.....	70
제 2 절 신발 시장 세분화.....	71
제 3 절 브랜드 충성도.....	77
제 4 절 신발 디자인의 선호도.....	80
제 5 절 한국적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82
제 6 절 결 론	83
제 5 장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 양말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 DB 구축.....	84
제 1 절 DB 개요.....	84
제 2 절 DB 구성 체제.....	105
제 3 절 DB의 수.....	109
제 6 장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 양말디자인 개발.....	110
제 1 절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 양말 디자인 전개과정.....	110
제 2 절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 양말 디자인 개발.....	111
제 3 절 디자인에 대한 객관성 평가.....	119

제 4 절 인간 공학적 측면에서 신발의 기능성 및 착용감.....	130
제 7 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2
부록.	
별첨 자료 1. 소비자 조사를 위한 설문지	
별첨 자료 2. 전시회 사진	

제 1 장 연구 개요

제 1 절 기술개발의 필요성

세계는 지금 '변혁', '도전과 응전', 'QR' 등 ... 문화혁명의 시기로 접어 들고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 디지털, 하이테크의 비약적인 발전, 동서 이념의 붕괴, 사회 문화의 다변화 트렌드는 범 세계화를 촉진시켰고, 국가 간의 뚜렷한 경계를 해체시켰다. <제 3의 길>의 저자 앤서니 기든슨이 명시한 바, 20세기말, 동·서양 간의 세계질서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법적인 관점, 좌파와 우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보와 보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라는 사고보다는 또 다른 절충적인 새로운 세계질서가 지금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93년 12월 UR 협상 타결과 더불어 자유무역 지대화됨으로써 범 세계화를 선포하였는데, 이는 국가 간의 블록의 해체와 더불어 활발한 문화, 경제교류를 의미함과 동시에 또 다른 경제전쟁과 문화전쟁이 열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사회환경은 경쟁력 여하에 따라 때로는 기회요인으로, 때로는 위협요인으로 작용되며,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무한경쟁시대임을 의미한다.

범 세계화 추세에 따른 퓨전문화 트렌드가 반영된 문화상품 개발이 중요하다.

특히 1997년 IMF 이후, 이러한 사회 문화적 증후군은 우리나라에 지대하게 파급되었고, 통제에서 자율, 보호에서 경쟁, 폐쇄에서 개방으로 급속히 전환되었고 제품을 파는 시대에서 상품을 파는 시대를 거쳐, 이제는 창의적이고 독자적 고유가치만이 이 무한경

쟁시대의 기업이나 문화의 주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것만의 독자적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컨대, 고유한 문화의 정체감이 뚜렷한 품격 높은 문화상품개발 뿐 아니라, 세계문화를 적극 흡수하여 자생력을 키우는 것만이 생존과 변화를 위한 시급한 대응책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신 문화의 코드로서 퓨전(fusion)문화 인 것이다. 범 지구적 가치 추구 속의 자국의 고유한 문화의 건강한 생존의 길인 것이다. 우리나라 독자적 문화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되나, 세계의 보편적인 문화 트렌드와의 융합을 뜻하며, 이 퓨전문화는 그의 살아있는 융합이 진행되면서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것의 세계화, 세계 것의 우리화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한 오리지널한 정보의 DB화가 강력한 경쟁력이다.

21세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한 정보화 시대다. 패션산업은 그 어느 분야의 산업보다도 변화에 민감하며 정보화시대의 소비자의 취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오리지널한 정보와 체계적인 분석의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패션업계는 외국정보의 카피와 표절에 해매고 있다. 이는 지난 삼성경제연구소(1999)의 동대문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서 뚜렷이 나오고 있다. 분명,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은 실리콘 벨리에 비유될 만큼 벤처의 성향을 띄고 강력한 경쟁력에 대한 잠재능력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인들의 구전에 의한 정보, 혹은 개개인 디자이너의 감성에 의한 정보만 갖고는 절대로 우리의 패션산업을 범세계화 시킬 수 없다. 전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연구하고 시도된 자료의 축적만이 강력한 경쟁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서 연구한 고급의 두뇌에 의한 패션정보의 DB화 작업과 이를 국가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파급시키

는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강력한 감성과 예리한 분석력의 퓨전이 양말로 우리 패션업계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여가선용에 따른 스포츠·여행의 관심고조와 스포츠 패션산업이 니치마켓이다.

자크 아탈리(1998)의 21세기 미리 읽기에서 가상현실과 유목은 미래의 두 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지적 정보의 축적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의 두 계층만이 존재하며, 일을 찾아 유목생활을 하는 축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여행을 하는 축이 그것이다. 때문에 인간의 생활은 더욱 불안정하며 각자 자기에게 맞는 문화와 예술품, 옷과 요리를 선택하여 조합하는 맞춤형 문명이 됨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생활양식은 더욱 다양하여지고, 정적인 생활패턴에서 동적이며 유동적인 생활 패턴으로 이끌어져 갈 것이다. 더욱 생활은 캐주얼화 하여지고, 이에 따라 패션에서도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확고한 문화의 범주가 해체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의 한 예가 스포츠웨어의 패션화인 것이다. 기능적 측면만이 중시되었던 운동화에 최첨단의 유행변화를 추구하며, 반면 최신의 정장화는 더욱 캐주얼해지며 안락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시장성 있는 미래산업은 신발·양말이며, 고부가가치의 브랜드 이미지로 개발 가능하다.

경영혁신의 대명사라 불리는 잭 웰치는 경영성공에 감춰진 10가지 비밀 중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면 차라리 물러나라”라고 하였다.

1998년 섬유산업연합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패션품목과 침구 및 신발류의 내수시장규모는 13조에 달하며, 수출은 65억\$에 달하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그중 양말(2억6천만\$), 스포츠웨어(975만\$)

에 달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그리고 러시아이다. 또한 섬유 생산량은 세계 3위이며, 통상산업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섬유 패션산업의 무역수지 현황이 131억불로서 무역흑자산업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주)성호실업은 OEM 시스템에서 벗어나 고유브랜드인 트렉스타를 창조하여 현재 1억3천만\$을 미국, 일본, 독일, 아시아, 호주, 캐나다, 영국 등지에 수출하고 있으며 그의 인지도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로서 더욱 고부가가치의 브랜드 이미지 개발에 중점을 둘 때이며, 범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정확한 시장환경조사, 소비자조사, 패션 트렌드 정보를 밑거름으로 풍부한 감성의 디자인으로 재포장되어야 하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후원하여 주어야 한다.

더불어 2002년 월드컵 개최와 스포츠에 대한 열기의 고조, 그리고 88올림픽 때와 같이, 우리 것의 범세계화에 대한 희망은 각계 각층에서 확산되고 무언가의 이벤트, 문화상품개발, 우리의 생활환경개선(글로벌 시티즌쉽)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팀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의 축구복 유니폼 개발과 본 연구과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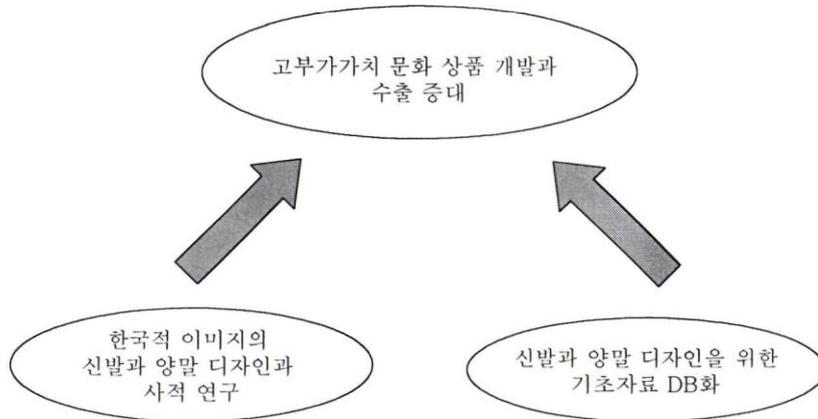
산학협동연구체제와 다학문적 제휴의 시각으로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2-3년 사이에 교육의 대변혁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강력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불신감 또한 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였던 요소이다. 특히, 산업현장과 교육현황이 괴리감이 있다는 질타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기를 요구한다. 때문에 본 논제는 산학의 협동으로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에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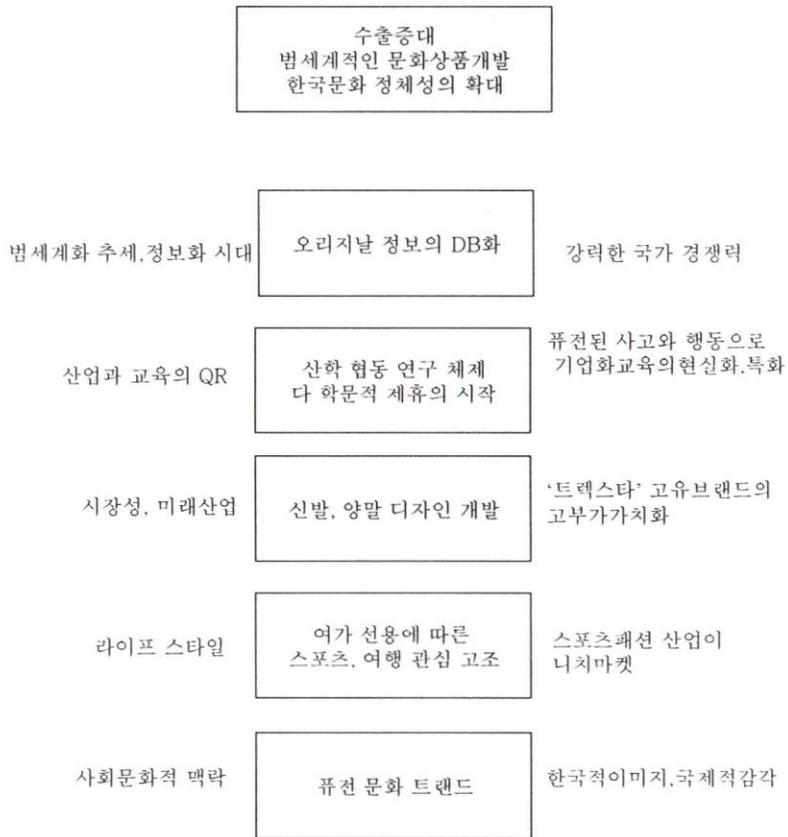
감을 부여하며, 무언가의 의사소통의 실마리를 부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져본다. 교육에 있어 QR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자 한다.

몽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산학연 협동, 총체적, 다학문적을 뛰어넘어 제학 제휴적 연구의 필요성을 외쳐 대지만, 여전히 우리의 실정은 분산적이며, 파편적이며 외국 의존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자, 패션디자이너, 패션마케터의 산업체제와 이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자, 패션정보분석가, 착용성 테스트에 대한 과학자, 웹 디자이너, 복식미학자, 광고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의 뭉쳐진 사고의 장을 펼쳐 보고자 한다.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감성으로 훈련되어진 사고의 흐름과 토론에 의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개발 목표 및 내용 - 개발의 최종목표



개발의 필요성-기술 개발의 중요성



제 2 절 기술 개발의 목표 및 범위

고부가가치의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이나 양말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4가지 측면으로 진행시켰다. 신발, 양말에 대한 사적 자료와 트렌드의 분석 연구, 시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확한 패션 정보분석과 소비자정보, 및 시장환경조사, 상품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성 및 착용감 연구, 그리고 한국적 이미지를 반영한 신발, 양말의 디자인과 개발, 마지막으로 이들 과정이나 자료의 DB화다.

1. 소비자와 시장환경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한국적 이미지의 사용을 넘어서 보편적인 현대인의 미감을 반영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며, 아울러 브랜드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장환경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통해 세계화된 한국 이미지 접목 분야 및 선호 디자인 추출
- 소비자와 시장환경조사를 통해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고유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시도하기 위한 정보 수집

2. 신발과 양말의 사적 자료 수집과 조형성의 분석과 DB화

- 이집트시대부터 현대까지 서양의 구두나 신발류, 양말류의 변화를 통하여 형태, 색채, 재료, 기타 디테일에 대한 자료수집과 DB화
- 상고시대부터 현대까지 우리나라 구두나 신발류, 양말류의 변화를 통하여 형태, 색채, 재료, 기타 디테일에 대한 자료수집과 DB화

· 비교분석으로 유사성과 차이점을 결론 내려보며 한국적 이미지의 구두, 신발, 양말류를 디자인한다.

3. 최근 신발류와 양말에 대한 패션 트렌드의 자료수집과 DB화

문화는 공유성이 있다. 상품간의 퓨전된 아이디어를 얻고, 가시적 조형성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타 시각디자인의 트렌드를 파악하여보며, 스피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디자인의 트렌드와 신발의 트렌드를 비교 검토하여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이나 양말디자인의 컨셉을 정하였다.

· 신발류나 양말에 대한 패션트렌드의 자료를 수집 및 DB화

4.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 양말 개발

· 글로벌리즘 측면에서 수출이 가능한 한국적 이미지의 outdoor/travel 슈즈의 디자인 개발.

· 한복이나 생활한복에 어울리는 특수한 용도의 신발 디자인개발.

5. 개발된 신발, 양말류에 대한 기능성, 착용감, 심미성 연구로 고부가치화를 증대.

신발은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기능성과 쾌적한 착용감을 요구한다. 따라서 기능성과 착용감 테스트로 신발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 신발의 쿠션성 및 압력 분포 - 발의 부위별 압력 분포 측정

· 보행 능력 및 동작 적응능 - 맥박, 에너지대사, 동작분석, 근전도 등 측정

· 신발의 통풍성 및 기후 조절능 - 신발 안의 미세 기후(온도

및 습도), 발의 부위별 피부온도 측정

· 착용감 - 주관적 감각(쾌적감, 습윤감, 온열감), 주관적 쿠션성 등

6. 완성된 문화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전략

· 전시회

· 미국 OUTDOOR SHOW, 독일 ISPO SHOW, 부산 PIFOS SHOW 출품

제 3 절 개발의 추진 전략 및 방법

1. 추진전략 및 방법

첫째, 사적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박물관과 서적, 잡지, 전문정보지를 바탕으로 문헌연구뿐 아니라 스트리트 패션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감각을 밑거름으로 정확한 패션정보, 시장환경조사, 그리고 소비자조사에 의한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과 양말 디자인개발이다. 그런데 본 연구팀은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다년간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거나 디자이너로 활약한 연구원이다.

셋째, DB화 작업이나 인공지능 감성패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이미 패션 감성 데이터 베이스의 기초버전을 제작한 사례가 있는 (주)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에서 제공할 것이다.

넷째, 한국적 이미지는 본 연구팀에서 지난 수년간 대학원생 패션소에서 진행하여 오던바, 자료가 이미 많이 축적되고 있어나, 타 시각디자인이나 생활용품쪽은 문헌자료나 시각적 조형물을 바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섯째, 신발제조에 대한 개발기술은 이미 (주)성호실업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팀과 (주)성호실업의 연구자와 상호교류 연구와 현장실습으로 더욱 시장성있는 신발상품 생성을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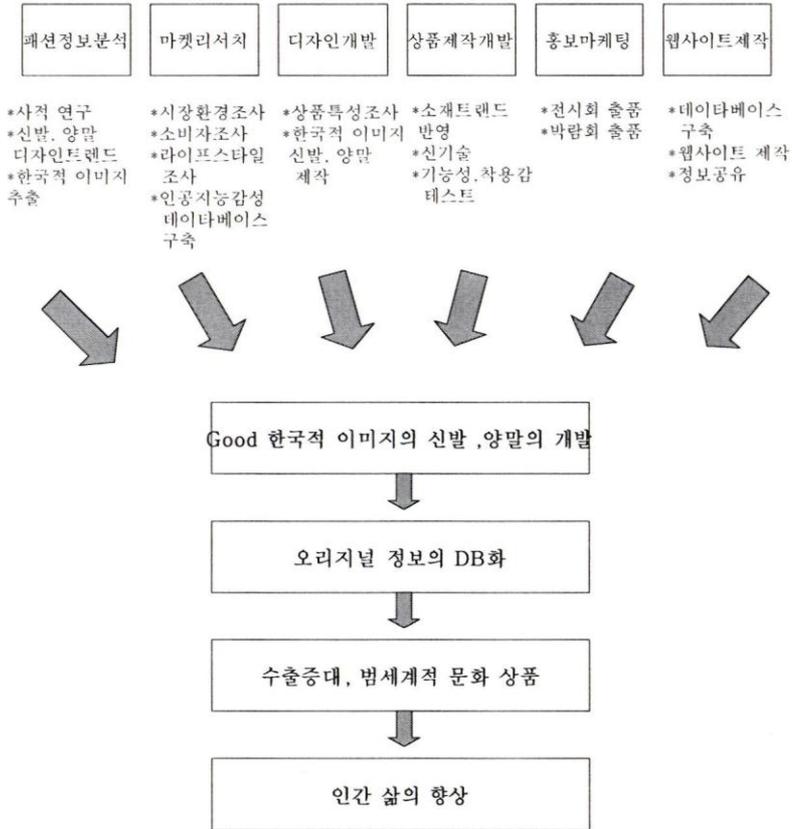
여섯째, 본 연구팀이 개발할 문화상품은 2001년 LG패션갤러리에서의 전시와 더불어 부산패션박람회에 출품할 예정이다.

일곱째, (주)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에서 소비자조사나 시장환경조사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여덟째, 기능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능평가를 담당하는 생활과학연구소는 이 분야에서 다년간 많은

연구를 진행시키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많은 기자재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개발의 추진 전략 및 체계



제 4 절 사업에 대한 기술 환경 분석

첫째, (주)성호실업에서는 신발생산에 있어서 쾌적성과 기능의 효율성을 최대화를 위하여 3D시스템, 라스트에 대한 기술력, 방수의 기술력을 연구하고 서울대 피복 생리연구실에서는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기능성과 착용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성호실업의 신발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한 신발 제조와 서울대의 기능성, 착용성 연구를 통해 최적의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신발을 제작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발은 기능성 외에도 독특한 디자인이 고유한 가치를 결정짓는다. 특히 지구화(globalism)의 범세계화된 사회환경 속에서는 고유한 문화의 정체감이 뚜렷한 오리지널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 디자인 정보의 DB화는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아직 신발에 대한 디자인 정보의 DB화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양과 우리나라의 신발과 양말에 대한 사적 연구 및 시대적 신발의 디자인 정보를 수집, DB화하며, 또한 현재의 시장 조사와 트렌드 정보를 수집 DB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자료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며, 학문적인 성과 뿐 아니라 세계적 감각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적용시킨 신발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감성 패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패션 산업은 소비자의 감성과 욕구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민첩하고 대응해야 하는 산업이며, 따라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패션 산업은 전

반적으로 구체적인 소비자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마케팅을 수행해 온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감성 패션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통해 현재 시점의 소비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될 인공지능 감성 패션 데이터 베이스는 장기적인 소비자 정보의 축적과 분석을 통해 한국 패션 산업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 2 장 서양 신발의 사적 고찰과 미적 가치

부분적 디테일의 고려보다는 의상의 전체적인 이미지 전달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대 패션에서, 토탈 패션을 완성하는데 가장 불가결한 품목 중의 하나로 신발을 들 수 있다. 착용자의 내적 자아를 외적 형태로 표출하는 의복의 도구적 역할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현대인에게 있어 신발은 전체적 표현의 최종적인 마무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20세기 말 무렵부터 다수의 패션관련 언론매체가 기사를 통해 신발의 중요성을 재조명 해왔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갤러리에서의 아트 슈즈 전시회를 비롯하여 박물관에서의 역사적 신발 전시, 유명 신발 브랜드의 콘테스트 등이 수적 증가하면서 일반인과 패션 전문가들의 신발에 관한 관심을 고양시켜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양 신발의 발달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수 천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며 다양한 외형의 신발을 통하여 인간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내재적 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1세기를 맞이한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신발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하여 현재까지 신발에 대한 선행 연구는 사실상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고찰과 규명을 바탕으로 복식사 분야에서 특히 신발에 초점을 맞추어 그 변천의 외형적 모습과 내적 의미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발 디자인의 전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 데도 연구의 의의를 둔다.

연구 방법으로는 서양 신발의 사적 고찰을 위한 문헌적 연구로 의상과 미술 관련서적, 도록, 의상 및 신발 관련 잡지 등을 조사 연구하며, 부가적 자료로 인터넷 자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미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문헌연구는 의상학, 미학 및 예술학 분야의

관련서적을 참고로 한다. 연구 범위는 지역적으로는 서양 신발에 국한된 연구로 제한하며, 사적 고찰의 범위는 신발의 기원과 발생에서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제 1 절 신발의 역사적 고찰

역사학자들은 인류가 불균형한 기후나 거친 지형적인 이유로 발의 보호를 위해서 출발한 것으로 신발의 발생을 추측한다. 기능적인 목적에서 최초로 출발한 신발로는 고대 이집트의 샌들을 들 수 있는데, 기후적으로 뜨거운 태양과 지면에서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면과 발바닥 사이에 동물 가죽을 놓고 풀잎이나 가는 가죽끈을 연결하여 발등에 묶어서 신발의 기능을 하였다. 이것이 신발의 가장 초창기 모습이며 조상인 샌들이다. 샌들(Sandal)의 어원은 그 생김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널빤지” 라는 뜻의 라틴어 샌달리움(Sandalium), 또는 고대 그리스어 샌달리온(Sandalion)에서 비롯되었다.

시대별로 신발의 유래와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고대에 신발의 유형인 샌들, 슬리퍼, 구두, 부츠의 전체적인 모습을 갖추었으며 근세에 이르러 하이힐의 모태가 되는 쇼핀이 등장하였다.

1. 고대의 신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이집트인들의 신발(B.C. 3400~525)은 B.C. 2000년경에 극히 단순한 형태로 시작되었고, 중 왕국 이후 일부 상류층에서부터 착용된 신발은 염색한 가죽이나 종려나무로 만든 샌들형태로서 남녀 구분이 없었다.

앗시리아(B.C.1200~540)의 왕과 상류계급의 남자들은 굽이 달린 샌들을 신었으며 여자와 일반인은 맨발이었다. 남자들의 샌들은 잦은 전쟁을 위해 특별한 것이어야 했으며 부츠도 함께 신었다.

가죽, 천 직물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샌들, 낮은 구두, 부츠 형식의 다양한 신발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뾰족한 모양을 가진 신발은 앓시리아인에 의해 이집트나 그리스에 전해졌다.

페르시아인(B.C.600~300)들은 추운 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몸에 밀착된 의복을 입었으며, 아와 함께 구두창이 따로 없이 발목까지 오는 부드러운 가죽과 펠트 소재의 모카신(Moccasin)을 신었고 여기에 심미적 목적을 위해 진주와 보석으로 수를 놓아 화려하게 장식했다

크레타인(약B.C. 3000~1100년경)들은 외출 시에는 샌들이나 굽이 있는 신발, 슬리퍼를 신었다. 보다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는 남자들은 발을 감싸기에 좋은 반 부츠를 즐겨 신었으며 종아리까지 오는 이 부츠는 가죽끈으로 다리를 매거나 감아서 착용하였다.

그리스(B.C. 1200~146년) 초기의 샌들은 펠트, 가죽, 파피루스(Papyrus)로 발바닥 부분을 만들고 이를 가죽끈으로 묶었으며, 후기에 와서는 신발에 끈을 달고 이 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엇갈리게 묶어 전통적인 그리스 샌들이 되었다. 샌들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신발이 등장하였다. 여행자나 군인들은 발가락이 노출되고 종아리나 무릎까지 끈으로 묶는 부츠형태의 Buskin을 신었다. 그리고 Cothurnus는 연극배우들이 신었다가 후에 일반인들이 신게 된 것으로 발끝이 날씬했으며 7.5cm정도 되는 두꺼운 코르크를 바닥에 대었다. 그밖에도 농부들이 신는 샌들인 Carabina 등이 있었다. 신발은 발의 형태에 따라 좌·우 구분이 있었고, 그리스의 더운 기후에 적합하도록 항상 발가락 부분이 노출 되도록 만들어졌다.

에트루리아인(약B.C. 800~300년경)의 신발은 물(Mule)형, 슬리퍼(Slipper)형, 샌들(Sandal)형, 부츠(Boots), 버스킨(Buskin)형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소아시아의 영향을 받아 앞 코가 뾰족하게 위로 올라간 것이 특징이다.

로마(B.C. 750~476년)의 경우 일반시민들은 Calceus 가죽부츠를 착용하였으며 위 부분은 Strap으로 묶게 되어 있었고 부유층에서는 고급가죽으로 만들어 신었다. 귀족구두인 Cothurnus는 High boots형식이었다. 로마의 원로원이나 사관들은 검은 가죽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정복사업이 계속됨에 따라 승전하고 돌아온 장군은 그 위용을 표시하기 위해 사자머리가 새겨진 부츠를 신었다. Baxer는 종려나무 잎으로 짜서 만들어진 샌들로 농민과 철학자가 신는 신이었다. Crepida는 일반시민들이 집안에서 신던 신으로 발꿈치와 옆면이 덮이기도 하며, 발가락이 노출된 샌들의 변형으로 구두창이 두껍고 투박하여 걸을 때 소리가 난다고 하여 이러한 명칭이 유래했다. Soccus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노란 색상으로 양모, 울, 리넨을 사용한 여성용 신발이다.

2.중세의 신발

비잔틴제국(395~1100년)의 신발은 그리스와 로마의 샌들형에 비해 발을 좀더 감싼 스타일로 서유럽의 추운 기후의 생활 여건 때문에 발목까지 오는 Shoes타입 형식이었으므로 요즘의 무용화와 비슷하다. 부츠는 발목, 종아리 중간, 무릎 아래, 등 여러 가지 길이에 길고 뾰족하게 앞꿈치를 재단했다. 구두의 모양은 남녀 구별이 없고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신었으며 벽화의 묘사에 의하면 여자의 신발은 항상 의복에 덮여 있었으므로 그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색상은 붉은 색이나 밝은 색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근세와 같은 구두의 형식을 낳기 위한 과도기였던 로마네스크 시대(1100~1200년)의 구두는 목이 긴 것, 짧은 것, 짜올려진 것, 버클(Buckle)달린 것 등 여러 종류가 있었으며 여자의 구두는 대개 목이 짧았다. 가장 대중적인 신발로는 Estivau라는 부츠를 들 수 있는데, 반 부츠인 Brodequin과 위가 열려져 끈 또는 단추나

버클로 조절할 수 있는 가죽과 리넨 소재의 가마쉬(Gamash)가 있었다. 동방에서의 실크수입과 모피(fur)의 자유로운 이용으로 귀족층의 신은 더욱 화려하게 발달하여 실크, 벨벳 등에 금은사의 교직물이 사용되거나 진주, 보석, 자수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등 유럽신발의 질은 이 시기에 급속히 향상되었다

14세기 일반적인 남성신발은 발목이 낮고 앞 부리가 뾰족한 신발을 착용하였다. 폴란드에서의 크랙코우(Crackows)라는 말이 변형되어 크랙코우즈라고 했으며 프랑스에서는 뿔렌느(Poulaines)라고 불렀는데 신발의 뾰족한 앞부분의 끝을 금줄이나 은줄을 사용해서 무릎에 착용한 가터에 매달았다고 기록되어 있다.<그림2> 이것은 리차드2세가 보헤미아의 앤과 결혼하면서 유럽에 소개되었으며 그 당시 폴란드는 보헤미아 왕국의 일부였다. 14세기 동안은 앞 코가 뾰족한 신발을 계속 신었으며 1451~1475년에 부르고뉴 왕실에서는 역사상 끝이 가장 길어진 신발을 착용하였으며 뿔렌느의 길이가 12인치나 되자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법령으로 길이를 규제하기까지 하였다. 비오는 날에는 고가의 뿔렌느를 거리의 진흙이나 쓰레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갈로쉬나 패튼을 착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3. 근세의 신발

르네상스시대(1500~1600년)에는 15세기 중엽까지 전성을 이루었던 고딕풍의 뾰족한 앞 코가 1490년경에 들어서면서부터 르네상스 풍의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변화하여 후기에는 오리모양의 진기한 형태로 확연히 달라졌다. 둥근 앞 코는 점점 거대해지자 1540년경에는 각국에서 제조 금지령이 내려졌고 영국에서는 폭 15cm이상의 구두를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16세기 후반에는 쇼핀(Chopine)이라는 슬리퍼 형식의 높은 신발이 터키에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소개되어 유행했는데 굽을

나무나 코르크로 만들었고, 가죽이나 직물로 싸서 채색하거나 때로는 도금하여 장식했다. 브룩클린과 보스톤 박물관에 소장된 쇼핀은 그 높이가 6~7인치 정도이며 심지어는 18인치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쇼핀을 신고 거리를 다닐 때에는 반드시 시종드는 사람이나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날씨가 나빠지면 오물과 진흙 투성이가 되는 거리로부터 고가의 긴 스커트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지면에서 발을 높히려는 실용적인 목적과, 키를 더욱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겨진 쇼핀은 근대적인 하이힐(High heel)의 모태가 된다.<그림3>

바로크시대(1600~1700년)의 신발은 일반적으로 의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변화하였는데 특히 남자 신발은 바지길이에 따라 변화했다. 17세기에 스페인 풍의 짧은 바지 Haut de Chausses가 유행했을 때는 무릎 위까지 오는 긴 부츠가 애용되었고 다리가 날씬하게 보이는 부츠를 선택한 신사들은 Haut de Chausses가 길어짐에 따라 짧은 부츠를 신게 되었다. 부츠가 일반화되어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착용했으며 착용자가 말을 타든 타지 않든 부츠에 박차를 달고 다녔다. 1660년대에 들어와 통이 넓은 부츠는 기사들 사이에서만 존속되고 대신 루이 14세형이라는 구두가 보급되었다<그림4>. 1682년대는 화려했던 구두장식이 쇠퇴하고 기능적인 버클(Buckle)로 대응되었다. 17세기 중엽에는 옥스퍼드(Oxford)라고 하는 실용화가 유행했는데, 이것은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이 많이 신고 다녀서 붙여진 명칭이다.

여성용 신발은 서구에서 최초로 여자의 발이 스커트 단 밑으로 나와 눈에 띄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전세기에 비해 17세기 귀부인들은 작은 발을 좋아하여 리넨으로 된 테이프로 발을 조여 작은 구두에 억지로 발을 밀어 넣어 신었다. 구두의 굽은 더 가늘어지고 높아진 섬세한 곡선의 하이힐로 7~8cm정도 높았으며 발등 부분은 좁은 가죽 끈 또는 작은 버클로 조절하였다.

로코코시대(1700~1790년)에는 제화공(Shoemaker)이 예술가로서 높은 사회적 인정을 받을 정도로 구두와 부츠는 복장과 예의를 중시하는 귀족에게 절대적으로 올바르게 유지해야 할 다양한 목록 중 상위를 차지하였다. 남성의 신발에서 네모난 구두나 높은 굽은 차츰 사라지고 가벼운 신발인 Pumps가 등장하였다. 굽은 아주 낮거나 없으며 부드러운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어졌고 버클에는 다이아몬드나 진주로 장식했다. 18세기 중엽부터 색상은 흑색, 갈색 등 어두운 색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붉은색의 밑창은 프랑스 궁정용인데 영국과 미국에 보급되어 1800년까지 유행하였다. 이 외에 흙, 먼지, 진흙으로부터 구두를 보호하기 위한 구두 덮개가 있었다. 귀부인들이 점점 더 작은 구두를 애호하면서 가죽과 금, 은, 보석장식의 현란한 장식으로 인해 당시의 신발은 하나의 예술품처럼 보였다.

4. 근대의 신발

18세기 말 로코코 스타일의 호화로운 복식에 이어 신고전주의의 영향으로 고대 그리트 풍의 자연스러운 복식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 뽀따롱(Pantalon)과 함께 신은 신발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었는데, 위 부분이 하트모양이고 술 장식(Tassel)이 달린 헤시안 부츠, 사냥용으로 신은 앞부분이 높고 네모진 각이져 있으며 뒷부분이 잘려나간 웰링턴 부츠, 얇은 가죽으로 만들어 넓은 커프스가 위 부분에 달린 자키 부츠 등이 있었다. 단화도 유행했으며 낮은 굽의 가죽 펌프스가 있었다. 여성들에게는 에스카르팡(Escarpin)이 유행했는데 새틴, 브로케이드, 벨벳 등의 광택이 있는 천에 자수와 보석으로 장식하고 굽이 없는 화려한 여성적인 형태였다. 또한 발목을 묶는 그리스 풍의 신발과 천으로 만들어 끝에만 가죽을 댄 짧은 부츠도 공존하였다.

19세기 초반 낭만주의 시대가 되자 혁명전의 귀족풍이 부활하였

다. 남성은 굽이 약간 있고 길이가 다양한 검은 가죽 부츠를 애용하였으며, 패셔너블한 남성들 사이에서는 검정색 펌프스가 뺨따롱과 함께 유행했고, 야외용 신발은 가벼우며 굽이 없고 발등 부분에 리본이나 버클장식을 하였다. 여성용 신발은 영국에서 발명된 고무의 출현으로 신발 갑피부분에 넣어 착용감과 편리함이 증가되었다.

1858년에 리만 블랙 (Lyman R. Blacke, 1835~1883)이 제화용 재봉틀 발명 이후 구두 제조법이 수작업에서 대량생산으로 바뀌면서 현대적 신발의 원형이 등장하게 되었다. 19세기 말 자연 과학 연구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 합성섬유와 합성염료의 발명으로 직물에도 놀라운 비약을 가져와, 착용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복식이 용도에 맞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신발에 있어서도 스포츠 비지니스가 성행하면서 쾌적하고 실용적인 목적의 수요가 높아져 생활환경의 변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구두가 나타난다. 동시에 진보된 기계 기술이나 고무(Rubber) 밑창 등의 새로운 재료 사용은 특히 스포츠 화를 개량하는데 공헌하였다. 널리 보급된 것은 짧은 부츠형이었으며 끈으로 매는 것, 단추를 다는 것, 부츠에 고무를 댄 것 등 세련된 장식과 디자인들이 널리 유행되었다. 남성들은 펌프스, 옥스퍼드를 주로 신었으며 야외용 구두는 윤이 나는 검은색 가죽으로 만들었다. 1880년 이후에 스포츠화는 흰색과 검은색의 콤비네이션(Combination)스타일이 보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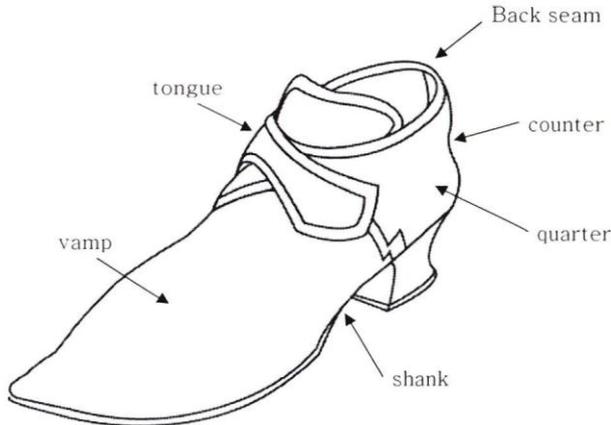
제 2 절 신발의 분류

현대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신발은 시대별 문화와 복식, 착용자의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변화해왔기 때문에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신발의 연구와 디자인에 있어서 다양한 유형의 신발

을 계통적으로 분류하고 기본적 구조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신발의 일반적 구조

신발 디자인에 따른 주된 변화요소는 굽 모양(Heel Shape), 코 모양(Toe Shape)이 여성구두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며 또한 신발은 크게 굽(Heel), 갑피(Upper),창(Sole)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5> 신발의 구조

*굽(Heel): 구두 뒤 부분의 아래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가죽, 고무, 나무, 금속 등으로 만들며 높이는 수직으로 힐 브레스트(Heel breast)의 바로 뒤, 옆에서 측정한다. 힐의 모양보다 높이가 기능상 미치는 영향이 크기는 하나 유행의 결정적인 요소인 모양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표-1>. Heel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Louis Heel, Cuban Heel, Wedge Heel, Dutch Heel, Stacked Heel, Flat

Heel, Spike Heel, Art Heel등이 있다.

*갑피(Upper): 창(Sole)과 힐(Heel)의 구두 윗부분을 말하며 뱀프(Vamp), 쿼터(Quarter), 카운트(Counter) 등으로 구성된다.

뱀프는 Toe와 발등(Instep)위의 구두 갑피 부분이며 우리말로 ‘앞날개’라고 말하고, 쿼터는 뱀프와 연결되는 구두 갑피의 뒷부분 즉, ‘뒷날개’를 말한다. 쿼터는 $\frac{1}{4}$ 을 뜻하는데 구두 1족은 뒷날개가 4쪽이 되며 또한 그 모양이 초생달 현(弦)과 같다고 해서 쿼터(Quarter)라고 부른다.

카운트는 구두 뒤꿈치 부위의 쿼터와 쿼터안감(Quarter Lining)사이에 넣는 월형심(月型芯)인데, 이것은 뒤꿈치 부위의 모양을 유지시켜서 신은 후에도 변형을 방지하고 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 코모양(Toe Shape): Toe Shape은 구두에서 앞 코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Heel의 모양과 Trend에 따라서 Toe Shape이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일반적인 형태는 Pointed Toe, Tapered Toe, Oblique Toe, Blunted Toe, Round Toe, Square Toe 등으로 나누어진다.<표-2>

2. 신발의 유형에 의한 분류

먼저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면 샌들, 슬리퍼, 슈즈, 부츠로 나뉘어 지는데 발을 노출시키는 부분은 다르지만 개방형의 신발인 슬리퍼와 샌들, 그리고 가죽이나 천 등을 이용하여 발을 감싸는 폐쇄형의 신발인 구두와 부츠로 구분된다.

가. Sandal

샌들은 개방형의 신발로 끈이나 밴드로 발등과 발바닥을 연결하므로 발등을 감싸는 다른 신발에 비해 발이 시원하여 기후가 따뜻한 지방에서 주로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은 최초의 신발이다.

가죽 끈 샌들은 노출이 많아서 관능적 매력을 가지고 있어 자유스러운 사고와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잘 어울린다

이브닝샌들은 야외용의 포멀한 여성용 샌들로 발등에 가는 스트랩이 있고 굽은 높으며 이브닝드레스를 착용할 때는 동일한 소재로 만들어 보석을 붙이기도 하고 비즈로 화려하게 장식도 한다.

버켄스톡(Birkenstocks)은 미국의 의상디자이너 마곳 프레이저가 1960년대 말 처음으로 소개했으며 활동적이고 편안함을 주는 신발이다. 또한 발바닥 윤곽이 드러나는 묘하게 생긴 샌들로 버클리에서 '히피 기어(Hippie Gear)'라 불리기도 하며 오늘날에는 125가지 이상의 스타일로 분화되어 유행하고 있다.

비치 샌들은 보통 해변에서 신는 샌들로 코드(Cord)화되어 있지만 응용범위가 확장되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다양한 소재와 함께 비치 샌들형이 신겨진다. 비치샌들은 고무, 코르크(Cork), 나무, 비닐 등 방수성이 있는 소재로 만든다.

나. Slipper

슬리퍼란 매는 끈이나 여미는 수단 없이 그대로 꿰어 신는 신발의 총칭이다. 슬리퍼는 신어서 편안한 스타일로 실내에서 끈 없이 신는 신발로 발등이 낮고 가벼워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는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현대의 슬리퍼는 Mule과 Ballet Slipper 형태로 실외에서도 착용되며 재료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이 있다..

Mule은 Heel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뒤축이 없는 Slipper형식을 말하며 1940년에 대중적으로 애용되었다. Mule은 수메리아인들이 처음 신었을 때는 실내용 슬리퍼였고, 이탈리아인들에 의해서 Heel이 부착됐으며 Wedge Heel을 다는 경우가 많았다. Mule은 제인 맨스필드와 마릴린 먼로와 같은 헐리우드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스타들의 성적이미지를 대표하는 신발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이미지의 조장은 특히 영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신발디자인을 통해 현저하게 나타났다.

Ballet Slipper는 직물소재나 Goat Skin으로 만든 굽이 없이 평평한 밑창을 댄 신발로 무용가들이 주로 신으며, 일반적으로는 Ballet Slipper 형태를 취한 굽이 있는 신발도 자주 애용된다.

다. Shoes

구두는 부츠와 같은 폐쇄형의 신발로 발등높이에 따라 부츠와 구별되고 신는 방법에 따라 슬리퍼와 구별된다. 구두는 신발의 발등높이가 발의 복사뼈를 기준으로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구두(Shoes)라는 말은 원래 영어로 섹슨어인 쇼(sho) 즉, 발이 몸의 중심이 된다는 “핵(核)”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어 지금까지 쓰이는 말이다. 구두는 초기에는 한 장의 생가죽으로 되어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 끈을 잡아 당겨 조여 신었으나 나중에는 버클, 리본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하였으며 현재의 다양한 구두로 발달하였다.

Oxford는 17세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부츠로 인한 발목에 불편함을 느껴 단화를 많이 신으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끈 달린 단화의 총칭이다.

Balmoral은 원래 구두가 제조되었던 Scotland의 Balmoral성(城)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으로 일본에서는 내익근(內翼根)이라고 한다. 내익근은 구두의 Quarter부분과 Vamp부분을 꿰매 박은 것 중 Vamp가 Quarter밑으로 접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Blucher는 1815년 워털루전쟁에서 나폴레옹을 격퇴시킨 영국의 블루처 장군이 처음 고안하여 신었다는데서 유래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외익근이라고 부른다. 외익근 구두는 Vamp와 Quarter가 연결되어 재단되었으며 Tongue부분이 위로 접합되어진 구두이다.

One Piece Vamp는 연익근이라 부른다. 구두는 몇 개의 부분이 연결되어 갑피가 만들어지는데 반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진 갑피의 구두를 One Piece Vamp라고 한다.

Brogue는 처음에 주로 아일랜드 지방에서 털(毛)이 곱게 있는 Calf Skin으로 만들어졌으며 담쟁이 덩굴(IVY)조의 옥스퍼드형 구

두를 말한다.브로그는 구두끈이나 T자형 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신발 안으로 스며든 물이 밖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늘로 신등에 구멍을 뚫어 두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Saddle은 구두의 디자인이 마치 말등에 안장을 놓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안장을 뜻하는 Saddle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앞날개, 뒷날개. 말안장 모양의 중간(Shank)부분을 분리시킨 3등분 형식으로 제작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Shank부분을 다른 색으로 배색하는 경우가 많다.

Slipon은 Oxford 구두에서 사용하는 구두끈이나 Zipper, Buckle을 사용하지 않고 Top line의 앞면에 Gore, Elastic Band를 넣어 구두를 신고 벗기에 편하게 만든 구두의 총칭이다.

Loafer는 굽이 낮은 신발로 Moccasin과 비슷하며 Slipon의 일종으로 Norway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40년대에 미국으로 소개되었으며 이름 그대로 게으름뱅이들이 좋아할 정도로 Top line을 넓게 구성하여 볼륨을 살렸기 때문에 신고 벗기에 편리하다. Tongue 부분에 밴드로 처리하여 발을 조이는 역할을 하며 Tassel, Chain으로 장식한다.

Moccasin은 Sandal과 함께 가장 오래된 신발중의 하나로, 거의 6000년 동안 착용되어 왔는데 특히 American Indian들이 사슴가족으로 발바닥부터 발등까지 한 장의 가죽으로 둘러싸서 즐겨 신었다. <표-3>

Pumps는 끈이나 고리, 금속장식이 붙지 않는 발등이 깊게 패여 있는 여성용 구두이다. 끈이나 Fastener를 쓰지 않는 구두의 총칭이며 매우 가볍고, 편편하며, 단순한 형태의 신발로 18세기에는 하녀들에 의해 신겨진 것이 기원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형식은 프랑스의 루이 15세의 연인이었던 마담 폼파두르(Madame de Pompadour, 1755~1764)가 애용했던 형태가 변한 것으로 Heel의 높이는 High(6cm이상), Middle(3~6cm), Low Heel(3cm

이하)등 다양하다.

라. Boots

Boots는 추운 지방에서 발생하였으며 추위를 막거나 사막, 산악지대와 같이 황량한 지역에서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었던 신발이다. Boots는 Top line의 높이에 따라 Ankle Boots, 종아리 중간까지 올라오는 Half Boots, 무릎이상까지 오는 Long Boots, 대퇴부 이상까지 오는 Hip Boots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Boots의 통(筒)넓이, 또는 종아리에 Fitting되는 여부에 따라서 Loose fit, Semi loose fit, fit등으로 나누고, 사용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제 3절 서양 신발에 내재된 미적 가치

본 연구의 I장에서 IV장까지의 고찰을 통해 역사적으로 신발의 외적형태는 시대별 복식과 문화 및 착용자의 개인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발전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IV장에서는 문화 현상인 패션의 일부로서 신발에 있어서 구체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시대적 변화상에도 불구하고, 신발의 발생 초창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다양함 속에 공통적으로 관류하는 내재적 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1. 신체 보호성 및 신체능력 확대성

가. 신체보호성

신발의 최초의 발생 동기는 인류가 자연 환경으로부터 발을 보호한 것이었다. 나일강의 광활한 사막, 그 위를 비추는 뜨거운 태양에 적응하기 위해 종려나무로 만든 샌들 형태의 극히 단순한 이집트(B.C.3400~525)의 신발이 B.C. 2000년경에 시작되었다.

또한, 페르시아인(B.C.600~300)들은 추운 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부드러운 가죽과 펠트로 된 구두창이 없는 발목까지 오는 모카신(Moccasin)을 신었다.

14세기 고딕시대의 뿔렌느 아래에 착용한 패튼은 진흙이나 쓰레기로부터 신체와 신발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되었다. 독일인은 이러한 보호용 형태의 신발을 언더 슈즈라하고 프랑스인은 갈로시라 했으며 영국인은 패튼이라고 했다. 패튼이나 갈로쉬는 바닥에 두꺼운 코르크가 붙은 가죽신발이나 타원형의 나무로 만든 1인치 정도의 굽 위에 스트랩이 있어 뿔렌느와 오버슈즈로 신었으며 이러한 오버슈즈는 근세시대에는 더 많이 애용되었다<그림6>.

16세기 후반에 나타난 쇼핀은 날씨가 나빠지면 오물과 진흙 투성이가 되는 거리로부터 신체와 고가의 긴 스커트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발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과 키를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적인 목적으로 쇼핀이 신겨졌다.

이처럼 시대별로 그 지역의 특징과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되던 신발은 지금은 인류의 복식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아이템이며 신발이 없이는 일상적인 외부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일차적으로 발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발이 몸 전체를 받치고 있는 인체 구조상 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신발을 착용하게 된다. 신체 보호성은 더 나아가 심리적 보호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로 작용한다.

나. 신체 능력 확대성

인간의 신체가 가지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욕망이 신발의 역사에서 뚜렷이 표현되어 왔다.

고딕건축 스타일의 뾰족한 감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발달한 고딕양식의 일반적인 남성신발인 뿔렌느는 앞이 길고 점점 뾰족해지

는 기이한 디자인의 신발로 앞 부리에 말의 털을 넣어 패딩 한 후 끝 부분이 위로 구부러지게 한 형태이다. 14세기 동안은 앞 코가 뾰족한 신발을 계속 신었으며 1451~1475년에 부르고뉴의 왕실에서는 끝이 가장 길어진 신발을 착용했다.

16세기 후반에는 쇼핀(Chopine)인 슬리퍼 형식의 높은 신발은 굽을 나무나 코르크로 만들어 가죽이나 직물로 싸서 채색하거나 때로는 도금하여 장식했다. 1553년 캐서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가 새로운 하이힐 스타일을 헨리 2세와 결혼하면서 파리로 입성시켰고 그녀는 결혼식에서 하이힐을 신었으므로 신체 능력의 미적인 확대를 위해 평범한 굽을 던져버린 최초의 여성이다.

이처럼 뿔렌드는 길이 방향의 신체확대성을 나타내고 쇼핀은 높이 방향의 신체확대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뿔렌드는 남성만이 착용하는 신발로써 신분이 높을수록 길이가 더 긴 뿔렌드를 착용하였는데 남성의 신체능력을 표현하는 그 시대의 전유물이었다.

현대의 예로는 1953년에 탄생한 스틸레토 힐을 들 수 있는데, 가늘고 발에 꼭 맞는 형태를 위해 전통적인 궁중 구두의 뾰족한 코와 Louis Heel을 채택하면서도 굽의 높이를 최대치까지 증가시킴으로써 높이 요소가 디자인상 한 장르의 극한까지 도달하도록 고안하였다<그림7>. 이와 같이 하이힐은 새로운 기계시대에 적합한 미적 욕구를 만족시키며 여성 신체의 키를 더욱 커 보이게 해줌으로써, 외적인 신체구조의 신장이 내면에 반영되어 여성자신 스스로의 신체능력을 확대시켜 심리적으로 자신감과 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게 해준다.

2. 장식 욕구의 표현

장식(裝飾)에 해당되는 영어 Ornament는 라틴어 'Ornare', 즉 '장식하다'에서 유래하였다. 장식은 인간의 표현 본능의 하나로 인간 자신과 생활공간, 생활행사에서 장식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여기에는 주술(呪術)과 액운을 막기 위한 기원의 의미도 포함된다.

장식은 본래 무엇인가를 치장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독립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Schmarsow는 장식예술은 그 자신이 독자적 가치를 창조하는 예술이 아니라 다른 예술에 수반되어 그들에게서 표현되어야 할 가치들을 강조하고 매개하면서 그 매력에 주의를 집중시켜 그 수용과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식은 일종의 가치표시(Wertbezeichnung) 또는 가치매개(Wertvermittlung)로서 작용한다고 말한다.

신발에서 장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Upper의 발등 부위에 부착되는 장식을 말하며, 장식은 구두의 모양을 한층 돋보이게 하며 값어치있는 구두로 포장하는 매개의 역할을 담당한다. 본래 완성도가 있는 신발은 장식적인 요소와 실용적인 요소의 균형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고대로부터 장식을 살펴보면 로마인들은 그들의 Sandal에 오목하게 홈을 파고 금박을 새겨서 장식을 하였으며, 귀족들은 금사로 자수를 놓거나 보석으로 장식한 샌들을 신었다.

레타인 중 남자들은 종아리까지 오는 부츠를 신을 때 가죽끈으로 다리를 매거나 감아서 장식하였다. 고딕시대에는 뿔렌의 끝에 뱀의 꼬리, 물고기 꼬리 등 기발한 형태의 장식으로 치장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이는 당시의 장식용 세공과 수공업 기술이 최대로 발달하였음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바로크시대 신사들의 부츠는 목이 크게 벌어지고 접혀져서 뒤집혀 내려왔기 때문에 착용자의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보기 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혀 보이는 부분에 우아한 루프나 레이스로 나비나 장미모양을 달아 장식해 아름다움을 과시할 수 있어서 기능적 불편을 능가하는 미적 가치의 구현으로 각광을 받았다.

로코코 시대의 귀부인들은 매우 작은 구두를 애호하여 여기에 가죽과 금, 은, 보석 등 장식의 극도의 치장을 함으로써 구두는 하나의 예술품 같이 보일 정도였다. 또한 16세기에 Slipper는 금은

사로 교직 한 고가의 벨벳과 화려한 실크로 만들어 장식되었으며, 18세기에 귀족들은 Brocade와 자수로 Mules을, 빅토리아(1819~1901)인들은 구슬과 레이스로 Boots를 장식하였다.

구두장식의 소재로는 가죽, 철물, 플라스틱, 천, 보석, 비즈, 구슬, 레이스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 장식의 형태를 보면 가죽소재의 것으로 밴드(Band), 킬티(Kilty), 타셀(Tassel)등이 있으며, 철물 플라스틱 소재로는 브로치(Brooch), 버클(Buckle)등이 있다. 그리고 장식의 기법에는 자수, 퀴팅, 비딩, 셔링(shirring), 패치워크, 아플리케 등이 있다.

장식 중 버클은 역사적으로 고가의 장식에 의해 신분 과시의 상징으로 쓰이다가 시대가 지남에 따라 그 상징적인 이미지는 감소하게 되, 잠그는 기능을 가진 다른 대용물인 끈이나 버튼이 등장하여 이들이 패셔너블하게 애용됨에 따라 버클은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밴드는 기능적인 목적으로 구두의 밀착도를 조절하는 것 외에 단순히 장식적인 목적으로 버클을 끼우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킬티(Kilty)는 가죽소재로 만들어지는데 골프(Golf) 슈즈나 모카신(Moccasin) 스타일의 여성구두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가죽을 혀 모양으로 재단해서 국수가닥처럼 발의 Instep 부위에 장식한 것으로 그 위에 타셀이나 버클장식을 다는 경우도 있다.

타셀(Tassel)은 가죽끈이나 실다발의 한쪽 끝을 묶어서 늘어뜨린 장식술을 말하며 Loafer에 많이 사용된다.

장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여성 신발의 역사에서 계속 재현되는 주제이다.¹⁾ 왜냐하면 프랑스혁명 시기를 기점으로 남성은 장식적인 패션을 포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18세기초부터 여성 구두의 장식적인 대담성이 절정에 도달했음을 그 전형의 존재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에도 장식성이 강한 신발은 여성화에서 두드러지며 리본이나 꽃, 자수 등은 여성신발에서 대체적으로 자

주 나타나는 장식적인 현상이다<그림8>. 여성들이 남성보다도 신발에 있어서 장식적인 부분에 강한 욕구를 표현하는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남근의 결여를 보충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이유를 들고 있는데 과장된 꽃이나 리본을 장식하여 나르시시즘을 느끼며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3. 성적 표현성

인류역사에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인간의 내면에 무의식으로 잠재해 있는 성에 대한 욕구를 복식의 다양한 아이템으로 표현해 왔다. 신발(Shoe)이라는 단어는 현대 영어의 발생학적 어원을 따르면 ‘가리다’ ‘모호하게 하다(Obscure)’와 관련되어 있다. 신발은 오래 전부터 인간의 신체 중 가장 부끄러운 부분으로 여겨진 발과 관련하여 숨겨져 있는 성적 욕망을 연상시키게 한다. 말하자면 욕정과 야성적 충동으로부터의 이끌림에서 방패역할로 인식되었던 것과 물질적 존재 자체의 움직임에 제한하는 존재이다. 발은 허리 다음으로 성적인 관심을 대상이었는데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하면 남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발을 감싸는 신발은 ‘여성적인’ 혹은 ‘여성’으로 해석하였다. 신발과 발을 짝짓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적인 행위의 의미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이미 1천 년 전부터 발을 신발 속으로 집어넣는 행위가 성행위를 암시한다는 이론이 있어 왔으며 프로이드는 여성의 발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샌들의 발가락 노출이나 슬링백 스타일의 발뒤꿈치 노출은 시각적으로 가죽 끈 사이에 맨살을 분명히 작은 틈으로 확연히 분리시켜 신발에 감춰진 맨발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비닐이나 얇은 레이스로 된 소재의 구두나 샌들의 착용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보여주면서 쾌락을 얻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성이 있으며 자신의 속성의 일부를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發現)이다.

12세기에 처음으로 출현한 Poulaine는 길고 앞이 점점 뾰족해지는 신발의 급진적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신발은 남성들의 패션으로서 인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좁고 긴 신발을 신기 위해서는 발가락들이 서로 겹쳐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불편을 감수하고도 남성들은 뿔렌스의 착용을 원했는데 이것은 길면 길수록 신분의 계급을 상위로 나타내기도 했지만 성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서 더욱 그러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길고 뾰족한 신발의 코에 말의 털을 넣어 패딩한 후 끝 부분이 위로 구부러진 뿔렌스는 명백하게 남근의 상징이었다. 길고 뾰족한 코는 여성들의 자위에 사용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탈리아의 한 신발제조업자가 소장하고 있는 뿔렌스에는 ‘성적인 자급자족을 경험할 수 있는 구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교황 우르반 5세를 비롯한 성직자들이나 영국의 에드워드 4세, 프랑스의 샤를르 5세 등 공공 도덕의 수호자들은 뿔렌스를 성적으로 심히 음탕하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발의 형태 중에서 이집트의 샌들 코나 고딕의 뿔렌스, 한국의 버선코나 중국의 신발 코 등 신발의 앞 코가 뾰족하거나 길게 연장된 신발은 그 시대나 지역의 성적 함의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전족을 한 발이나 높은 굽을 가진 하이힐은 여성들이 착용함으로써 족쇄와 수갑과 같은 것을 신체에 부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자유로운 걸음걸이보다는 발끝으로 걷게 만들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묘한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 나르시시즘적인 의미에서도 하이힐은 자기도취와 성적 만족이라는 두 가지 심리적 측면을 다 수용하고 있으며 여성적 매력을 최대한 발산시켜주는 성적표현성이 강한 패션 아이템이다.

19중엽에는 발에 꼭 맞고 발목 위 부분까지 단추가 채워지는 ‘보틴느(Bottine)’라는 하이힐의 반 부츠가 매우 성행했는데 높은 굽

으로 부풀어오른 둥근 발등과 남근을 연상시키는 작고 뾰족한 발끝은 성적인 느낌을 상징한다<그림9>. 20세기에 등장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얇은 날을 가진 칼 (Thin-bladed Knife)이라는 뜻의 바늘처럼 뾰족하고 긴 스틸레토 힐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여성적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하이힐은 여성의 엉덩이를 연상시키는 발뒤꿈치와 긴장한 다리를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굽으로 성적 매력을 상징하여 남성과 여성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여성구두의 에로티시즘과 정숙성의 변증법을 구성하는 디자인의 시각적 특징들을 몇몇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옥스퍼드 구두는 성적으로 심각하지 않음을, Sling-back(뒤꿈치가 Open되어 있는 구두)은 Decolletage(등이나 가슴이 많이 노출된 드레스)를, 발등이 깊게 파진 구두는 유방사이의 갈라진 틈을, 스틸레토 힐은 Kinky Sexuality를, 발가락이 노출된 신발은 속옷을 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각각 상징한다는 것이다.

신체를 대상화하여 표현되는 또 다른 부분은 하이힐에서 발 뒤꿈치부분으로 여성의 몸 중 엉덩이 부분을 나타내며, 뒤꿈치 부분이 끈이나 버클로 잠그는 형식의 Sling-back구두는 뒤꿈치 부분의 살결이 둔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키며 “성교하는 구두(Fuck me Shoes)”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그림 10>. Thea Calabria-Rooke의 작품 ‘하녀(Maid Shoe)’라는 환상적인 구두는 여성의 하체를 표현하는데, 둔부를 나타내는 볼록한 뒤꿈치와 긴장한 다리모양의 힐 그리고 하녀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흰 에어프런을 상징하는 큰 리본이 하녀와 여성지배자(Donna Matrix)의 관계에서 하녀의 ‘절대복종’을 의미한다<그림 11>.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자태를 보면 높은 굽이 다리를 긴장시키기 때문에 엉덩이의 움직임이 양쪽으로 더 흔들리면서 강조되고

등은 아아치 형태가 되게 하여 곳곳하게 서게 만들며 가슴을 앞 쪽으로 자신감 있게 밀어주어 섹시한 S자형의 바디 라인을 형성한다. 성과학자 알프레드 킨제이는 하이힐을 신었을 때 여성의 다리근육은 긴장하게 되고 발이 다리와 일직선이 되게 쪽 뻗어 마치 성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와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하면서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4. 품위와 신분 상징성

상징이란 인간이 어떠한 대상에 의해 하나의 추상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추상이란 대상의 통상적인 맥락(Usual Context)에서 '벗어나는(Removed)'경우를 지칭한다. 따라서 하나의 형식은 그것의 통상적인 Context로부터 추상화될 때 하나의 상징이 되게 된다. 감각현상이 본래의 의미에 덧붙여 비 본래적 의미를 나타낼 때 거기에서 상징성이 작용하며, 직접적인 묘사나 서술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고대로부터 신발은 소재, 색상, 형태, 장식 등 시각적 요소의 차별화로 계급과 부를 상징하였고, 동시에 신발을 묶는 양식이나 정교함에 의해 사회적 신분과 품위를 상징하는 역할을 해왔다. 로마시대에는 승전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그 위용을 상징하기 위해 사자머리를 새긴 부츠를 신게 하여 이것이 승리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자수나, 보석의 장식이 정교함이나 창이 높은 신발은 사회적 신분과 권력의 표현으로 착용자가 귀족임을 상징하였다.

중세시대에는 왕실과 귀족계급의 과도한 사치문화가 형성되고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독점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사치금지법을 제정하여 각 계급이 착용해야 할 의복과 신발에 엄격한 규정을 두어 강화시킴으로써, 신발을 착용한 사람의 외관을 통해 그 품위와 신분, 지위의 상징성이 뚜렷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고대 로마를 비롯한 중국 등 서양과 동양에서 고금을 막론하고

각 세기마다 기록되어 있어, 신발을 비롯한 의복이 주는 권력과 지위의 상징성은 인류사에 보편화된 관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12세기 뵈렌스의 길이는 신분의 명백한 상징으로 평민은 13~15cm, 중류층은 30cm, 왕은 60cm로 신분에 따라 그 길이가 달라졌으며, 따라서, 구두코의 길이는 남성의 사회적 권력을 상징하였다.

르네상스시대의 매우 높은 플랫폼 구두인 쇼핀은 유럽의 왕가와 귀족 여성들 사이에 널리 애용되었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높은 쇼핀을 신었으며 여성은 남성의 도움을 받아야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쇼핀을 착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쇼핀은 착용자의 공간적 위치를 높임으로써, 궁정 귀부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품위와 높은 지위를 알릴 수 있는 신분의 상징으로 미적 가치를 발현하였다.

바로크시대에는 귀족과 일반인들의 신분 상징성은 굽 높이와 밑창의 색으로 구별되었다. 루이 14세는 5피트 5 1/2인치의 작은 키 때문에 정교하게 장식된 4 1/2 또는 5인치의 높은 하이힐을 주로 착용하였으며, 화려하고 높은 굽으로 키를 높임으로써 태양왕의 남성다움과 권력을 과시하였다. 그는 나무로 된 하이힐을 화려한 붉은 가죽으로 싸서 착용하였기 때문에 뒤 굽이 높은 빨간색 구두가 귀족의 신분을 상징하게 되어 프랑스 궁정에서 널리 유행하였다.

서양 여성들에게 작은 발은 우아함과 연약함 그리고 보호본능의 대상임을 의미하였으며, 바로크 시대부터 로코코 시대의 신발에서 볼 수 있듯이 화려한 자수, 보석으로 장식한 신발은 작을수록 고귀한 예술품과 같았고<그림 12>, 당시에 발이 크다는 것은 곧 평민임을 뜻했으므로 여성들은 극도로 작고 비실용적인 신발을 신어 그들의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고자 노력해야만 했다. 동시에 귀부인들은 작은 신발로 인해 발이 꼭 끼어서 잘 걸지 못하여 허벅지가 시중을 들어야 했으므로 이를 통해 신체부동성을 포함하는

귀족만의 신분적 특권을 과시할 수 있었다.

현대에 와서 하이힐은 전통적인 여성적 수동성과 성적대상인 '사랑의 상징'의 위치에 부가하여 '공격의 상징'이 되었으며 동시에 여성적 강함과 권력, 지배를 상징하는 품목으로 의미의 전이를 경험하게 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지배적이고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내재된 심리를 현상화 할 때 이를 상징하는 품목으로 하이힐을 외적인 의복 중에서 최우선으로 선택하게 된다. 신분이 높거나 강한 여성을 주제로 한 최근의 영화나 컴퓨터 게임의 여주인공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하이힐을 착용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5. 패션성

패션의 어원은 라틴어 Factio (만드는것, 행위, 동작을 의미)이며, 패션(Fashion:유행)의 정의는 같은 사물을 동시적,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수많은 개별 취향의 총화인 대중적 취향이다. 주로 의상에 적용되는 용어이지만 신발은 의복체계의 일부로써 의상과 함께 유행에 가장 민감한 가시적 아이템이므로 패션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최근에는 소재와 기능적인 면에서의 급격한 기술 발달과 짧아진 유행 주기로 인해 신발에서의 미적 가치로서 패션성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시대별로 신발의 패션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문학작품 등의 기록을 통해 고대로부터 당대의 유행흐름에 대한 사람들의 민감한 관심과 투자를 알 수 있으며, 고딕시대에는 신발을 의복보다 더욱 중요시하여 제작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을 뿐 아니라 가죽, 펠트, 벨벳, 브로케이드, 두꺼운 실크 등 고가의 소재를 사용하면서 시대적으로 주요한 신발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고, 외양의 중요성에 집착한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신발은 일반적으로 의상의 패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변화하게 되는데 특히 남자

신발은 바지 길이에 따라 변화했다.

17세기에는 스페인 풍의 짧은 바지 Haut de Chausses가 유행했을 때는 무릎 위까지 오는 긴 부츠가 애용되었고 다리가 날씬하게 보이는 부츠를 선택한 신사들은 Haut de Chausses가 길어짐에 따라 짧은 부츠를 신게 되었다. 1660년대에 들어와 통이 넓은 부츠는 기사들 사이에서만 존속되어지고 대신 루이 14세형이라는 구두가 보급되었다. 17세기 중엽에는 옥스퍼드(Oxford)라고 하는 실용화가 유행했는데, 이것은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이 많이 신고 다녔으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19세기에는 스포츠 비지니스가 들어오자 의상에서의 변화와 함께 신발도 쾌적하고 실용적인 목적의 수요가 높아져 생활환경의 변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구두가 나타난다.

1920년대에는 디자이너 Chanel이 활약했던 시기로 의복을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어 신체에 자유로움을 주었으며 구두도 Chanel 스타일이 생겨났다. 또한 살바토레 페라가모와 같은 전문 신발 디자이너가 점차 생겨나고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영화산업이 발달하여 여배우들의 신발을 주로 제작하면서 전문 디자이너의 위상이 높아졌다. 1930년에는 플랫폼 창(Platform sole)이 나타나고 재즈, 플래퍼 스타일의 유행과 함께 앵클 스트랩 (Ankle strap)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1947년 Christian Dior의 "New Look"을 필두로 디올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높아졌을 당시 그의 곁에는 로제 비비에 (Roger Vivier)라는 구두 디자이너가 있었다. 로제 비비에가 디자인한 일련의 환상적인 구두로 디올의 뉴욕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이다.

1950년대에는 "스틸레토 힐(Stiletto heel)"이 대표적인 힐의 형태로 신발패션을 상징하면서 유행을 이끌어 나갔으며 그 후로 하이 힐은 현대 여성이 갖추어진 의복을 차려 입어야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품목중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1965년에는 영국의 마리 퀴트(Mary Quant)가 미니 스커트를 발표하여 젊음과 스피드시대의 감각을 잘 표현했다. 이와 함께 Courrreges는 미니 스커트에 구두가 아닌 부츠를 착용시켰는데, 그가 유행시킨 대표적인 부츠는 부드러운 흰색의 양가죽이나 강하고 밝은 색상을 주로 사용하였고 안쪽으로 지퍼를 올렸으며 발끝은 사각형으로 디자인되어 20세기에 가장 광범위하게 모방된 부츠 스타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운동화가 유행하면서 운동화는 값싸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고가(高價)의 운동화가 청소년층으로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밀리터리룩의 영향으로 군화 스타일의 구두가 부쩍 늘었고 농구화를 긴치마에 신는 형태도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비닐소재의 구두가 유행을 했는데 이 구두는 비닐 옷, 비닐 핸드백과 함께 인기를 끌었고 에나멜 소재로 된 컬러풀한 원색의 번쩍거리는 광택 구두는 젊은 층에서 크게 사랑 받았다.

1990년대에 이르자 신발의 미적 가치 중 패션성이 가장 주목받으면서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게 되었다. Vogue지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유행의 중심에 서 있는 신발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패션에 있어서 신발의 중요성을 잘 대변하여 주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치 체계 하에 패션에서의 다원주의는 장르간의 상호 영역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면서 부각되고, 이에 따라 의상이 다양하게 표현되면서 신발 디자인도 1990년대 패션의 주요 트렌드들을 반영하게 되었다. 1990년대의 패션 트렌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며, 신발의 패션성은 이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가. 복고풍(romantic image): 복고풍 패션은 근세시대의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복식, 19세기 낭만주의의 복식에 대한 향수로

20세기 말 역사와 전통에 대한 회상, 자연으로의 회귀로 다시 등장하였다. 80년대는 패션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한 장식의 극단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바로크와 로코코시대의 장식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이어 90년대의 복고풍은 다양한 패션 트렌드와 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며 나타났다.

나. 스포티(sporty image): 스포츠 룩이 활발하던 1970년대 이후 스포츠의 붐으로 스포츠 룩은 패션의 캐주얼 부분과 함께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보편적인 트렌드로 정착되었다. 90년대 후반 프라다의 스포티한 몰드 창 구두가 등장하여 정장차림에도 운동화나 캐주얼한 구두가 신겨졌다. 미래적인 사이버느낌의 소재들과 함께 테크노 슈즈도 등장하였으며<그림 13>, 크로스 오버의 경향이 패션 전반에 두드러지면서 신발의 소재는 가죽의 한계를 넘어 다양하게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스트레치 소재의 개발로 아주 잘 피팅되는 부츠도 패션 인기 품목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다. 에콜로지(ecology image):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자연에 대한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복식분야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기대하며 상품자체의 물질적 가치보다는 인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물질적 가치로 전환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에콜로지가 하나의 유행 경향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여 다원화된 시대적 사고가 반영된 에콜로지 이미지가 제시되었다. 자연지향적 측면에서 자연과 천원에 대한 향수로 오염되지 않은 비 서구문명을 동경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고자 하는 의식이 표현되고 있다.

라. 에스닉(ethnic image): 에스닉 이미지는 기계화, 단순화 등으로 발전을 거듭하던 현대 문명에 대한 회의와 반성,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무시했던 20세기 초반의 모더니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립, 절충, 그리고 인간성 회복에

중심을 둔 시대사조의 반영으로 서구문화의 지배로 인해 무시되어 왔던 민속복과 원시주의 양식이 부각된 것이다. 특히 다문화주의의 일환으로 디자이너의 고유성이나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퓨전(fusion)이 이루어지더라도 본질은 잃지 않으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마. 아방가르드(avant-garde image): 아방가르드는 전대의 가치체계와 전통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새로운 미적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조형질서를 모색하며 새로운 표현방식의 시험을 주장하는 혁신적이고 극단적이고 실험적인 현대예술이다.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인체형과는 무관한 형태를 이루며 장식적 디자인 역시 미적 특성을 부여하는 등의 특별한 의미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제 4 절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서양신발을 사적으로 고찰하고 신발의 분류를 제시하였으며, 고찰의 결과로서 신발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연구하였다.

신발은 고대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는 기능적인 목적에서 출발하여 수십 세기 동안 형태의 변화와 진보를 거쳐 심미적, 장식적인 기능까지도 포함하면서 의상과 함께 발전하였다. 인류의 역사 전체를 보면 각 시대마다 지역적인 기후나 문화적 특성, 당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 그리고 사용 가능한 소재와 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신발이 등장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패션을 완성시키는 복식 품목으로서의 신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져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구조상으로 신발은 굽, 갑피, 창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발의 외형적 디자인에서의 주요 변화 요소는 신발의 코와 굽의 모양이다. 신발 디자인은 과거의 재현에 근거하여 항상 새롭게 창

조되고 변화하고 있으며 각 시대에 적절한 라스트에 세부적인 디자인이 첨가된다. 굽과 코의 형태는 서로 조화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짧고 뭉뚝한 코 모양에는 두껍고 낮은 굽이, 가늘고 뾰족한 코 모양에는 얇고 높은 굽이 부착된다.

신발의 유형에 의한 분류는 개방형의 신발인 슬리퍼와 샌들, 그리고 가죽이나 천 등을 이용하여 발을 감싸는 폐쇄형의 신발인 구두와 부츠로 구분된다.

사적 고찰을 통해 유추되는 서양신발에 내재된 미적 가치는 1) 신체보호성 및 신체능력 확대성, 2) 장식욕구의 표현, 3) 성적 표현성, 4) 품위와 신분상징성, 5) 패션성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류가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신발을 착용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는 곧 심리적 보호와 연계되었고, 신체의 물리적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신발의 길이와 높이를 확장함에 따라 착용자의 자아도 확장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외형적 확장은 다시 특정계층에만 독점적으로 점유되면서 신발은 사회적 품위와 신분의 상징이 되었다. 높은 사회적 권력과 지위, 신분을 상징하기 위해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화려한 고가의 장식이 신발에 반영되면서 신발은 패션을 주도하는 계층에게 주요한 품목이 되었고, 토탈 패션을 추구하는 현대에 패션성은 신발과 더욱 긴밀한 연계를 갖게 된다.

정신 분석학자들에 의하면 신발은 ‘여성적’ 혹은 “여성”으로 해석되며 신발에 신겨지는 발은 논리적으로 남근을 상징한다. 남근상징성이 명백한 뿔렌느는 길이방향의 확대로 신체의 능력의 확장성을, 신발의 길이로 왕과 귀족 또는 평민이라는 신분상징성을 잘 나타내 준다. 쇼핀은 여성의 신체능력의 확대를 나타내어 주는 최초의 신발로 높이 방향으로 여성의 신장을 확장하고 보강하여 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위치를 높임으로써 귀부인으로서의 품위와 신분을 상징하였다. 기술의 발달로 20세기에 등장한 스틸레토 힐은 가늘고 길며 시각적인 가벼운 인

상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능성에서도 만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미적 가치상으로는 여성의 신체능력 확대성과 성적 상징성, 패션성 등을 뚜렷이 드러낸다.

서양 신발에 내재된 미적 가치 중에서 특히 패션성이 점차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신발이 옷보다도 여성들의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현 실정에서, 본 연구의 사적 고찰과 미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신발 디자인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창의적 디자이너의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기를 제언하며, 이를 계기로 최근 신발의 명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브랜드 로고를 디자인 모티프로 실용화하는 경향을 인식하고 신발 디자인에도 한국적인 모티프를 창의적으로 응용하는 등 실용적 연구가 후속 되기를 제언한다.

본 연구가 서양 신발의 사적 고찰과 미적 가치의 제1보로 수행 되었으므로, 후속 연구로는 동일한 분석틀과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신발에 관한 사적 고찰 및 미적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통합적 시각에서의 비교 문화적 연구로 시행하고자 한다.

제 3 장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과 이미지

인간에게 가장 밀착되는 복식 중 하체의 발과 다리부분을 감싸는 양말과 스타킹은 따뜻한 지역에서는 마찰완화의 의미로 착용되었고, 추운 지역에서는 하체의 보온을 위해 필수품목으로 착용되었으며, 그 역사는 BC2000년 ~ BC1000년 사이의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어 인류의 의복과 함께 그의 조형성도 다양한 변화를 거쳐왔다. 양말과 스타킹은 고대에 근접할수록 발과 다리를 감싸는 기능을 강조하였으나 중세 이후 하체를 대표하는 품목으로 심미적, 조형적인 품목이 되어 인간의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 품목으로 전환되었으며, 현대에서는 1980년 전후부터 실험적인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더 이상 악세사리임을 거부하고 토탈패션의 의미에서 옷의 일부로 등장하여 패션 경향에 발맞춰 함께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다수가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위주의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양말과 스타킹의 사적 고찰을 통한 조형적 특징들과 1990년대 이미지별 조형적 특징들을 살펴 디자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990년 이전의 연구는 문헌 연구이며 그 이후는 사례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도록, 신문, 최근패션과 양말과 스타킹 디

자인 트렌드 북, 인터뷰 자료등을 1차 자료로 선정했으며, 양말과 스타킹의 사적고찰을 위해 복식사에 관한 문헌연구, 학위논문, 의상과 미술의 관련서적, 백과 사전 및 복식사전등을 2차 자료로 선정하여 조형적 특징을 알아보며, 사례연구로써 1990년대 양말과 스타킹의 트렌드를 이미지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사적 연구의 범위는 서양 복식사에서 는 이집트 시대부터 20세기까지이며, 우리나라는 양말이 처음 유입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이다. 1990년대는 각종 패션 컬렉션의 트렌드 북에 나타난 양말과 스타킹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본 연구에서의 양말과 스타킹 정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양말과 삭스(Socks)는 서양복식에서의 발을 감싸며 그 길이가 장딴지나 발목사이의 길이에 해당하며, 스타킹(Stocking)과 호즈(Hose)는 서양복식에서 발을 감싸면서 그 길이가 무릎 주변이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레그웨어(leg wear)로 제한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적으로 발 부분이 없이 다리부분 위주로 피복되어 있는 레그웨어가 많이 눈에 띄이므로 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제 1 절 양말과 스타킹에 대한 사적 고찰

1. 양말과 스타킹의 정의와 어원

양말(洋襪)은 신발을 신을 때 발에 신는, 실로 짠 서양버선의 총칭으로 발끝에서 다리까지 휩싸는 액세서리다. 길이는 무릎을

기준으로 무릎보다 짧은 양말은 삭스로 불리우며 대퇴부까지 오는 긴 양말은 스타킹으로 구분되며 양말에 스타킹이 포함되거나 스타킹에 양말이 포함되기도 하며, 때로는 호즈가 스타킹을 대신하기도 한다. 양말과 스타킹은 한 쪽씩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허리부분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타이츠(Tights)라고 구분한다. 영어권에서는 발과 다리에 착용할 수 있도록 짜서 만든 피복을 호저리(Hosiery)라고 총칭하기도 한다.

삭스란 용어는 고대 로마인의 발 싸게 형태인 삭쿠(soccus, socque)에서 그 어원을 두며, 우리나라에서는 개화기 때 서양의 버선을 뜻하는 말(襪)에서 양말(洋襪)로 불리게 되었다. 스타킹이란 용어는 15C 말 2피스의 호즈가 길어져 한 피스가 되어 바지 역할을 하다가 16세기 상하로 분리되면서, 아래쪽의 다리 부분을 'stocking of hose'라고 불리워져 오늘날 스타킹이 되었다.

'타이츠'는 1960년대 미니스커트가 유행할 때 가터 벨트 없이 입을 수 있는 '팬티스타킹'의 이름으로 등장하여, 현재는 그 이름의 대명사가 되어 사용되고 있다.

2. 서양에서의 양말과 스타킹의 사적 흐름

가. 고대

고대 유물들에서 양말은 자주 등장하는데, 그 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따뜻한 기후의 크리트 문명의 유물 중 BC 1550년~1500년 미노아 문명 후기시대 단지에 보이는 양말<그림1>과 BC 1600~1100년경 그리스 유물 중 '용사의 항아리', BC 5세기 경의 그리스 시대의 테세우스 신이 사냥하는 항아리의 그림에서 양말 착용의 모습으로 기원전 1000여년 전 부터 착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집트의 무덤(Bahnasa)에서 AD 4세기 전후의 것으로 이집트 굽

트인들이 손으로 직접 짠 싹스 형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양말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페르시아인들은 추운 지방의 기후로 BC 1800년경부터 바지를 착용했고, BC 6세기에 경 이들의 북속국들이 바친 공물의 벽화와 독일 토르스베르크(Thorsberg)늪에서 출토된 좁은 바지자락의 끝에 양말이 접합되어 있는 것으로 양말은 바지와 함께 하체 보온에 필수품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양말과 스타킹의 기원은 기후에 대하여 더운 지역에서는 마찰방지를 위해, 추운지역에서는 보온을 위하여 신었음을 알 수 있다. AD 2~4세기경에는 로마인들에게 바지가 입혀지기 시작해 유럽의 여러 민족에게 전해져 각 부족마다의 독특한 바지의 폭과 길이에 따른 다양한 레그웨어가 있었고, 이것이 중세의 호즈로 변화되어 남성 하의의 대표적인 품목이 되었다.

나. 중 세

중세 초기 서 유럽에는 여러 민족 (로만족(Romans), 브리튼족(Britons), 플랑크족 (Franks), 골족(Gauls), 색슨족(Saxons))들이 교류하면서 다양한 스타킹의 디테일이 나타났으며, 밴딩과 가터로 인해 바지는 충분히 여유 있는 폭을 유지할 수 있었다. 10세기 양말은 길어진 브레 속으로 감추어졌으며,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던 11세기부터 브레가 무릎까지 짧아지자 당시 병사들이 착용한 다리 싸게를 쇼오즈(프랑스어 chausses), 호즈(영어 hose)로 불리게 되었고, 길이가 짧은 것은 싹스(socks)로 불리게 되었다. 브레는 더욱 타이트해지고 짧아진 반면 호즈는 더욱 길어졌다.<그림2>



<그림1>BC
16C 크레타의운반인



<그림2> 십자군 전쟁시 호즈와
썩스를 함께 신은 모습

중세 말기에는 튜닉이 멋쟁이들에 의해 딱 붙는 코다르디로 교체되자 하체를 날렵하게 보이도록 제작자와 착용자가 주의를 기울였다. 브레는 점점 짧아져 속옷으로 바뀌었고 쇼오즈는 점점 길어져 힙까지 올라가게 되어 바지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이 때 양쪽 다리의 색깔을 달리하는 파티 칼라(parti-color, 마이-파티 mi-parti)가 유행하여 르네상스시대까지 계속 되었고, 14세기 말 재단사들의 선호로 스칼렛 호즈는 상류층에 선풍적으로 유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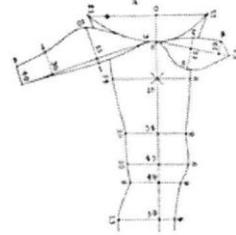
15세기 후반 호즈가 마침내 점점 다리 끝 까지 위로 올라가자 앞중심과 뒷중심이 개방된 채 호즈가 맞붙어 타이츠 형태로 한 피스가 되었다.

다. 근 세

유럽의 16세기 초반 호저리는 15세기말에 착용하던 앞, 뒤 중심선이 벌어진 형태를 착용하다 중반기 즈음 호즈의 모습은 앞은 코드피스(codpiece), 뒤는 삼각천(gore)을 대어 앞, 뒤 중심이 연결된 상태<그림3>가 되었지만 하체의 큰 움직임으로 인해 엉덩이

부분에 여유분이 많았다.

<그림



3> 16C 중반의 호즈의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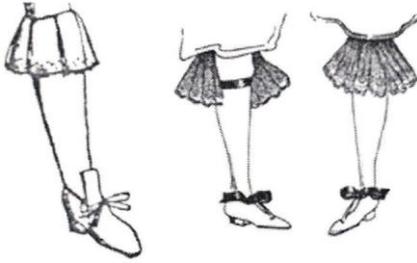
상의에 레거버머튼 소매와 슬래시가 유행하자 호즈에도 유사한 실루엣과 장식이 도입되어 넓적다리의 윗 부분을 더 볼륨있게 하거나 상의와 같은 장식 패턴을 사용하여 슬래시와 퍼프가 있기도 했다.

슬래시 된 부분은 종종 너무 헐거워져 세컨드 호즈(second hose)를 덧 신고 포인트로 연결하여 착용하다 결국 호즈를 상하로 분리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6세기 후반인 1589년 윌리엄 리(英)에 의한 기계 니팅은 아래 호즈에 해당하는 로우어 호즈의 기술이 되어 현재까지 거의 모든 양말과 스타킹은 니팅에 의해 제작되어지게 되었다.

17세기는 부츠의 대중화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 스타킹 또한 부츠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다. 실크 스타킹의 착용은 상류층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나, 비싼 실크 호즈를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실크 호즈의 부분이 많이 감추어지도록 긴 부츠 위로 무릎 밑 주변에 아름다운 천이나 레이스로 장식을 하기도 했으며, 부츠와 실크 호즈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자 레이스로 마무리 된 “부츠 호즈(boot hose), 세컨드 호즈(second hose)”<그림4>라는 린넨 호즈를 덧 신었다. 루이 14세(1643~1755) 시대에 짧은 구두가 유행하자 주름장식과 러프는 카농<그림4>이라는 명칭으로 무릎 밑을 장식했다.

18세기 초반 롤업(roll-ups)이라는 긴 양말은 무릎 위 길이었던 흰색의 양가죽 퀴로트 바지단 위로 올려 신고 가는 밴드로 고정했다. 1730년경부터 퀴로트 단이 무릎 밑까지 내려오자 좁은 밴드와 버클, 단추로 꼭 맞게 채워졌으며, 18세기 후반부에는 퀴로트 단이 양말의 끝 부분을 덮어내려 양말대님을 대신했다.



<그림4>17C 부츠호즈와 카논

짧아진 여성스커트와 다양한 춤은 스커트 내부의 양말을 보이게 함으로써 이 시기의 실크 스타킹은 여성의 패션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자존심 같은 품목이 되었다. 18세기 말에는 흰색의 목면 양말이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기술이

점차 발달하여 1889년에는 자동 기계까지 생산되어 이 시기부터는 오늘날과 같은 자동화공장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라. 19세기

여성의 씨스루 패션으로 스타킹의 길이는 무릎아래, 소재는 실크, 색상은 살색 유행이었고, 19세기에 가장 오랫동안 유행한 색은 흰색이었으며, 이 시대부터 스타킹은 여성 속옷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시기의 보수파와 혁명파의 정치적 대립은 남성의 복장대립으로 이어졌으나 양말은 밤색이나 흑색 등의 어두운 색으로 보편화되었다. 바지의 2가지 형태가 위사르(hussard)라는 이름의 합쳐진 형태로 등장하면서 그 길이가 발목 가까이 오자 오늘날과 같은 장딴지 길이의 짧은 양말로 바뀌게 되었고, 1830년 이후 양말은 바지 속에 가려져 밖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1830년대부터는 스포츠의 보급으로 여성들의 스타킹이 본격적으로 가시성을 띄게 되었고, 버슬 스타일이 유행할 즈음 스타킹은 거의 면으로 대체되었으며, 염료기술 또한 발달하여 다양한 색상이 등장하였다.

마. 20세기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경제 악화로 호저리는 실크대신 울,면과 같은 비싸지 않은 소재로 생산되거나 레이온으로 대체되기도 했

다.

1930년대 선풍한 다리가 유행하면서 스타킹을 신지 않기도 했으며, 스커트가 짧아지면서 면 스타킹은 점차 사라지고 실크 스타킹이 다시 선호되었고, 1940년 5월 15일에 대중들에게 시판되기 시작한 나일론 스타킹은 여성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실크스타킹으로 표현되는 아름다운 각선미를 대신할 수 있는 대중화의 시대에 접어들게 하였다.

1960년 가는 천연 고무사로 짜여진 팬티호즈(tights라는 이름으로)가 등장하여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던 시기에 고정기능의 가터나 서스펜더 없이 신을 수 있게 되었고, 남성의 양말도 윗 부분에 고무사가 들어가 형태가 유지되었다. 1970년대 스포츠 웨어의 확산으로 스포츠 호즈는 다양한 형태와 각각의 기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조형성을 갖추게 되었다. 1980년 전후 스타킹과 양말 디자인은 실험적인 다양한 작업을 하여, 이 때부터 스타킹은 무엇으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를 지나면서 나일론은 여성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소재로 인식되었으며, 이 시기에 등장한 라이크라 스판텍스는 팬티 호즈 뿐 아니라 여성들의 속옷에 거의 사용되었다.

1990년대 패션은 다원화를 이뤄 어느 하나의 경향보다는 여러 이미지가 혼재되어 나타나며, 하나의 이미지 내에서도 다양한 조형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3. 우리나라 양말과 스타킹의 사적 고찰

개화기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 소개된 양말은 평등을 강조하는 교리 전파를 니트의 신축성을 빗대어 양말을 신어 보라고 권하면서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되었다.

일제시대 패션리더인 신여성들의 양말과 구두를 함께 신은 복장과 1920년경 고무신의 확산으로 양말은 급속도로 버선의 자리를

차지했다. 1930년 전후는 양말과 버선이 공존하는 시기로써 양말의 소비는 급격히 증가되었고, 당시 양말의 소재는 면, 라일, 레이온이었다.

6.25 후 생활이 점차 안정기에 들에 따라 의류와 기타 장신구들의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며 당시의 나일론 스타킹은 거의 밑수에 의해 뒷중심에 심(seam)이 있는 형태로 유통되었다. 1954년 나일론 스타킹의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후 1962년에는 심리스(seamless)스타킹을 자체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 미니스커트의 부활과 고탄력 스타킹의 등장으로 각선미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양말과 스타킹은 다양한 텍스처의 패턴물과 색상, 기능성 개발이 진행중이며 더 이상 악세사리가 아니라 패션 품목의 하나로써 단순히 피복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아웃웨어와 조화를 이루는 통일성으로 패션의 경향과 함께 변화되어가고 있다.

제 2 절 서양에서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

인류초기의 양말은 식물의 잎, 동물의 털, 가죽 등으로 발과 다리의 보호와 보온을 위해 감싸 신기 시작하였으나 처음부터 일정한 형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리적으로 따뜻한 지역보다는 추운 지역에서 바지 폭과 길이 변화에 따라 노출되는 발과 다리의 피복 문제로 양말과 스타킹의 형태 변화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되어 상당한 변화와 분화가 이루어져 왔다.

양말과 스타킹이 차지하는 피복 면적이 증가할수록 기능성보다는 장식적인 요소들이 도입되면서 미적인 감각을 표출하는 조형 도구로 표현되어 왔다.

이렇게 양말과 스타킹은 인류가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함께 착

용하기 시작한 품목으로 그 변화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사적흐름을 바탕으로 양말과 스타킹의 소재, 기술, 형태와 장식, 색채 등의 조형적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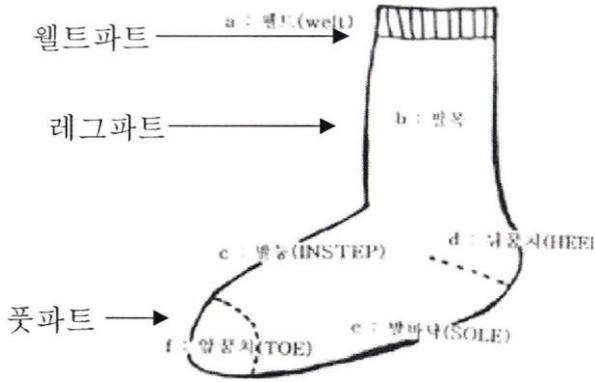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에 미치는 요인들에는 소재, 기술,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사회 문화적인 배경은 인간이 그것을 매개로 자아를 표현하는 기호가 되어 문화적 상징으로 가시화 되기에 동시대 문화의 한 면으로 보아야 하며, 기술적 요인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로서 어떤 다른 요인들보다 더 장기적인 조형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단 새로운 기술이 선 보여진 후에는 쉽게 그 방법이 변하기 않기 때문이며 이것은 소재, 형, 색채, 장식 등 모든 조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1. 양말과 스타킹의 각부 명칭

양말과 스타킹은 크게 웰트(Welt), 레그(Leg), 풋(Foot) 파트로 나누어진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웰트 파트는 고무목 부분의 웰트, 레그 파트는 발목 부분, 풋 파트는 발등(Instep), 뒤꿈치(Heel), 발바닥(Sole), 앞꿈치(Toe) 로 나누어진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양말과 스타킹의 각 부분의 세부 명칭과 그림은 <그림5>과 같다.

- | | |
|-----------------------|-----------|
| a : 웰트(Welt) - 목 고무부분 | A : 웰트 파트 |
| b : 발목 - 발목에 해당하는 부분 | B : 레그 파트 |
| c : 발등(Instep) | C : 풋 파트 |
| d : 뒤꿈치(Heel) | |
| e : 발바닥(Sole) | |
| f : 앞꿈치(Toe) - 발가락 부분 | |



<그림5>양말과 스타킹세부명칭 또한 양말과 스타킹의 길이항목에 따른 양말의 종류는 크게 9가지로 요약되며, 그에 따른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풋만 가리는 형에는 풋 커버(foot cover), 풋릿(footlet)이 있고, 발목부근까지 오는 형에는 슬리퍼 삭스(slipper socks), 앵클릿(anklet), 바비 삭스 (bobby socks), 쿼터 삭스 (quarter socks)가 있으며, 장딴지 길이의 형에는 크루 삭스 (crew socks), 니 하이(Knee high), 니 삭스(knee socks), 니커 호즈 (knicker hose)등이 있다. 넙적다리 길이(무릎 위 길이)의 형에는 오버 니 삭스 (over knee socks), 다이 하이(Thigh highs), 밴드(band)가 있고, 풋 부분이 없는 형에는 레그 워머 (leg warmer)가 있으며, 허리길이의 형에는 팬티 호즈(panty hose), 레오타드(leotard), 바디 스타킹(body stocking)이 있다. 허리 위 까지의 길이의 형에는 바디 슈트(body suit)가 있고, 성형되어 있지 않은 형에는 튜브 호즈(tube hose), 루즈 삭스 (loose socks)가 있으며, 기타에는 샌달풋 호즈(sandalfoot hose), 힐리스 호즈(heelless hose) 등의 종류가 있다.

2. 소재

인류 초기에 발과 다리를 피복하는 소재로는 식물의 잎, 동물의

털, 가죽 등의 자연재료 그대로를 감거나 신발에 넣어 신던 것에서 중세의 십자군 전쟁 시기까지는 대부분 모직이 일반적인 소재였고 그 외 린넨, 가죽(특히 새끼양의 가죽)등이 함께 사용되었다. 전쟁기간 동안 많은 외래 문화와 교류하게 되면서 중세 후반에는 다양한 직물의 유입으로 실크, 벨벳, 면 등이 사용되었고, 14C 후반에는 스칼렛이라는 질 좋은 모직으로 우븐의 신축성 문제가 약간 향상되자 상류층에서 애용되었다.

그러나 15C 실크 니트 호즈의 등장 이후 나일론 스타킹이 대중화되기까지 실크 스타킹은 최상품으로서 3세기 이상 자리를 지켜왔으며 17C 니트기계의 발달과 영국의 실용화 경향으로 면직 양말과 스타킹은 일반인들에게 보급되어 사치품이 아닌 일반복식 품목으로 인식되었다. 20C 인조, 합성 섬유는 발달과 나일론의 등장으로 더욱 저렴한 가격에 실크와 같은 각선미를 표현할 수 있어 일대 혁명을 가져왔으며, 20세기 후반 스판덱스 소재 등으로 각선미를 최대화하려는 소재 개발의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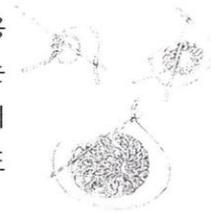
3. 기술

소재와 그 소재에 대한 제작 방법과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고대 초기에는 자연적인 소재 그대로를 사용하다가 우븐과 니트라는 제조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는 니트법이 우선하지만 복식에 사용된 것은 우븐이 앞선다. 이집트 시대 곱트인들은 동물의 뼈나 선인장 가시를 이용한 크로스 루프 니팅(cross-loop knitting) <그림6>을 개발하여 양말을 제작하였다. 이 방법은 현재의 니트 방법과는 다르지만 니트의 시작이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있어왔다는 점과 주로 양말 제작에 사용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으로 복식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양말과 스타킹의 니트 제작 방법은 고대 4~5C에 잠시 등장했다가 약 1000년정도의 기간동안 우븐에게 자리를 내어주어 신축성

이나 착용감, 타이트하지 못한 외관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서 각 선미를 최대화하려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16C 전후 수편 기술이 실크 소재와 함께 제작되어 값비싼 품목으로 통용되다 16C 후반 곧 기계니트로 이어지면서 니트 양말은 대중화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기계니트는 양말 품목에서 비약적이고 급진적인 발달을 이루어 섬세하면서도 하체를 최대한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욕구에 성큼 다가서게 하였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제작 방법이 되었다. 니트기계는 복식사 뿐 아니라 현재 사용되는 모든 기계의 시원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기계분야에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림6>크로스 루프 니팅법

4. 형과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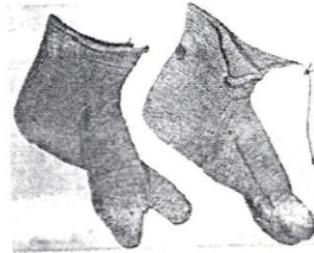
장식은 다른 조형성의 항목보다 형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변화하고 있으므로 형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형은 무릎아래부터 발목길이 까지가 기본길이가 되어 상하로의 연장이 길이 항목을 결정하였다. 고대시대에는 신발 안에 신겨져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페르시아인들에게 받혀진 공물 부조<그림7>와 트로베스크 늪의 바지에서 양말이 바지에 접합되어있는 것<그림7>B으로 보아 추운지역에서는 바지의 역할과 양말의 역할C 6C 페르시아인들에게 받혀진 공물 부조 함께 생각했다는 증거가 되며 발목 부분에서 꺾이는 재단상의 문제점을 안고서도 레오타드형으로 제작한 것은 당시 발의 보온이 상당히 필수적이었음을 시사한다.



AD 4C 전후 이집트 곱트인들의 양말형 <그림8>은 일본의 전통양말이나 병어리 장갑처럼 발가락 부분이 2개로 분리되어 있으며, 게르만 민족들에 의해 바지가 전 유럽에 확산되면서 각각의 부족마다 독특한 바지형을 착용했고, 바지 밑에 입었던 품목은 각반형과 덧버신형이 주류를 이뤄 전자는 호즈로 후자는 싹스로 발전하게 된다.

중세에 들어 각반형은 넓은 천으로 감싸거나 봉대 같은 넓은 띠로 칭칭 감아 올라갔으며, 10C 전후 길어진 바지와 함께 신은 덧버신형은 십자군 전쟁시 활동에 민첩함을 위해 각반형에게 주도형을 넘겨주었다. 이와 같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 호즈와 싹스의 형태와 명칭이 분명해졌으며 호즈와 싹스를 함께 신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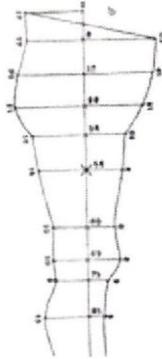


<그림8>AD 4C 이집트 곱트인의 양말

13~16C까지 상류층의 호즈는 발 부분(foot)이 함께 접합된 형이나 때로는 발바닥 부분에 보강재를 대어 호즈와 신발이 합쳐진 '페들(pedule)'을 신기도 했고 하류층의 호즈는 노동시 당김이 없도록 발 부분이 없는 것이 다수였다.

중세 후반에는 상의가 짧아짐에 따라 하체 즉, 다리의 각선미가 더욱 눈에 띄자 다리선 그대로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입체재단하듯 재단하여 다리 형태에 근접하는 소재와 패턴 연구<그림9>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길어진 호즈는 16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타이트해졌으며, 2 피스가 1조를 이루던 것이 한 피스의 타이츠형이 되면서 포인트<그림9>로 허리에 고정되어 바지를 대신하는 과도기를 겪게 되었다.



<그림9> 15C말의 호즈패턴과 포인트



호즈는 상의의 장식과 실루엣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여 상의의 레그어브머튼 소매와 슬래시가 유행하자 넓적다리 부분에서 위와 아래가 연결된 채 윗 부분을 더 볼륨있게 하거나 슬래시로 장식<그림10>하였으며, 결국 과도한 슬래시는 넓적다리 부분에서 상하를 2등분하는 원인이 되었다. 윗 부분

의 호즈는 점차 부피가 커지고, 아래의 호즈는 더욱 타이트하게 구분되어 위는 바지로, 아래는 스타킹으로 구분되어 오늘날까지 분화되어 왔다.

16C 후반에 수편과 기계편의 방법이 등장한 후 남녀 모두 무릎아래의 길이로 정착하였고, 17C초기에는 긴 부츠의 유행으로 부츠 상부가 꺾이면서 그 부분에 아름다운 천이나 레이스로 과대 장식하거나 부츠호즈를 덧 신었으며 중반 이후 부츠가 짧아지자 카농으로 무릎밑을 장식했다.<그림4>



<그림10> 16C초 슬래시된 호즈

18C 호즈는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무릎길이의 스타킹이 켈로트 밑단을 올려 덮는 형태에서(roll-up 밑단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변해갔다. 프랑스 혁명 말기 바지는 발목길이의 위사르로 변화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짧은 양말로 바뀌게 되어 1830년 후부터 남성의 양말은 장딴지에서 써스팬더로 고정되면서 바지 속에 가려져 밖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빅토리아 여왕시기부터 색상은 검정색과 어두운 색으로, 길이는 장딴지 길이로 정착되었으며 이러한 모드는 100여 년 이상 지속되었고, 20세기, 21세기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남성의 복장이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되는 18세기 후반부터 스타킹 패션을 주도하는 이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되었다. 20C 여성의 스타킹은 점점 길어져 무릎 위로 올라가게 되어 끝 부분을 가터나 써스팬더로 고정시켰고 그 길이는 계속 길어져 넙적다리 중간의 길이가 되었다. 1940년 처음 나일론스타킹이 출시되었을 때는 뒷다리에 심이 있는 형태였으므로 전쟁으로 공급이 줄어들자 뒷다리에 눈썹 연필로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심을 그리고 다니기도 했다.

<그림11>물업



<그림12>스타킹을 신은 듯 심을 그리는 모습

1960년대 미니스커트의 유행으로 팬티스타킹이 등장하게 되고, 스판텍스의 발명으로 착용감을 향상시켜 가터, 써스팬더 등의 고정을 위한 악세사리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1970년대는 스포츠 붐으로 각각의 스포츠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 양말이 등장했으며, 80년대 전후 길이의 다양한 변화와 텍스처어, 패턴, 자카드, 메탈릭, 장식호즈 등이 다량 선보여졌다. 80년대 후반 바디컨셔스를 중요시 여기면서 각선미에 더욱 관심이 고조되어 실험적이고 다양한 시도로 스타킹은 더 이상 악세사리가 아닌 옷의 한 품목으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가 되어 90년대 다양한 길이와 소재, 형태, 장식, 패턴이 공존하는 조형성을 갖게 되었다.

5. 색채

디자인의 요소 중 가장 먼저 가시성을 갖는 색채는 19C 전후 염색술이 급격히 발달하기까지는 천연 재료로 색을 내어 색에 의한 아름다움 뿐 아니라 이것으로 계급의 구분과 계층, 직업까지 알 수 있는 상징을 갖고 있었다.

이집트의 곱트인들은 텍스타일의 거장들로 색채에 대한 조예 또한 깊어 AD 4C에도 붉은색, 갈색, 보라색으로 니트 양말을 제작한 것은 고대인들에게도 색에 대한 미적 욕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9C부터는 노동과 상관없는 상류층은 명도와 채도가 높은 주황, 적색, 자주색 등을 선호하였으며, 금색은 왕족과 성직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 색으로 인정되었다. 반면 하류층은 명도나 채도가 낮은 올리브그린, 회색 등으로 노동후 더러움이 잘 드러나지 않는 색을 사용했다.

14C말 스칼렛은 원래 신축성을 향상시킨 좋은 모직의 소재명이었으나 당시 상류층에서 붉은 색이 유행하게 되자 색채명으로 지칭하게 되었다. 십자군 전쟁 후 문장의 여파로 줄무늬나 사선무늬, 양쪽의 색이 다른 파티칼라가 성행하였다.

17C에 흰색은 예장용이었고 패션어블한 부츠와 흰색 스타킹과는 함께 신지 않았으며 18C 남성들은 퀴로트와 함께 흰색바탕에 파란 줄무늬 스타킹을 선호했고, 일상용으로는 회색, 예장용으로는 갈색이나 품위있는 색을 선호했다. 18C 후반 부터 염색술 향상으로 여성 양말은 가운과 어울리는 다양한 색상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C 남성 복식이 오늘날과 같은 형을 지니게 되면서 양말의 길이만 정착된 것이 아니라 갈색, 검정 등의 색까지 정착되었고, 흰색은 정장에 실례가 되는 색상으로 스포츠용으로만 인정되었다. 여성의 경우 19C는 전체적으로 흰색이 유행했으며 옷, 신발에 맞춰진 다양한 색과 패턴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1926년쯤부터 피부색이 그대로 비춰져 누드의 느낌이 나는 플래시칼라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2차 세계 대전 후 여성의 호저리의 색상이 다양하고 화려해지는 반면 남성의 양말은 19세기 말 이후 한정된 색상으로 정착되어 오던 경향과 1950년 전후 합성섬유 양말의 유행으로 양말 생산업자들의 대량생산이라는 명목하에 재고의 부담을 줄이기 더 더욱 한정된 색상만을 생산하여 결국 빅토리아 여왕시기부터 남성 양말의 색상과 형태의 조형성은 오늘날까지 신겨지고 있다.



20세기 후반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여러가지색 <그림13>크레이지 이 보이거나 하나의 스타킹에 여러색으로 프린트우트나 자카드 무늬가 나타나는 것, 크레이지 토투 <그림13>, 복잡하게 여러색 실들이 혼합되어 얽혀 짜여진 것등이 나타나고 있다.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은 소재, 기술, 형과 장식, 색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가시화 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적 과정 중 일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말과 스타킹이라는 품목이 니트의 계보를 잇게 해준 품목이라는 점과 나일론 스타킹의 생산으로 저렴한 가격에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다리의 아름다움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욕구의 만족과 기회를 준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다음 <표 1>은 사적 고찰을 통한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을 요약하여 작성한 것이다.

	고대	중세	근세	19세기	20세기
소재	풀, 털, 가죽, 모직	린넨, 가죽, 모직, 실크, 벨벳 등	모직, 실크, 면직	견, 면직, 실크	리얼, 모직, 실, 나크, 레이온, 실크, 알론, 섀포트, 혼방 다양
기술	소재 그대로 사용, 우븐, 니트	우븐	니트기계 발명	니트	니일론 스타킹, 스펀텍스 등장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덧버선형 · 레오타드형 · 레그워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덧버선형(싸스) · 호즈-스타킹형과 레그워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츠형으로 바지를 대신하다 상, 하 분리되어 아래 부분을 스타킹이라 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넘어 두 무릎 길이로 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위주 패션 · 1960년대 팬티스타킹 등장 · 1990년대 다양한 길이와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오타드형 · 병어리장갑 · 앞이 갈라져서 니트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에는 실크, 호즈를 관계 신음. · 말기에 타이트해지고, 길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의 타이츠형은 앞은 코드피스, 뒤는 고어를 땀. · 18세기 전반은 롤업, 양 후반은 바지단으로 말이 들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양말속으로 보이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일론 스타킹 뒤에 seam이 있고, 60년대 seam이 없는 것 등장 · 스펀텍스로 인해 가터, 서스팬더 사라짐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붉은색, 보라색, 갈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류층은 밝은색 · 하류층은 어두운색, 채도 낮음 · 14세기엔 스칼렛, 15세기는 파티칼라 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티칼라, 사선무늬, 줄무늬 등 · 남성엔 여성보다 어두운 계열 선호 · 18세기 남성양말은 일상품으로는 회색, 예장용으로는 갈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색술 향상으로 다양 · 남성 양말은 어두운색으로 정착 · 19C 여성 양말은 흰색이 지배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6년쯤 플래시칼라 유행 ·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색상의 스타킹으로 높은 색의 스타킹 선호
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천, 가죽, 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밴딩, 가터, 스트랩, 금은사, 진주, 보석, 테스, 코드, 포인트, 브레이드, 클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티칼라, 슬래시, 포인트, 가터, 밴딩, 버클, 자수, 리본, 깃털, 레이즈, 보석, 카논, 부츠호즈, 금은사, 패드, 스칼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스팬더, 가터, 매듭, 리본, 레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스팬더, 가터, 스페셜밴드, 진주, 세퀀, 자수, 리본. · 과감한 프린트, 자카드 등의 텍스처어중요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지역을 위해서 추운 지역에서 보온을 위해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체의 대표 품목이 되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임. · 발목 부분에 클락 접합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래시로 세컨드 호즈를 착용하다 상하리가 유행 · 가터는 간소, 부풀린 바지는 화려. · 16세기 수편 실크 양말은 고가(高價)로 상류층만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기 후반부터 스타킹 패션을 주도하는 이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색되고, 소재 위주로 유행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부터 스타킹은 섹스어필한 품목으로 인식되고, 각각의 스포츠에 맞는 풋웨어가 등장 · 80년대에는 스타킹을 패션의 일부로 인식, 90년대부터 패션 트렌드에 맞춰 등장

<표 1> 서양복식에서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

제 3 절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과 이미지

1. 1990년대 양말과 스타킹의 이미지

1980년 이후 미니스커트의 복고가 유행하면서 레그웨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발과 다리를 피복하고 있는 양말과 스타킹은 악세사리의 영역에서 벗어나 옷의 영역에 포함되어 기본적인 기능을 가진 역할을 넘어 전체 패션을 완성시키는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 시기 이후부터 양말과 스타킹은 패션의 경향과 함께 변화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5가지 조형적 특징 또한 패션 트렌드에 발맞춰 새로운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패션 컬렉션을 통한 패션 트렌드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표현주의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하게 나타나다가 점차 기능주의적인 스타일과 융합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90년대 초반에는 표현주의적인 측면에서 시공간의 개념이 적용된 패션이 다수였으며, 중반에도 표현주의적인 측면에서 성적 매력의 개념이 적용된 디자인이 주요 트렌드였으나 점차 표현, 기능주의가 결합된 아방가르드를 거치면서 기능주의적인 퓨리처즘, 미니멀리즘이 부각된 기능적인 디자인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했다. 이 아방가르드는 90년대 초반에는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동양적인 비정형인 디자인으로의 흐름이 일반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후반기에는 특정스타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스타일의 영역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9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기능보다는 오히려 소비자의 다양한 양식에 맞추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양한 테마들이 동시에 나타나며, 하나의 테마에서도 디자이너의 특질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내어놓고 있어, 후기자본주의 사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중 다원화된 가치들의 공존과 탈대량화, 그리고,

개인화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의 다원화 이면에는 전반적으로 민족주의적이거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이는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하거나 다른 것들과의 융합(fusion)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특유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다양한 시도들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1990년대 패션 트렌드는 표현주의적인 측면에서는 다문화주의로서의 에스닉룩과 에콜로지룩 오리엔탈룩이 있고, 기능주의적 측면에서는 계급으로서의 성의 개념과 권력의 개념이 반영된 네오클래시즘과 미니멀리즘으로, 이는 클래식, 엘레강스룩 그리고 미니멀룩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1990년대 패션의 다원주의는 장르와 장르의 상호 영역을 넘나드는, 혹은 어느 하나의 스타일이나 룩이 아닌 복합적인 양상을 띄면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90년대 양말과 스타킹에서도 기존의 단순한 악세사리임을 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미지가 혼재되어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양말과 스타킹의 트렌드를 바탕으로 1990년대 양말과 스타킹을 복고풍, 스포티, 에콜로지, 에스닉, 아방가르드의 5가지 이미지군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이미지에 따른 조형성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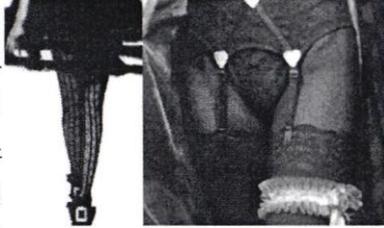
가. 복고풍(romantic image)

복고풍 패션은 근세시대의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복식, 19세기 낭만주의의 복식에 대한 향수로 20세기 말 역사와 전통에 대한 회상, 자연으로의 회귀로 다시 등장하였다.

80년대는 패션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한 장식의 극단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바로크와 로코코시대의 장식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80년대를 이어 90년대 복고풍은 다양한 패션 트렌드와의 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며 나타났다.

양말과 스타킹의 복고풍이미지는 거의 무릎위로 올라간 길이로

형태의 변화는 적지만 텍스처에 있어 조직, 자수, 색에 의한 패턴이 다분히 나타나고 있어 장식
이 많고, 화려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소재는 섬세한 자카드, 레이
스나 우븐과 니트, 니트와 레이스
등의 2개 이상의 소재가 합쳐진
것등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전



<그림14> 복고풍 이미지

체가 레이스로 짜여진 것, 가터부
분에 과도한 장식이 되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 발목 부분을
중심으로 자수가 사용된 것등이 있다. 색채는 검정과 흰색이 주
류를 이루고 있으며, 파스텔톤 보다는 원색계열이 부각되어 전체
적으로 화려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나. 스포티(sporty image)

1970년대 이후 스포츠의 붐으로 스포츠 룩은 패션의 캐주얼 부
분과 함께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보편적인
트렌드로 정착되었다.

양말과 스타킹에서의 스포츠 룩은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기
위해 길이에 대한 항목은 무릎 주변의 길이로 비교적 짧은편으로
써 활동감을 주고 있으며, 발부분(foot)이 없는 레그워머(leg
warmer)도 스포츠 웨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품목으로 등장하고
있다.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기존의 스타일과는 다르게 여성의 하이
힐과 면양말을 함께 신은 모습도 보이고 있으며, 나일론 소재보
다는 면 위주의 소재를 사용하여 다소 투박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활동적인 느낌으로 장식은 거의 없으며 색상은 흰색 위주로 나타
나고있다.

다. 에콜로지(ecology image)

에콜로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과학적 합리주의, 물질 문명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1960년대 반과 학사조부터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자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강화됨에 따라 복식분야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기대 하며 상품자체의 물질적 가치보다는 인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



로하는 비물질적 가치로 전환 되었다. 특히 복식분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 에콜로지가 하나의 유행 경향으로 제시되 기 시작하여 다원화된 시대적 사고가 반영된 에콜로지 이미 지가 제시되었다. 자연지향적 측면에서 자연과 전원에 대한 향수로 오염되지 않은 비서구 문명을 동경하고, 인간과 자연

<그림16> 에콜로지 이미지 이 조화되고자 하는 의식이 표현되고 있다.

양말과 스타킹에서의 에콜로지 경향은 표면의 장식적인 측면의 강조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것은 프린트가 주류를 이루며, 컷아웃(cut out)이나 전체의 조직 변화가 자연주의 원시주의 자연친화적인 경향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자연의 기본적인 요소로써 식물과 동물의 무늬가 드러나고 있는데 표범의 무늬를 프린트한 동물무늬나 꽃 무늬로써 옷과 같은 패턴을 스타킹과 구두까지 같은 패턴으로 이어져 전체의 조화를 이루려는 의도로 토탈 패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체 패턴을 동식물 위주의 이미지로써 에콜로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라. 에스닉(ethnic image)

에스닉 룩은 기계와 단순화 등 발전을 거듭하던 현대 문명에 대한 회의와 반성,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무시했던 20세기 초반의 시대사조인 모더니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립, 절충, 그리고 인간성 회복에 중점을 둔 시대사조의 반영으로, 서구문화의 지배로 인해 무시되어 왔던 민속복과 원시주의 양식이 부각된 것이다.



특히 다문화주의의 경향으로 디자이너 고유의 오리진알리티나 국가와 민족의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퓨전(fusion)이 이루어지더라도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다양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다른 조형성의 영역보다도 장식적인 측면의 강조로, 텍스타일의 변화가 강조되어 표현되고 있다. 아프리카 풍의 프린트, 자카드, 트로피칼 룩을 연상시키는 색채와 무늬, 프린징 등의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마. 아방가르드(avant-garde 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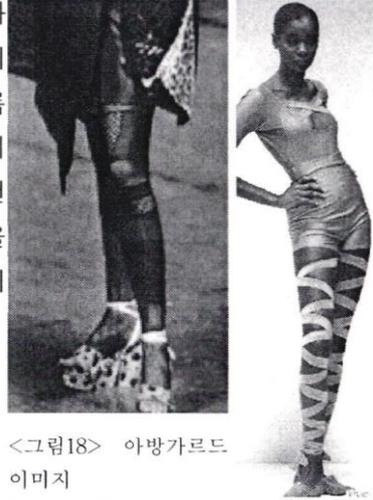
아방가르드는 전대의 가치체계와 전통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새로운 미적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조형질서를 모색하

<그림17> 에스닉 이미지

며 새로운 표현방식의 시험을 주장하는 혁신적이고 극단적이고 실험적인 현대예술이다.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인체형과는 무관한 형태를 이루며 장식적 디자인 역시 미적 특성을 부여하는 등의 특별한 의미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소재, 형태, 장식의 3가지 면이 극단적으

로 표현되고 있다. 소재에 있어서는 비닐, 가죽, 털등이 이용되거나 형태적인 면에서는 발가락 부분이 잘려져 나간 형태와 밴딩과 패치, 컷 아웃(cut out)를 이용하여 다리 전체를 피복하고 있으며, 패션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같은 패턴을 더욱 과장되게 스타킹에 프린트 한 것과 여러 소재를 한꺼번에 조합한 것, 구멍 뚫린 스타킹을 하나의 패션으로 등장시킨 해체주의적인 것도 있다.



<그림18> 아방가르드 이미지

제 4 절 결론 및 제안

본 연구는 양말과 스타킹의 사적 고찰을 통해 조형적 특징들을 고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양말과 스타킹의 이미지 분류에 대해 각각의 조형성을 살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의 디자인 연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양말과 스타킹의 사적고찰을 통한 조형성과 1990년대 이미지와 그의 조형적 특징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말과 스타킹은 인류초기에 생리적인 기능위주에서 중세 이후 착용상 여러 문제점이 수반되더라도 조형적인 면에 비중을 두어 인간의 미적 욕구와 복식전체의 조화와 통일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 인류초기부터 2피스였던 양말과 스타킹은 16세기에는 길어져 한 피스가 되어 바지 역할까지 하는 하체의 대표 품목이 되었고, 16세기 중반이후 넙적다리에서 상하로 분리되고 니트법의 부활과 니트기계의 발명으로 오늘날과 같은 형을 갖추게 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 나일론 스타킹의 출시는 일반인들에게 저렴한 가

격으로 각선미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셋째,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의 주요 특징은 소재, 기술, 형, 장식, 색채로 요약된다. 소재는 동식물의 자연그대로의 상태 소재에서 모직으로 약 1500년간 지속되다 16세기부터 실크와 면이 등장하였고, 20세기에는 레이온, 나일론, 스판덱스까지의 변화가 있었다. 기술은 우븐, 니트, 우븐으로 변하면서 약 1000여년간 지속되다 16세기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시 니트에게 자리를 내주었으며, 형은 길이항목에서 발목, 무릎주위, 넓적다리, 허리까지로 구분되며 이의 변형인 레오타드, 부츠호즈, 팬티호즈, 레그워머 등과 기계에 의한 심의 유무나 입체형도 있다. 장식은 가터, 문장, 밴딩, 카논, 슬래쉬, 자수(클락), 보석, 리본, 컷 아웃, 패치, 써스펜더, 프린트, 자카드, 기계에 의한 텍스타일 등이 있으며, 색은 20세기 전 상류층은 명도, 채도가 모두 높았으나, 하류층은 어두운 색 위주였으며, 20세기 이후에는 남성은 검정, 회색, 청색으로 한정되며, 여성은 살색을 기본으로 다양한 재료와 함께 수 많은 색이 등장했다.

넷째, 1990년대 양말과 스타킹의 이미지는 복고풍, 스포티, 에콜로지, 에스닉, 아방가르드로 분류되었고, 각각의 조형적 특징에 있어서 복고풍은 자카드나 레이스직과 원색위주의 화려한 장식이 있으며, 스포티는 흰색위주의 밝은색이 주를 이루며, 주로 면을 이용해 활동적인 느낌을 추구하고 있다. 에콜로지와 에스닉은 색채, 프린트, 자카드의 텍스타일의 변화로 그 특징이 나타나며, 아방가르드는 형과 재료, 장식의 다양함으로 요약된다.

이상과 같이 사적 고찰을 통한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은 중세 이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장식적이고, 조형적인 면에 치중하였으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소재와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니트와 나일론 섬유로 인해 대중적인 품목이 되었고, 더 이상 부수적인 품목이 아닌 토탈패션의 한 부분으로 당당히 자리하며 전체패션을 완성시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후속연구로는 양말과 스타킹의 기원이 고대로 갈수록 그 형태, 기능, 재료가 신발, 바지와 유사하여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으로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와 국제 무대에서 정체성을 지닌 한국적인 이미지의 양말과 스타킹 디자인을 위한 연구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 4장 소비자 조사와 시장환경조사

본 연구는 세계인의 취향에 어울리는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과 양말 디자인 개발과 이에 따른 수출증대가 주된 목적이며 신발과 양말에 대한 사적 자료와 최근 패션트렌드에 대한 DB화 구축으로서 양말과 신발디자인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리지널한 패션 정보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신발 시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확한 소비자 정보 및 시장환경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 1 절 조사방법

1. 설문조사

신발시장에 대한 일반적 시장조사 및 시장세분화, 신발에 대한 소비자태도, 가치관, 행동, 한국적 이미지에 대한 태도, 신발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및 신발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조사(<부록>참조)를 시행하였다.

조사기간: 2000.10.10-10.23

조사인원: 남자 200명, 여자 200명

조사연령: 10대 중후반-30대 중반

조사지역: 서울

2. 외국인 인터뷰

한국적 이미지에 대한 태도 및 신발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5인의 외국인을 인터뷰 하

었다.

조사기간: 2000.2.20

조사인원: 연세대학교 어학당

일본인 1명, 중국인 1명, 미국인 2명, 독일인 1명

제 2 절 신발 시장 세분화(Market Segmentation)

신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기능성, 가격, 품질, 디자인 등에 대하여 조사한 바

<그림 1>과 같이 4군의 소비자 집단을 구분 할 수 있었다.

과시성 추구집단	고가 브랜드를 선호하며, 신발 구입시 디자인을 가장 중요시 하는 집단	92명	23%
기능성 추구집단	신발의 내구성이나 활동에 적합한 신발을 선호하는 집단	131명	32.8%
경제형 과시성 추구집단	고가 브랜드를 선호하고 디자인을 중요시하면서도 가격에 민감한 집단	91명	22.8%
실용성 추구집단	가격, 기능성, 디자인을 고루 중요시하며 고가브랜드에 대해 부정적인 집단	86명	21.5%
		400명	100%

<그림 1> 신발 소비자 집단 세분화

1. 소비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과시성 추구집단이란 고가 브랜드를 선호하며, 신발 구입시 디자인을 가장 중요시하는 집단으로 평균 수입이 가장높게(월 319만

원)나타났으며, 평균 연령도 가장 낮게(24.8세)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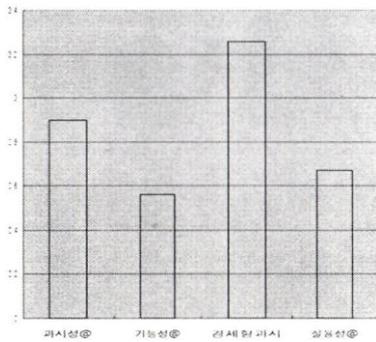
기능성 추구집단이란 신발의 내구성이나 활동에 적합한 신발을 선호하며 비교 연령이 높은(평균 27.0) 집단으로 주로 강북에 살고 있었다.

경제형 과시성 추구집단이란 고가 브랜드를 선호하고 디자인을 중요시 하면서도 가격에 민감한 집단으로서 평균수입은 283만원이며 평균 연령은 25.9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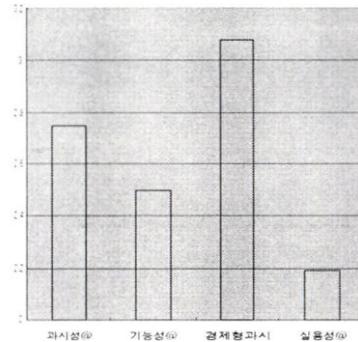
실용성 추구집단이란 가격, 기능성, 디자인을 고루 중요시하며 고가브랜드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평균 수입은 275만원이다.

2. 소비자 집단의 태도와 가치관

경제형 과시성 추구집단은 대체로 국산보다 외제가 우세하다고 생각하며 때문에 유명 브랜드의 모조제품을 구입한 것에 대하여 높게 나타나며, 특이하며 튀는 디자인이거나 새로운 디자인과 유행성에 민감하며 그리고 충동 구매하는 성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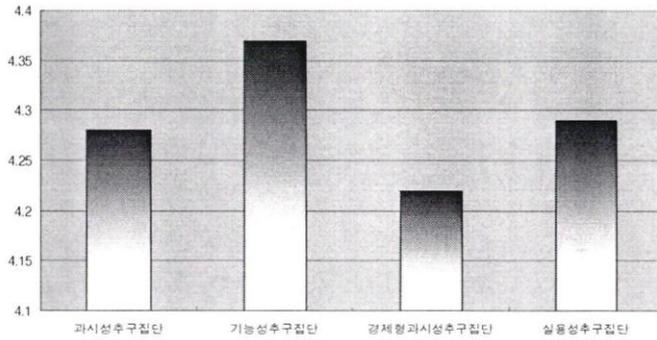


<그림2> 외제브랜드의 우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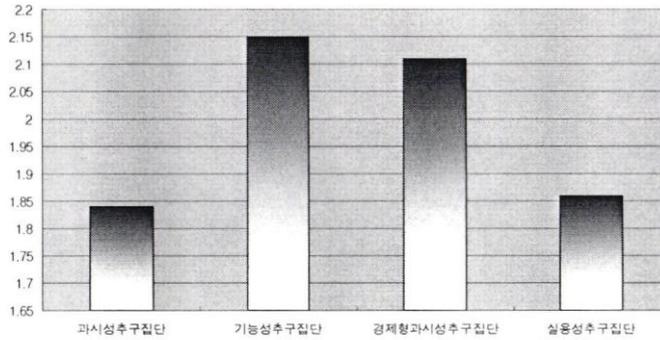
<그림3> 특이한 디자인 선호도

과시성 추구집단과 기능성 추구집단은 가벼우면서도 활동하기 편하며 신어보고 발이 편한 신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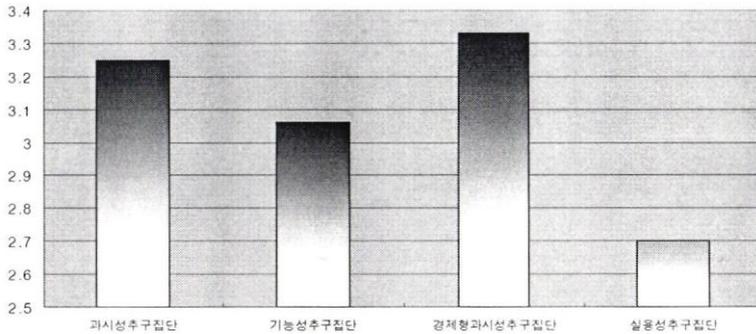
<그림4> 신발 기능성에 대한 선호도

상품권의 이용은 기능성추구집단이거나 경제적 과시형 추구집단에서 많으며 종업원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에 있어 훈련된 샵 마스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잡지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신발에 대한 정보를 자주 찾으므로 신발에 대한 홍보도 이제 잡지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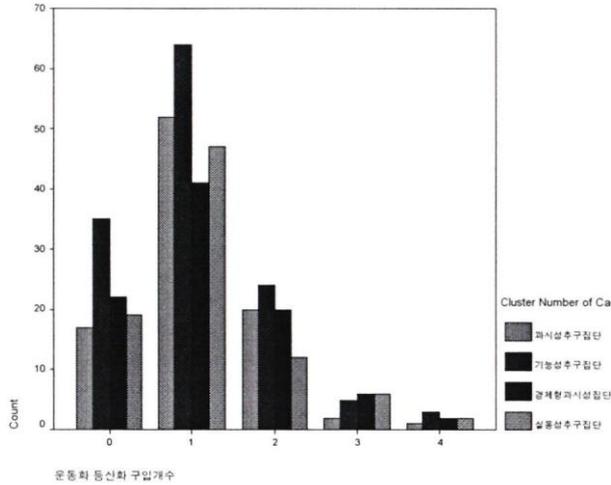
<그림5> 인터넷 정보매체 선호도

과시성 추구집단이나 기능성 추구집단, 그리고 경제형 과시성 추구집단들은 운동화는 외제가 품질, 디자인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되어 국내 브랜드가 디자인 측면에 신경을 써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6> 외제 브랜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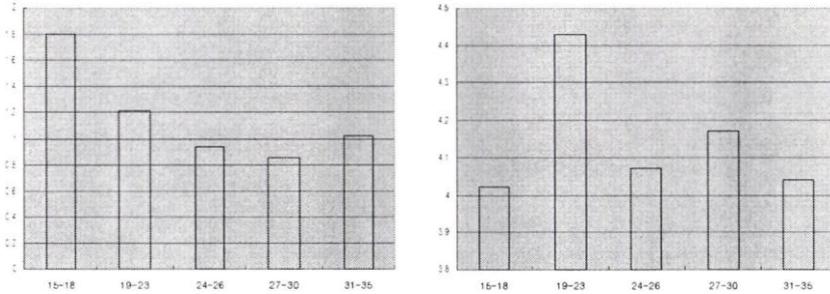
3. 소비자 집단의 신발 구입개수와 구입 종류



<그림7> 일년간 운동화 · 등산화 구입개수

지난 일년간 구입한 각종 신발의 개수는 정장구두가 1.07개, 캐주얼 구두가 0.79개, 부츠가 0.18개, 운동화와 등산화가 1.11개, 샌들과 슬리퍼가 1.00개로 운동화와 등산화의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발의 구입 개수는 남녀의 성간이나 소비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outdoor/travel shoes에 대한 수요를 예측 할 수 있었다.<그림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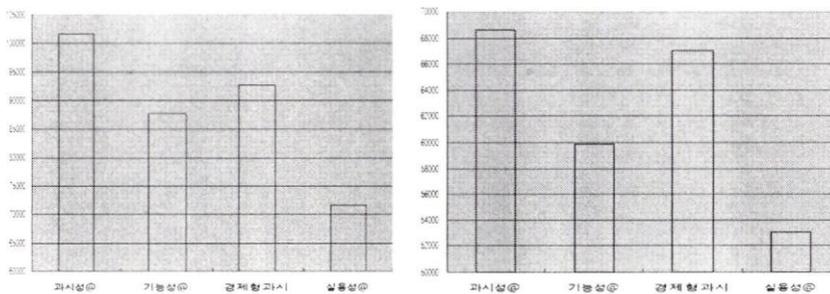
또한 지난 일년간 구입한 각종 신발류의 개수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구두는 24세에서 30세 사이에 가장 많이 구입하였고, 캐주얼 슈즈는 19세에서 23세, 운동화와 등산화 구입은 18세로 15세에서 23세가 가장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령층은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의 디자인에 민감한 경제형 과시성 추구 소비자 층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그림8> 연령에 따른 신발 구입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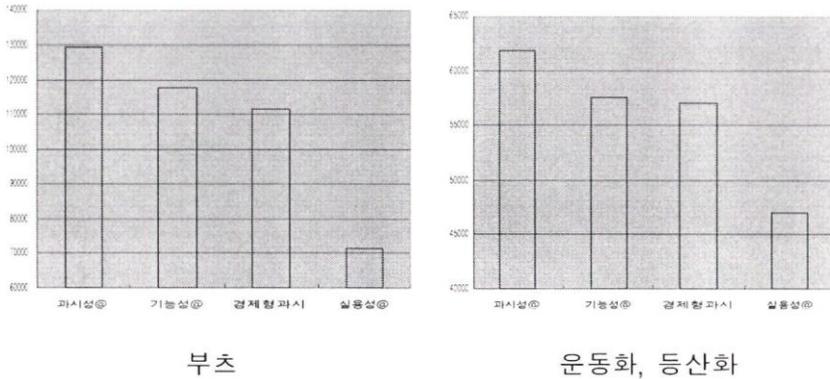
4. 소비자 집단의 신발 구입가격

지난 일년간 구입한 각종 신발류의 가격은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과시성 추구집단은 정장구두를 100,000원 선에서 주로 구입하는 경향이었으나 실용성 추구집단은 70,000원 선에서 구입하는 경향이며, 캐주얼 슈즈 구입시에도 과시성 추구 집단은 60,000원선에서, 실용성 추구집단은 50,000원선에서 구입하는 경향이였다. 특히 운동화와 등산화 구입시에는 과시성 추구집단은 60,000원선에서, 그리고 경제형 과시성 추구집단은 55,000원선에서, 실용성 추구집단은 47,000원선에서 구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장 구두

캐주얼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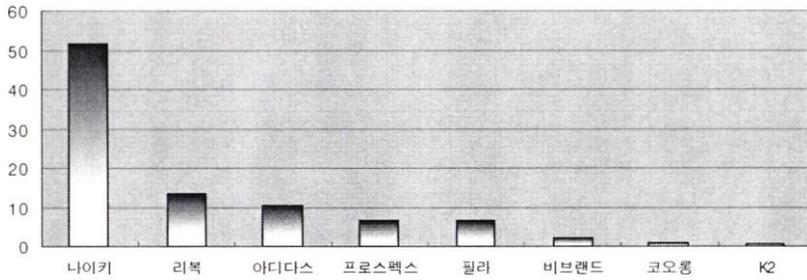


<그림9> 소비자 집단간 구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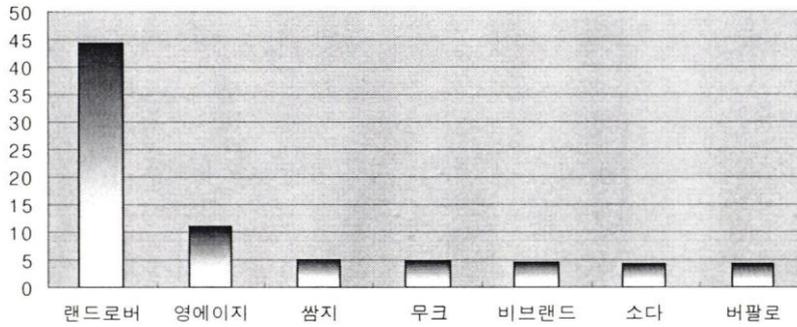
제 3 절 브랜드 충성도(brand loyalty)

운동화(스포츠화, 스니커즈, 등산화), 캐주얼 슈즈, 정장구두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한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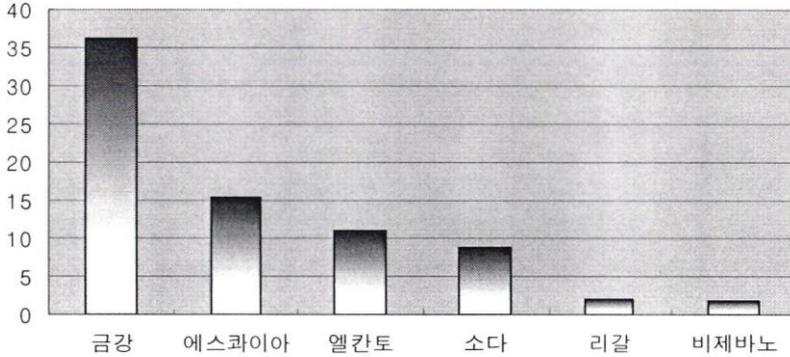
운동화 브랜드는 외산 브랜드 즉 나이키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며, 캐주얼 슈즈 브랜드는 국산브랜드(랜드로바)에 대한 선호가 우위를 이루었다. 또한 정장구두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국산브랜드(금강)가 우위를 이루었다.



<그림10> 운동화(스포츠화, 스니커즈, 등산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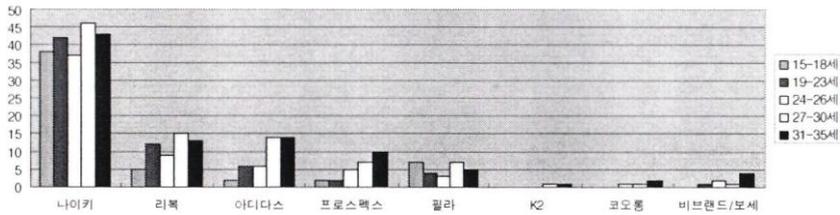


<그림11> 캐주얼 슈즈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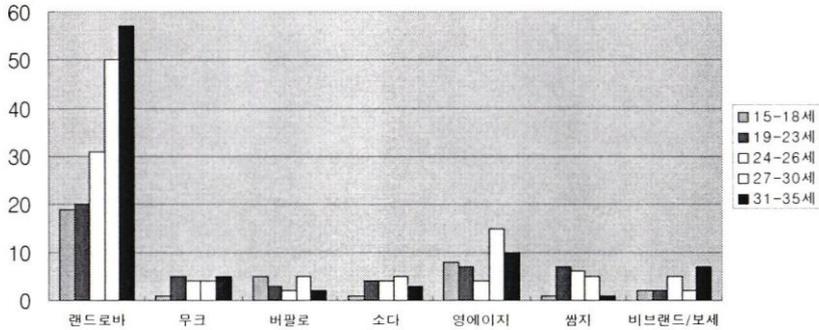


<그림 12> 정장구두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K2, 코오롱의 상표는 20대가 후반, 30대에 게 선호되며, 연령이 낮은 소비자 층에게는 거의 어필을 하고 있지 못했다. 이들 브랜드는 20대 후반, 30대의 고객범위를 더욱 넓혀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인다. 캐주얼 슈즈 브랜드들은 대개 전 연령층에 골고루 선호되나 씀지는 20대 초반에게 선호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3> 연령별 운동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그림14> 연령에 따른 캐주얼 슈즈 브랜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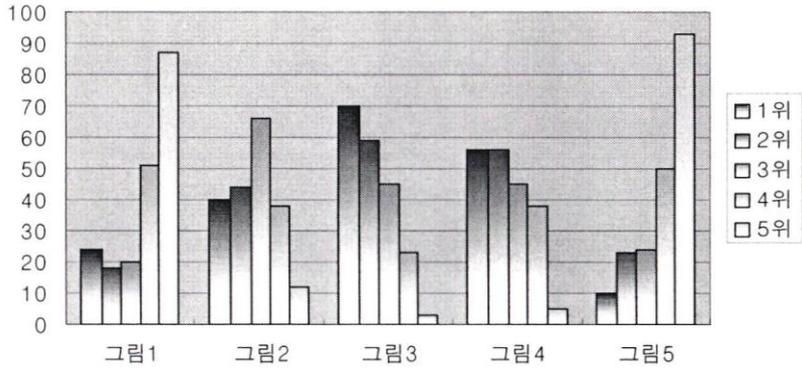
제 4 절 신발 디자인의 선호도

본 절에서는 실제로 운동화 디자인을 위한 조형적인 특징에 대한 조사를 한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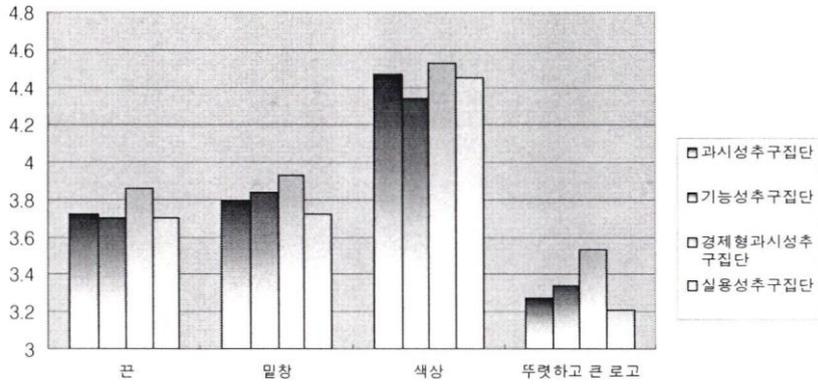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광고사진에서 운동화의 앞면과 측면이 모두 들어간 광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것은 소비자들이 앞면과 측면의 디자인을 가장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굽높이는 평균 3.34cm이었으며, 적당히 운동화 앞모양이 날렵함과 적당히 넓게 퍼진 스타일을 선호하며, 너무 날씬하거나 넓게 퍼진 신발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였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디자인에 있어 중간형의 적당한 높이의 굽을 선호하며, 굽높이나 앞코모양에 대하여 남성들이 여성보다 극단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 끈이나, 밑창, 그외 로고 등의 디자인 요소에 대하여 중요시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특색색상을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꼽고 있었다.



<그림15> 남성들의 운동화 앞모양에 대한 선호도



<그림16> 소비자 집단간 디자인 요소에 대한 태도

제 5 절 한국적이미지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1. 외국인 인터뷰

1) 연세 대학교 어학당 외국인 5인에게 아무런 자극 없이 “한국”과 연상되어서 언급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Traditional House”, “Taeguk”, “rocky mountain”, “Buddhist temple”, “Kim-chi” 등을 언급.

2) 한국적 이미지 자극에 의한 연상 : 특정 이미지를 제시하고 반응을 확인

한복의 상하비례나 실루엣, 한글의 특이한 형태, 용은 중국적이거나 아시아적이라고 하거나, 색동무늬나 도깨비도 한국적이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3) 자극으로 제시된 한국적 이미지에 대한 신발 디자인에 대한 반응

외국인들은 신의 밑창이나 옆부분, 등에 부분적으로 표현된 신발 디자인 보다는 전체적으로 짚신의 형태를 띤다든가, 고무신의 형태를 띤 신발디자인에 대하여 더욱 호감을 가졌다.

(참조 제6장)

2. 소비자 조사

-선호도에 있어 특별히 선호되는 이미지는 없었으나 대표적인 한국적 이미지로 태극무늬, 호랑이, 한복, 무궁화, 학, 소나무, 조경, 전통적 건축물, 로키 산맥, 한복, 김치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

(참조 제6장)

제 6 절 결론

이상과 같이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 양말디자인을 위한 소비자 조사 결과, 경제형 과시성 추구 집단이 본 연구의 outdoor shoes 제작의 타겟마켓으로 선정되었다. 이 집단은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고 디자인을 중요시하면서도 가격에 민감한 집단으로서 평균연령은 20대 중반이다. 이들이 선호하는 가격대는 55,000선이다. 이들은 서울 강남이나 서울 서부에 주로 살며, 상품권을 이용한 경험이 많으며, 종업원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므로 샵 마스터의 역할이 중요한 집단이다.

외국인 인터뷰라든가 소비자 조사에 의하여 본연구에서는 용무늬, 한글, 연꽃, 창살무늬, 색동무늬, 태극무늬이미지 등이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 양말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선정되었다.

제 5 장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 양말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 DB 구축

제 1 절 DB 개요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 양말 디자인 개발을 위한 작업에서 수집된 사적 자료 및 최근 트렌드의 이미지 자료를 DB화하였다. DB의 종류는 서양 신발, 한국 신발, 양말, 한국적 문양의 4종류이며 각각에 대해 조형성과 스타일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이미지 자료를 분류하였으며, 신발 이미지의 감성에 대해 주요한 8가지 감성 축을 설정하여 각각 감성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감성의 5점 척도는 의류학과 전문가 집단의 논의에 의해 이미지의 감성을 결정하였다. 또한 검색 엔진을 개발하여 자료에 대해 검색 항목으로 찾을 수 있게 하였다.

서양 신발 DB의 분류 기준: 역사, 조형성(Top line, upper 개폐, heel의 유무, toe의 형태), 용도, 재료, 장식성, inspiration, 디자이너 및 브랜드(who's who), 스타일(부츠, 슈즈, 힐, 슬리퍼, 펌프스, 샌들, 플랫폼).

한국 신발 DB의 분류 기준: 역사, 스타일(화, 리), 소재, 신분상징성, 장식성.

양말 DB의 분류 기준: 역사, 길이, 장식성, 소재, 조직, 스타일 (호즈, 레오타드호즈, 팬티호즈, 부츠호즈, 삭스, 버선)

한국적 문양 DB의 분류 기준: 자연문, 추상문, 기하학문, 전통문

감성 축 : Trendy, Conservative, Feminine, Manish, Formal, Casual, Ethnic, Modern.

1. 서양 신발 DB의 검색

서양 신발 DB에서 검색 항목으로 <<역사-이집트, 스타일-샌들>>을 넣어 검색하면, 오른쪽 화면에 검색자료가 찾아진다. 이 검색항목으로는 2개의 자료가 검색되었는데, 이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에 큰 사이즈의 신발 이미지가 보여지고, 그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다. 정보는 <<역사-이집트, upper 개폐- open, heel 유무-flat shoes, top line-low, who's who-국외, 용도-보행화, 재료-금속, 스타일-샌들, inspiration-ethnic, 그 외 설명과 8가지 항목 감성의 5점 척도 점수>>이다. <그림41>

<<역사-로마, 스타일-샌들>>을 넣어 검색하면, 3개의 자료가 검색된다. 그 중 1개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에 큰 사이즈의 이미지가 보여지고, 그에 대한 정보로서 <<역사-로마, upper 개폐- open, heel 유무-flat shoes, top line-middle, who's who-국외, 용도-보행화, 재료-피혁, 스타일-샌들, 그 외 설명과 8가지 항목 감성의 5점 척도 점수>>이다. <그림 42> 이상과 같은 형식으로 <그림 43>-<그림46>은 검색 자료의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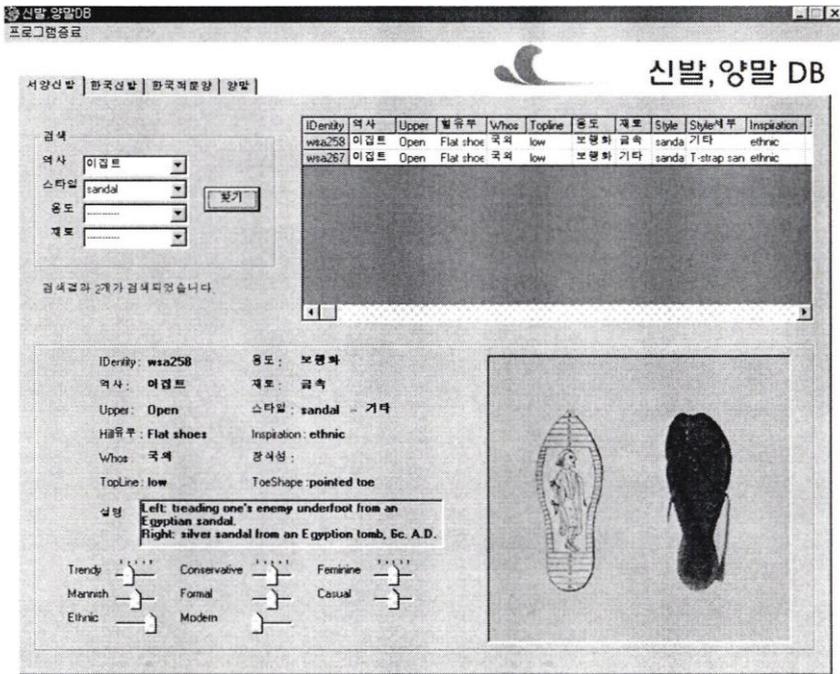


그림 41 서양신발 DB, 역사-이집트, 스타일-샌들을 검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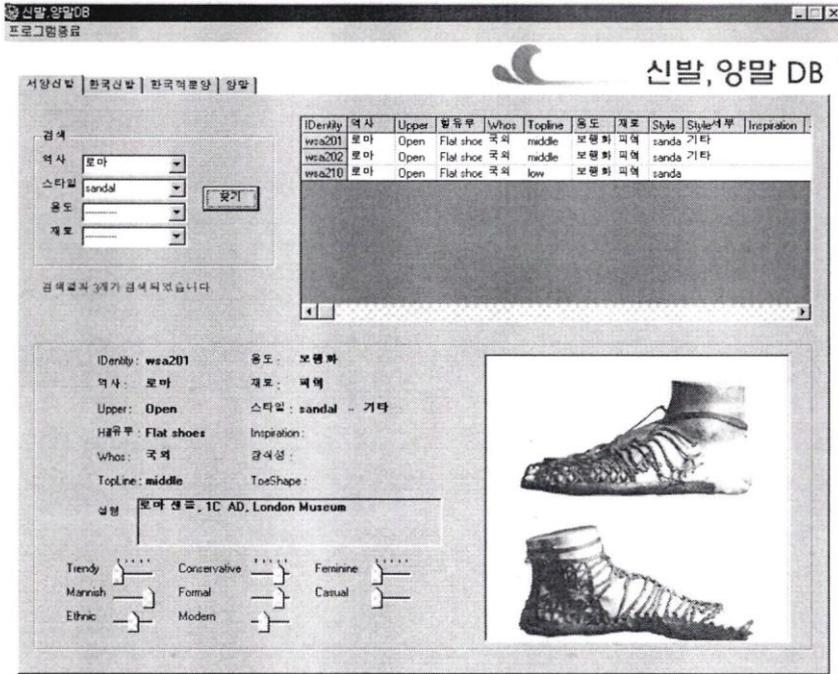


그림 42 서양신발 DB, 시대-로마, 스타일-샌들을 검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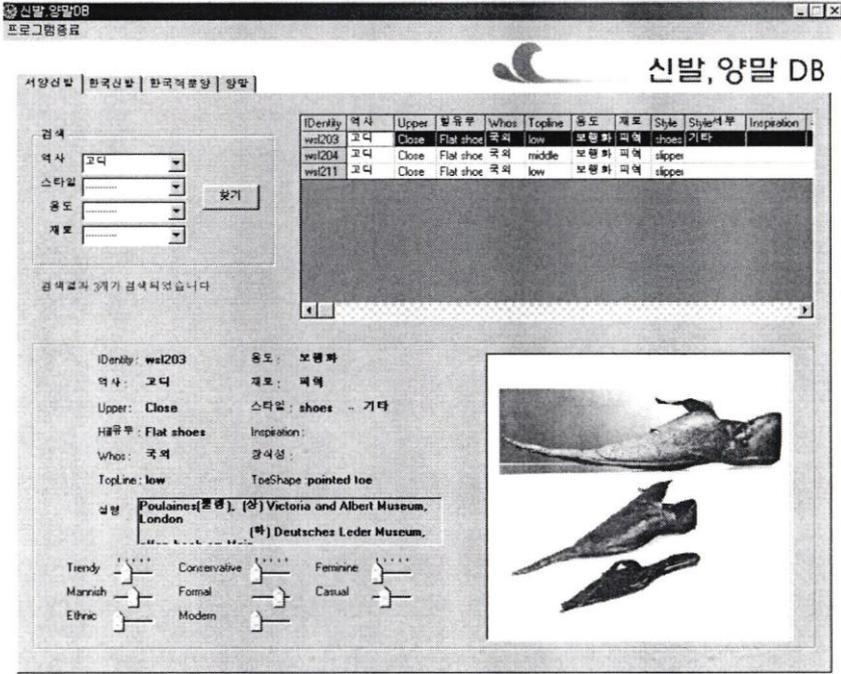


그림 43 서양신발 DB, 시대-고딕을 검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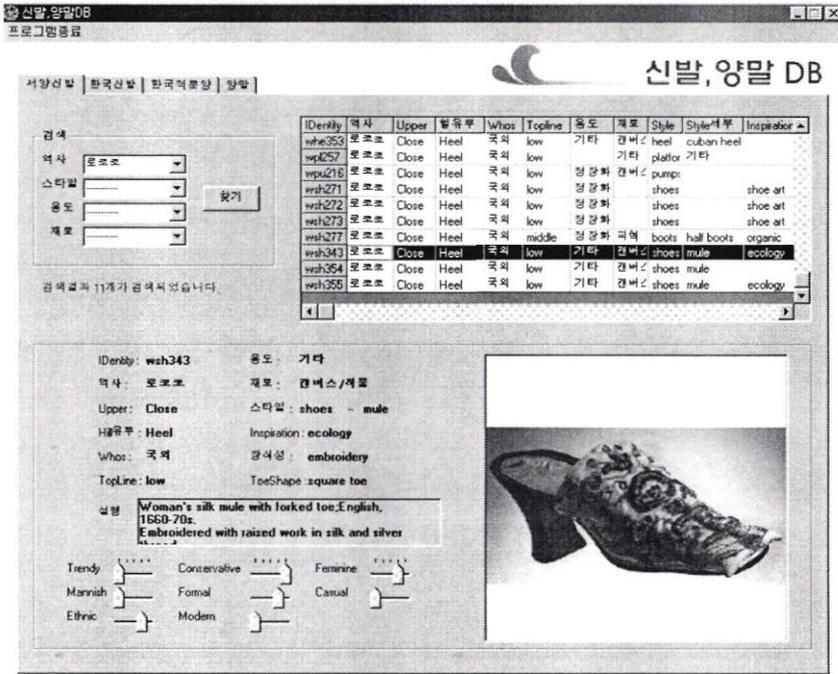


그림 44 서양신발 DB, 시대-로코코 시대를 검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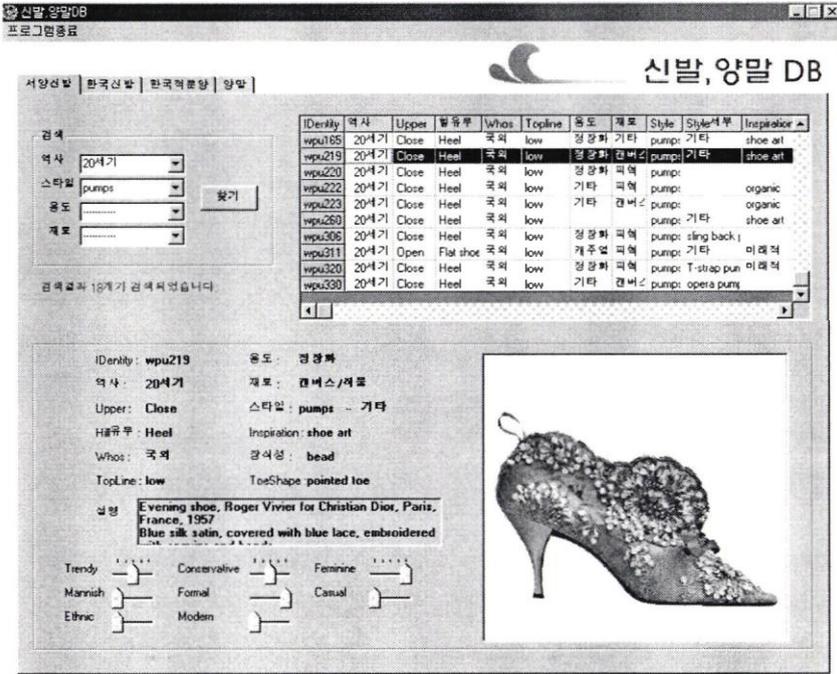


그림 45 서양신발 DB, 시대-20세기, 스타일-펌프스를 검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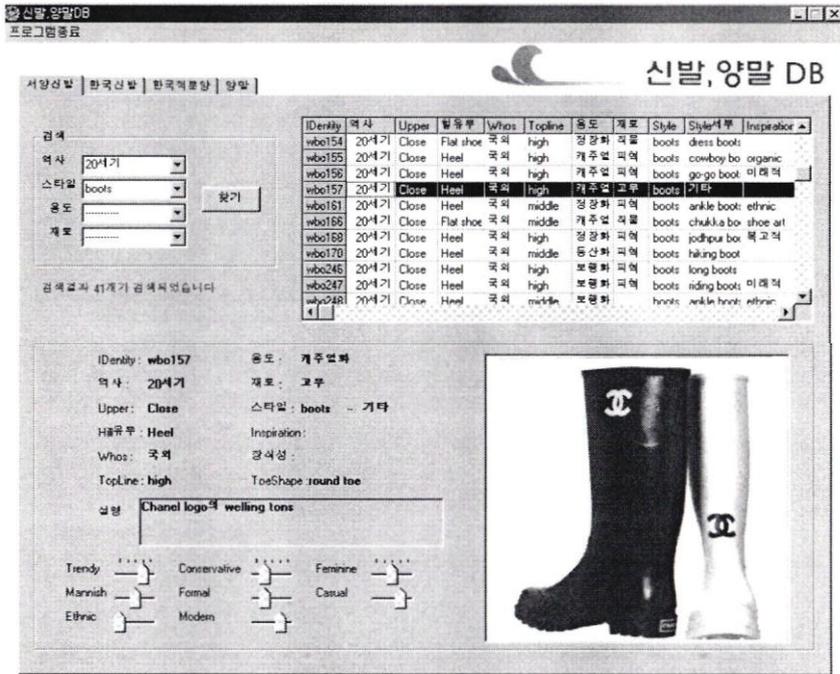


그림 46 서양신발 DB, 시대-20세기, 스타일-부츠를 검색한 경우

2. 한국 신발 DB의 검색

한국 신발 DB에서 검색 항목으로 <<역사-삼국시대, 신분상징성-상류층>>을 넣어 검색하면, 왼쪽 아래화면에 검색자료가 찾아진다. 이 검색항목으로는 10개의 자료가 검색되었는데, 이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오른쪽 화면에 큰 사이즈의 신발 이미지가 보여지고, 그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다. 정보는 <<역사-삼국시대, 스타일-리-금동리, 재료-금속, 장식성-징, 신분상징성-상류층, 그 외 설명이 디스플레이된다. <그림 47>

이상과 같은 형식으로 <그림 48>-<그림 51>의 정보를 살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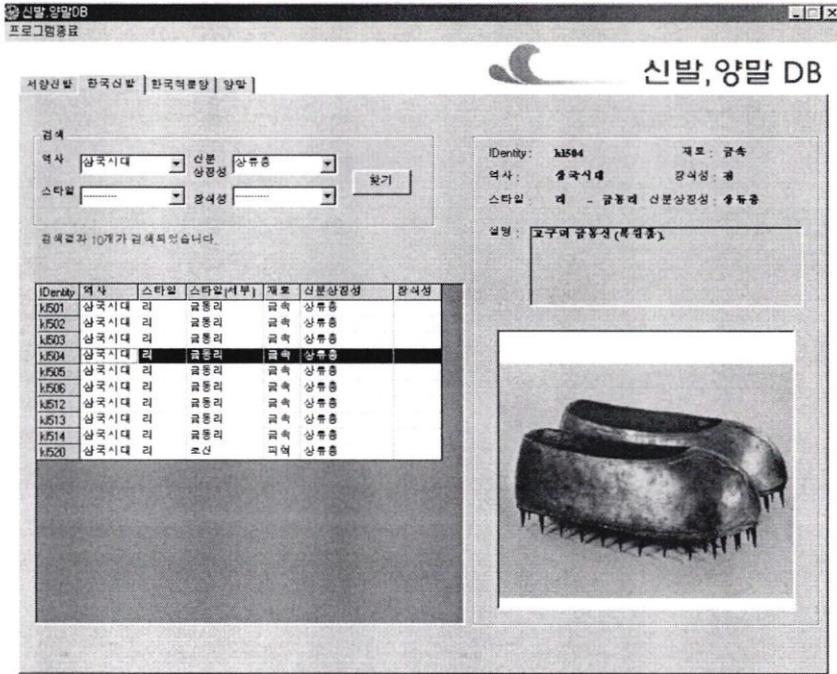


그림 47 한국신발 DB, 시대-삼국시대, 신분상징성-상류층을 검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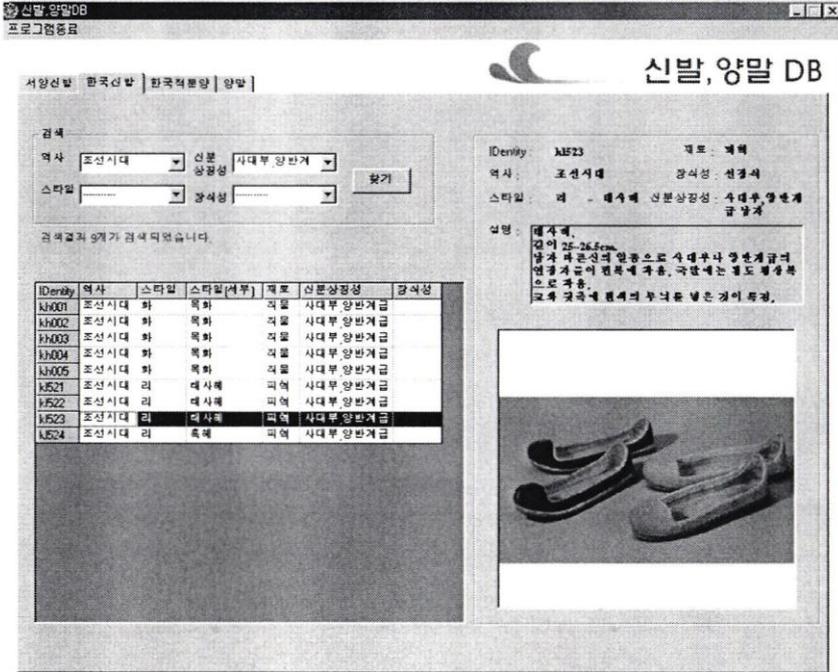


그림 48 한국신발 DB, 시대-조선시대, 신분상징성-사대부, 양반계급을 검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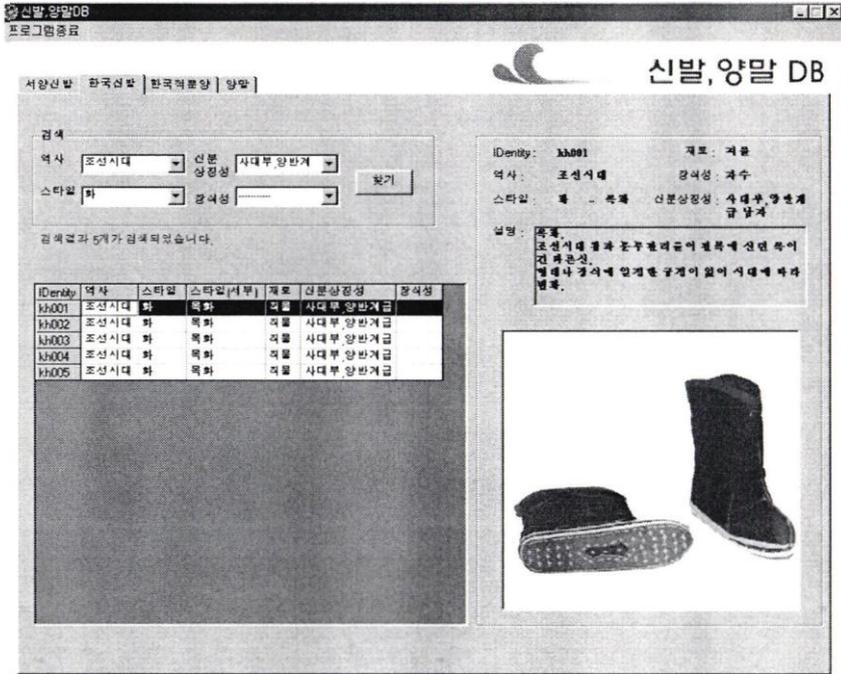


그림 50 한국신발 DB, 시대-조선시대, 신분상징성-사대부, 양반계급을 검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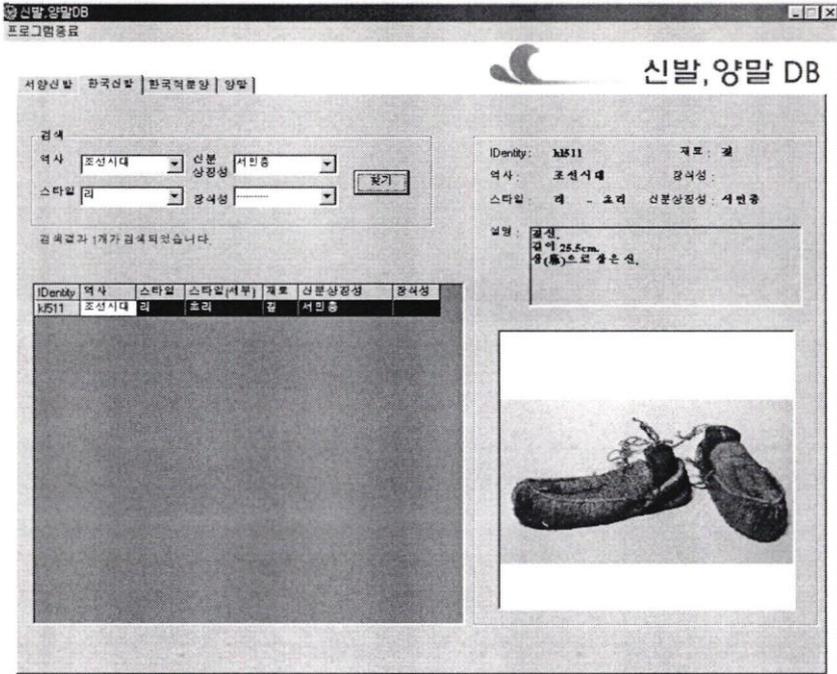


그림 51 한국신발 DB, 시대-조선시대, 신분상징성-서민층을 검색한 경우

3. 한국적 문양 DB의 검색

한국적 문양 DB에서 검색 항목으로 <<종류-자연문>>을 넣어 검색하면, 아래 화면에 검색자료가 찾아진다. 이 검색 항목으로는 10개의 자료가 검색되었는데, 이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큰 사이즈의 문양 이미지가 보여지고, 그에 설명이 디스플레이 된다. <그림 52>

<그림 53>-<그림 55>는 각각 추상문, 기하학적 문, 전통문에 대한 검색된 자료와 설명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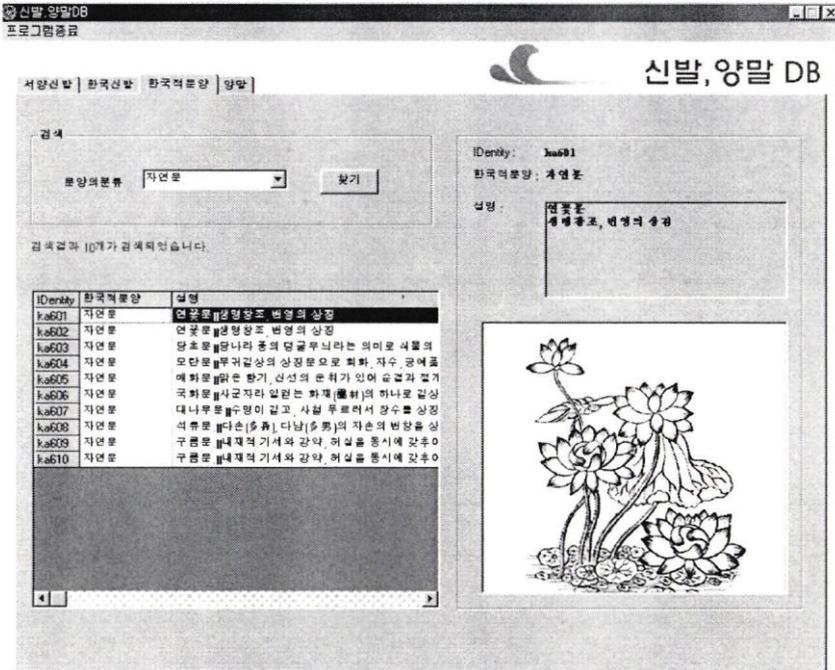


그림 52 한국적 문양DB, 자연문을 검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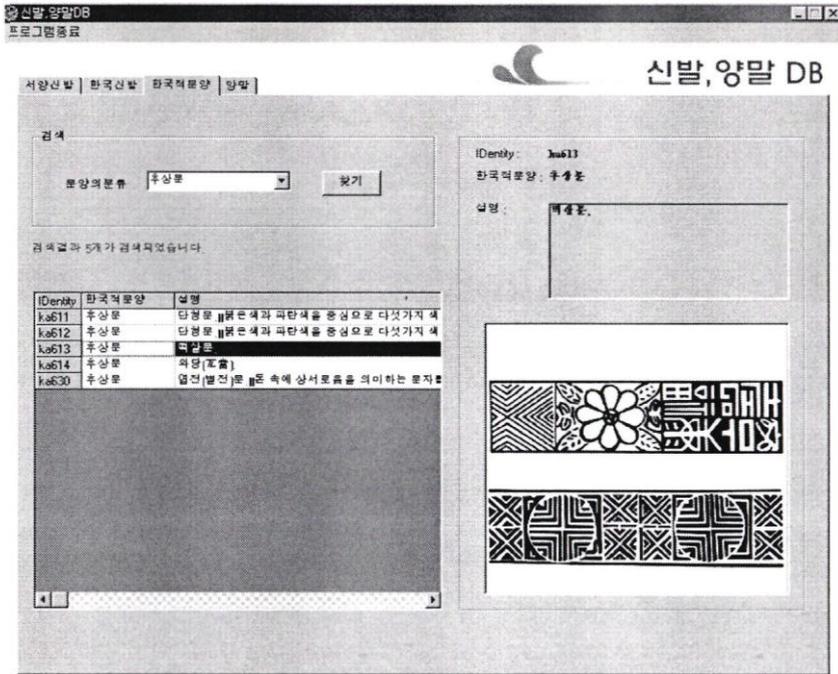


그림 53 한국적 문양DB, 추상문을 검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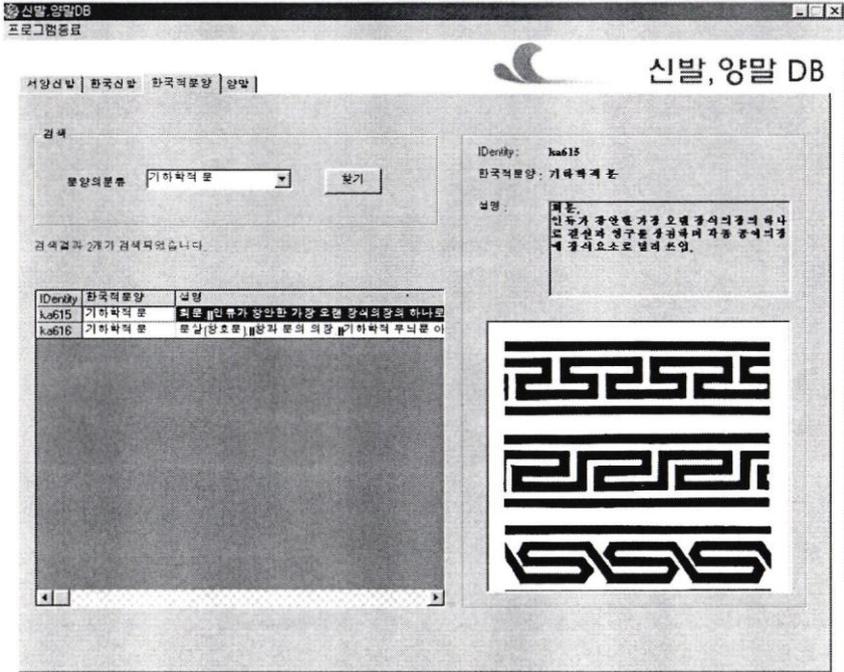


그림 54 한국적 문양DB, 기하학적 문을 검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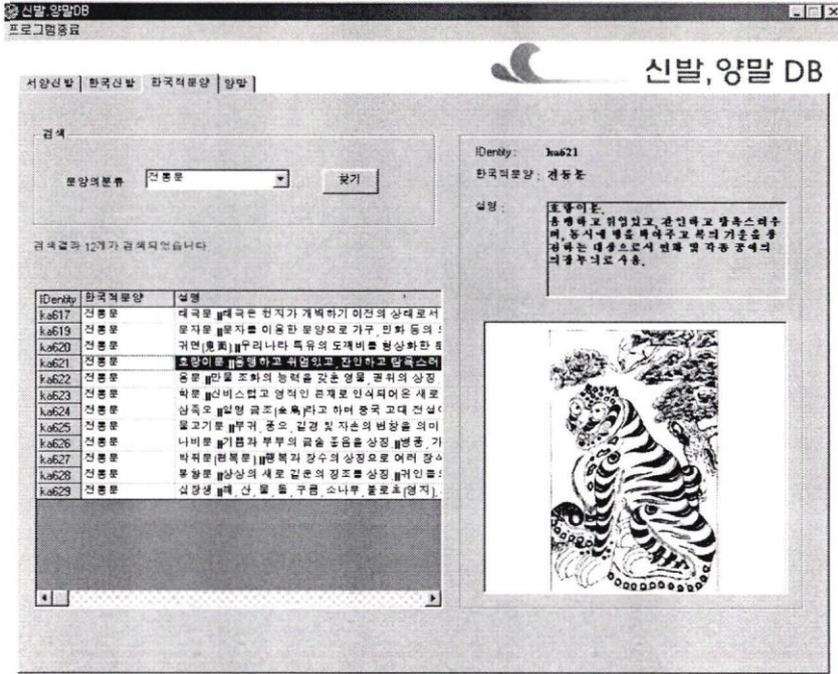


그림 55 한국적 문양 DB, 전통문을 검색한 경우

4. 양말 DB의 검색

양말 DB에서 검색 항목으로 <<지역-서양, 스타일-팬티호즈, 역사-현대>>를 넣어 검색하면, 아래 화면에 검색자료가 찾아진다. 이 검색 항목으로는 5개의 자료가 검색되었는데, 이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큰 사이즈의 양말 이미지가 보여지고, 그에 정보가 디스플레이 된다. 정보로는 <<지역-서양, 스타일-팬티 호즈, 길이-넓적다리 끝, 장식성-자카드, 재료-나일론, 조직-니트>>이다.
<그림 56>

<그림 57>은 지역-서양, 스타일-호즈를 검색항목으로 넣어 검색한 경우의 자료와 설명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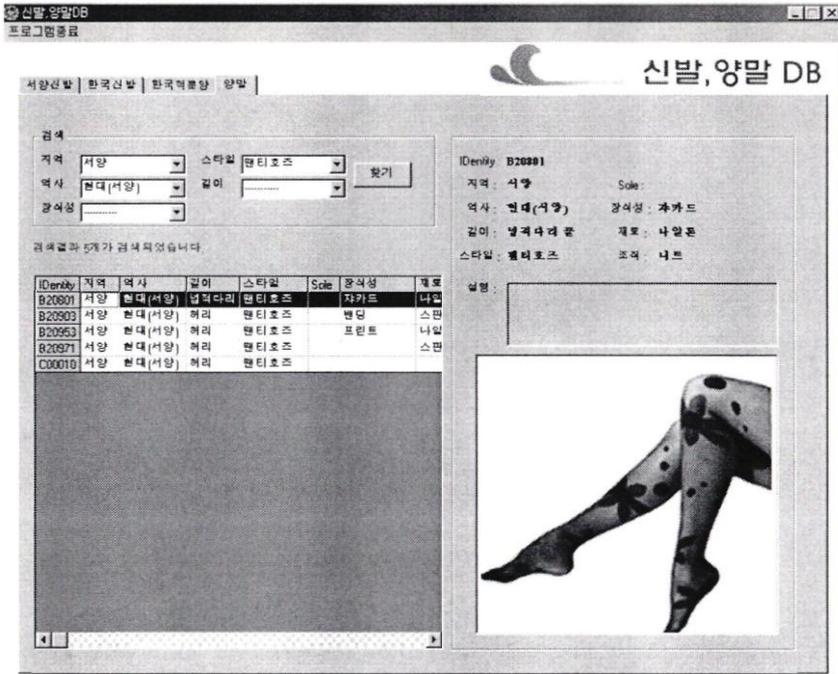


그림 56 양말DB, 지역-서양, 스타일-팬티호즈, 역사-현대를 검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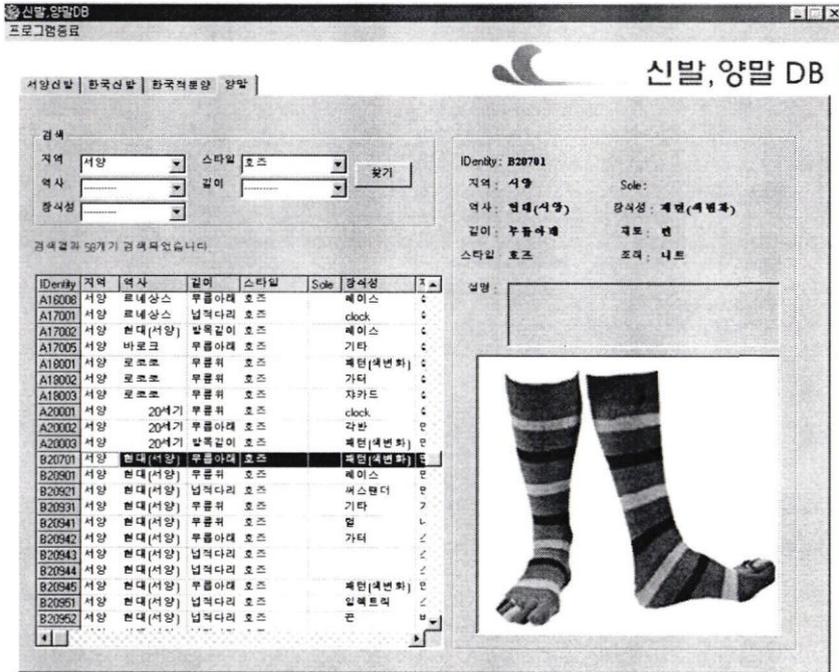


그림 57 양말 DB, 지역-서양, 스타일-호즈를 검색한 경우.

제 2 절 DB 구성 체계

1. 서양 신발 DB의 구성 체제

서양 신발 DB의 구성 체제는 한 신발의 디자인에서 부분적 조형성인 top line, upper 개폐, 힐의 유무와 toe shape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스타일로 다양한 신발 디자인을 범주화하였고, who's who를 통해서 국내와 국외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구분하고, 그 외 용도, 재료, 장식성, inspiration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문헌 자료를 토대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서양신발 DB의 분류체계 1]

역사	조형성			who's who	용도	재료	Toe shape	장식성	Inspiration
	Top line	Upper 개폐	힐의 유무						
이집트	high	open	heel	국내	정장화	피혁	pointed toe	band	geometric
그리스	middle	close d	flat shoes	국외	캐주얼화	고무	separate d toe	quilted	organic
로마	low				운동화	비닐 (플라스틱)	oblique toe	tassel	ethnic
비잔틴					런닝화	캔버스/ 직물	blunted toe	brooch	복고적
로마 네스크					보행화	목재	round toe	buckle	미래적
고딕					등산화	금속	square toe	bead	erotic
르네상스					웨딩화	직물		embroidery	ecology

바로크					기타	기타		shirring	shoe art
로코코								patchwork	
19세기								slash	
20세기								lace-up	
								zipper	
								belt	

[서양신발 DB의 분류체계 2 - Style 분류 체계]

Style						
boots	shoes	heel	sleeper	pumps	san dal	platform
cavalier boots	espad rille	boulevard heel	ballet sleeper	D'Orsay pumps	exercise sandal	tie-up platform
chukka boots	deck shoe	cone heel	bootee	opera pumps	evening sandal	boots platform
cowboy boots	penny loafer	continenta l heel	opera slipper	T-strap pumps	fisherman sandal	clog/mule platform
demi boots	mocca sin	cuban heel	Romeo slipper	sling back pumps	beach sandal	slip-ons platform
go-go boots	Mary Jane	wedge heel	scuff slipper	기타	thong sandal	sling back platform
hiking boots	monk strap	flat heel			ankle-wrap sandal	T-strap platform
dress boots	mule	louise IV heel			T-strap sandal	ankle strap platform
jodhpur boots	bal	donat heel			huarache sandal	기타
riding boots	biucher	stiletto heel			기타	
ankle boots	brogue	staked heel				

half boots	earth shoe	dutch heel				
long boots	saddle shoe	기타				
hip boots	sneaker					
working boots	clog					
기타	oxford					
	vamp					
	기타					

2. 한국신발 DB와 한국적 문양의 구성 체제

한국 신발 DB의 구성 체제는 역사, 소재, 스타일(화, 리), 신분 상징성, 장식성으로 분류하였고, 한국적 문양은 자연문, 추상문, 기하학적 문, 전통문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신발 DB의 분류체계]

한국 신발 DB						한국적 문양 DB
역사	소재	신분상징성	스타일		장식성	
			화	리		
상고 시대	피혁	사대부, 양반계급 남자	녹피화	태사혜	선장식	자연문
삼국 시대	고무	1품-3품 당상관	협금화	지혜	자수	추상문
고려 시대	직물	상류계급 부녀자	목화	석	금속세공	기하학적 문
조선 시대	금속	서민층	흑피화	수혜자	징	전통문
현대	목재			목리		
	짚			유혜		
	기타			제혜		
				기혜		

				살혜		
				노파리		
				털신		
				초립동		
				설피, 설진		
				금동리		
				흑혜		
				혜		
				발막신		
				당혜		
				운혜		
				수혜		
				초리		
				목혜		
				피초혜		

3. 양말DB의 구성 체제

양말 DB의 구성 체제는 지역, 역사, 길이, 스타일, 장식성, 소재, 조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양말 DB의 분류체계]

지역	역사	길이	스타일	장식성	소재	조직
한국	이집트	발목이하	호즈	레이스	면	우븐
서양	페르시아	발목길이	레오타드 호즈	밴딩	울	니트
	로마	무릎아래	팬티호즈	포인트	실크	펠트
	그리스	무릎위	삭스	슬래쉬	가죽	가죽
	비잔틴	넙적다리	부츠호즈	clock	나일론	레이스

	중세초기	넙적다리끝	버선	가터	스판덱스	기타
	로마네스크	허리	기타	자카드	비닐	
	고딕	허리이상		리본	린넨	
	르네상스	기타		프린트	벨벳	
	로코코			패턴 (색변화)	기타	
	19세기			각반		
	20세기			일렉트릭		
	현대(한국)			끈		
	현대(서양)			패치		
	바로크			cut out		
				태슬		
				써스펜더		
				털		
				단추		
				금속장식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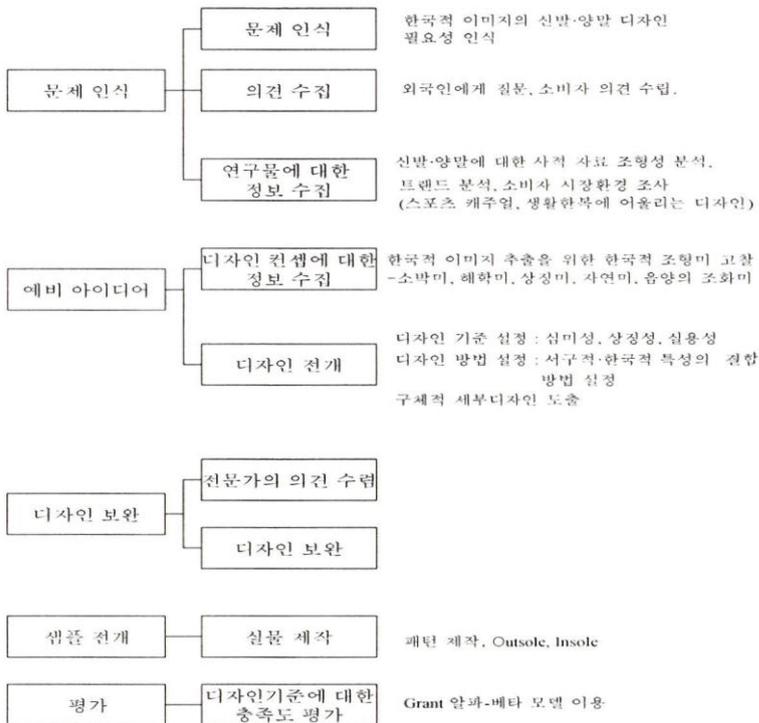
제 3 절 DB의 수

1. 신발의 사적 자료 : 서양 - 248개, 한국-61개
2. 한국적 문양 자료 : 50개
3. 양말의 사적 자료 : 86 개

제 6 장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 양말 디자인 개발

제 1 절 한국 이미지의 신발, 양말 디자인 전개 과정

<Lamb & Kalla의 디자인 프로세스의 적용>



제 2 절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 양말 디자인 개발

1. 한국적 이미지의 추출

가. 문헌적 연구조사

한국적 이미지란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는 역사적 발전 속에서 형성되어온 규범적(보편성) 힘을 발휘하는 미적 가치를 바탕으로 창조된 혹은 재생산된 가시적 형상(미적 특징)을 지칭하며, 이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 연상, 심상, 감각 등 총체적인 개념이다.

사회 문화적 맥락

한 민족의 미의식, 미학사상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본래 아름다움이란 모든 인류가 다 함께 공유하는 보편적인 정신가치이나 시대, 민족, 환경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미의식은 외적이고 감각적인 미보다는 내면적인 심성의 미, 미와 예술을 인격성에 결부시키며, 인간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중국은 과장(형), 일본은 인위적(색채), 한국은 자연(선) 그대로 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한 민족의 미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생성된 타고난 기질, 그리고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 설명될 수 있다.

기질: 북방의 유목민족과 남방의 농경민족의 결합, 사계절이 뚜렷, 산악과 평야, 반도문화, 역동적, 개방적인 반면, 서정적이며 폐쇄적으로 다문화적 특질을 갖고 있다.

이데올로기: 경천사상, 우주관, 풍류사상, 민속신앙, 불교, 도교,

유교(空, 仁, 虛)

사회구조: 대가족제도, 엄격한 혈연에 의한 봉건적 신분제도 (상층문화와 하층문화)

기술적 측면: 베틀문화 (모시, 삼베, 무명, 비단, 털)와 천연 염색, 수공예

미적 가치

많은 예술학자, 복식학자 등이 예술품이나, 복식 등 가시적 형상을 빌어 내재된 **미적 가치**를 유추하여 왔는데, 크게 소박미, 해학미, 자연미, 음양의 조화미 등을 들고 있다.

소박미: 단순미, 순수미, 미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각, 과장과 왜곡에 대립되는 자연스러움, 고전성(평상시의 단순성과 조용함, 균제, 조화에 대한 자연감, 과욕이 없는 절도), 고전주의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고전적인 의미를 내포. 최소한의 장식을 줄이고 면과 선을 절약하면서 무한의 크기와 변화를 추구.

해학미: 익살스러우면서도 풍자적, 유머, 골계, 아이러니,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의외로 왜소한 것, 마음의 경쾌화와 중압으로부터 해방, 정신의 자유성, 모순에 근거하는 대조감정에서 생겨나는 쾌감을 내포.

자연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직관력, 무의식 중 자연이 만들어 낸 것 같은 조화와 평형을 탄생시킨 모양,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는 의지.

음양의 조화미: 장엄, 장중으로서 이상형태에 관한 가치개념, 고통, 위험, 공포 같은 관념이 직접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서 존재할 때 느끼는 독특한 쾌감, 위력, 길이, 높이, 깊이, 등 연장의 위대성과 무한성. 인간이 대상에 압도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아를 고양하면서 쾌와 불쾌의 혼합적

인 긴장감을 느낄 때 성립하는 미적 가치.

미적 특징

이러한 내면적 미적 가치는 외적 가시적 형상으로 표상되는데 이의 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건축: 비대칭, 비균제 (자연과의 융합), 선적 구성과 유연성 (초가지붕의 선과 용마루선), 개방성과 폐쇄성의 공존(마루와 온돌), 통일성에서의 다양성 (창호의 완자무늬, 가구의 장식적 완자무늬, 담장의 완자무늬 등)
- 복식: 비균제성, 무한수용 가능한 평면 구성의미, 곡선의 미, 서로 다른 성격이 조화된 선의 미, 소재의 미, 흑백의 미, 원색·색동의 미, 상징적 색채와 문양(길상문양, 주술적 문양)
- 문학: 백색(진실과 밝음을 상징), 난형 (둥근 알, 주몽·박혁거세·김수로왕: 존재의 비밀이 담겨진 근원, 음양의 태극지묘를 알리는 조화와 균형, 자연과 대지에 동참하려는 심리, 최초의 심리적 형), 한국적인 형태미는 공간을 침투하고 정복하려는 미가 아니라 공간 속에 스스로 동화하려는 순응의 미다.

나. 외국인 인터뷰 조사

· 대상 :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5인의 외국인 학생 일본인 1명, 중국인(홍콩)1명, 미국인(New York, Memphis)2명, 독일인 1명

· 인터뷰 내용 : 한국적 이미지, 한국으로 연상되어 사물이나 형용사

· 인터뷰 결과

한국적 이미지-자연 연상 (아무런 자극 없이 “한국”과 연상되어서 언급한 것들)

- “Traditional House” : 기와집, 문창살, 기와의 곡선 등 서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절”과 함께 많이 언급됨.
- “Taeguk” : 태극무늬, 태극기와 연결짓기도 하고 여러 전통 상품에서 나타난 태극무늬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음.
- “rocky mountain” : 한국에서 여행 경험이 있는 외국인이 많이 언급함. 낮은 산세에 비해 바위가 많으며, 산의 곡선이 특이함.
- “Buddhist temple” : 불교 사찰
- “Kim-chi” : 음식 가운데서 한국적 이미지로 많이 언급됨.

한국적 이미지-이미지 자극에 의한 연상 (특정 이미지를 제시하고 반응을 확인)

- “한복” : 한복의 특이한 상하비례, 실루엣 등이 대단히 한국적이라고 반응
- “한글” : 한글에 바탕을 둔 여러 이미지 디자인에 한국적이라는 반응을 보임. 한글의 특이한 형태에 한국적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음.
- “용” : 용에 대해서 그다지 한국적이라고 반응하지 않음. 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의 경우 특히 용은 중국적, 아시아적이라고 언급함.
- “색동무늬” : 자극으로 주어진 색동 무늬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또한 한국적 이미지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음.
- “도깨비” : 한국적이라고 긍정함. 접한 적이 있음.

한국적 이미지 : 신발 디자인에 대한 반응

자극으로 제시된 한국적 이미지에 바탕한 신발 디자인에 대해 외국인들은 신의 밑창이나 옆부분, 등에 부분적으로 표현된 신발 디자인보다는 전체적으로 짚신의 형태를 띤다든가, 고무신의 형태를 띤 등의 신발 디자인에 대해 더욱 호감을 가지고 한국적이라는 반응을 보임을 보였다. 전체적인 외관은 기존의 신발 형태를 따르면서 부분적으로 한국적 이미지가 도입된 신발에 대해서는 기존의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한국의 전통신발의 형태에 기초를 둔 제품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 여성(미국)의 반응은 대단히 호의적 이었다. 즉, 신발 디자인이 제시되었을 경우 그것이 한국적이라는 느낌을 외국인이 받는 것은 신발 디자인 전체에서 한국적 요소들이 잘 표현되고 총체적으로 구현되었을 때이다.

다. 소비자 조사

- 선호도에 있어 특별히 선호되는 이미지는 없었다. 또한 한국적 이미지라고 해서 서로 상관관계가 뚜렷하지도 않았다.
- 소비자들은 신발 디자인에 이용되는 이미지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이미지가 현실적 디자인으로 구현되어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며, 자신의 취향에 잘 맞는가에 관심을 가진다고 보인다. 소비자들은 재료는 무엇을 사용하든 그 결과물에만 관심을 갖는다.
- 대표적 한국적 이미지로는 태극무늬(20.8%), 호랑이(10.5%), 한복(7.8%), 무궁화(5%), 학(4%), 소나무(2.8%), 조경(landscapes), 전통적 건축물(traditional architecture), 로키산맥(rocky mountains), 한복(Hanbok), 김치(Kimchi)를 많이 언급하고 있었다.

2.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양말 디자인 개발

문헌적 연구를 통해 추출된 소박미, 해학미, 자연미, 음양의 조화미와 주술적인 상징미를 더하여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여 전개되었다.

소박미 : 신발 - 창살무늬, 조각보, 매듭 / 양말 - 매듭

해학미 : 신발 - 타이포그래피(한글) / 양말 - 탈, 버선, 색동, 방울

자연미 : 신발 - 연꽃문

음양의 조화미 : 양말 - 태극무늬

상징미 : 신발 - 용무늬 / 양말 - 용무늬, 십이지간

- 신발 : ① 신발 디자인에 활용 가능한 한국적 이미지에 기초한 신발 디자인: 용무늬, 타이포그래피, 창살무늬 조각보 무늬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 및 제작.
② 한복과 생활한복에 착용될 수 있는 신발 디자인 및 제작: 연꽃 무늬, 매듭, 조각보 무늬 등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 및 제작.
③ 기능성을 최대한으로 살린 한국적 이미지의 outdoor/ travel 슈즈의 개발

- 양말 : ① 양말 디자인에 활용 가능한 한국적 이미지에 기초한 양말 디자인: 색동, 십이지간, 태극, 탈, 매듭, 용의 그림자(추상적인 이미지) 등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 및 제작.
② 현대적인 이미지를 첨부한 버선 디자인: 몬드리안의 작품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 및 제작.

한국적 신발에 사용된 소재 및 제품 특징

ITEM	소재 및 제품의 특징
<p data-bbox="322 459 432 483">용무늬 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 원단, 천연가죽 NUBUCK, SPUN * 제품의 특징 - 외측의 SOLE에 있는 용과 가피 뒷쪽에서 내측 SOLE로 연결되어 내려오는 또 한마리의 용이 이 신발의 특징이며 가피의 용은 나염으로 표현하였음.
<p data-bbox="322 807 432 830">창살 무늬 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 원단, 천연가죽 NUBUCK/SPLIT, SPUN * 제품의 특징 - 한국의 전통문양인 창살의 모양을 신발의 가피와 SOLE에 적용. 창살의 표현방법은 CUTTING 고주파의 PRESS MOLDING 임.
<p data-bbox="322 1145 432 1168">가나다 무늬 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 MESH, 천연가죽 NUBUCK/SPLIT, 천연가죽 신끈 * 제품의 특징 - 우리의 글인 '훈민정음'의 글자를 이용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며, PRESS MOLDING으로 온온하게 글자를 표현하였음.

한복 신발에 사용된 소재 및 제품 특징

ITEM	소재 및 제품의 특징
<p data-bbox="312 450 426 469">연꽃무늬 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 천연가죽 NUBUCK/SPLIT, 송아지 가죽, 단추 * 제품의 특징 - 우리나라 전통 고무신의 앞코 들림과 곡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용하였으며, 앞코의 연꽃무늬는 자수로 표현하였음.
<p data-bbox="312 797 426 817">조각 무늬 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 원단, 천연가죽 NUBUCK, 양피 * 제품의 특징 - 한복에 쓰이는 원단과 뉴벅, 그리고 공단느낌이 나는 가죽을 함께 사용하면서 전체 형태는 간편하게 신고 벗는 SLIP ON의 캐주얼한 스타일로, 기존의 한복신발 제품들과 차별화한 스타일.
<p data-bbox="312 1130 426 1149">SLIP 스타일 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 천연가죽 NUBUCK/SPLIT, 송아지 가죽, 양피 * 제품의 특징 - 전체적인 신발 형태를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조금 탈피하여 SLIP ON의 SLIP 스타일로 제작에 보았으며, 한복의 화려함과 어울릴 수 있도록 광택이 있는 소재는 사용하지 않고 그 위에 전통적인 모양의 단추를 악세서리로 달았음.

제 3 절 디자인에 대한 객관성 평가

1. 디자인 평가

설문대상: 의류 전문인 (의류학과 대학원생 15명)

외국인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 5명)

설문일시: 2001년 8월 3일

2001년 8월 10일

설문방법: 한국적 이미지의 디자인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샘플 실물 6가지와 기존 시판 제품 2가지(나이키, 오클리)의 실물을 가지고 설문하였다. 평가기준은 심미성, 상징성, 실용성으로 하였고 각 기준별 2문항씩 총 6문항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답변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미성 I.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미성 II. 이 디자인의 신을 신고 싶습니다?
- 상징성 I. 한국적 이미지가 느껴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징성 II. 국제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실용성 I. 신었을 때 편안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실용성 II.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신을 수 있는 디자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질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여 외국인에게 질문하였다.

- Aesthetic point I. The design of the shoes is excellent.
- Aesthetic point II. I am willing to wear them.
- Image's I. The design has a Korean image.
- Image's II. The design will be preferred by consumer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 Practical point I. The shoes seem comfortable.
- Practical point II. The shoes will be worn often in daily life.

평가방법: 설문은 Grant의 알파-베타 모델에 의한 평가법에 의해 평가되었다.

알파값 즉, 평가기준 간의 중요도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상징성(1, 2)을 각각 0.2씩 부여하고, 나머지 심미성(1, 2)과 기능성(1, 2) 기준은 각각 0.15씩으로 설정하여, 목표 만족도인 베타값 (전혀 아니다=1, 아니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을 곱한 개별 알파/베타값의 평균치를 각 디자인들의 비교평가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문항별 평가:

-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국인 대상으로는 나이키, 연꽃, 매듭, 창살, 오클리, 용, 한글, 조각보의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꽃, 매듭, 창살을 응용한 디자인은 오클리의 디자인 보다 월등하게 좋은 점수를 얻었다. 외국인 대상으로는 매듭, 나이키, 한글, 오클리, 조각보, 창살, 용, 연꽃의 순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 매듭을 응용한 디자인이 나이키 디자인과 같은 점수를, 한글 디자인이 오클리와 같은 점수를 받아 심미성 문항에서 외국의 디자인에 전혀 뒤지지 않는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 주목해야겠다. 전체적으로 나이키, 매듭, 오클리, 한글, 창살, 조각보, 연꽃, 용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매듭과 한글을 응용한 디자인은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용, 창살, 연꽃, 조각보를 응용한 디자인은 내국인에게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이 디자인의 신을 신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국인에게서는 나이키, 오클리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연꽃, 조각

보, 매듭, 용, 창살의 디자인 또한 신고싶은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나이키와 오클리의 디자인이 설문대상인 20대 초반의 학생들을 전적으로 타겟으로 한 디자인이며, 이번 개발된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디자인은 좀더 넓은 연령 대상을 타겟으로 한 디자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상 연령을 바꾼다면 더 나은 점수를 받았으리라 사료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글, 나이키, 오클리, 조각보, 매듭, 창살, 용, 연꽃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내국인은 외국 브랜드의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신고싶은 디자인으로 뽑은 것과 대조적인 결과로 한글을 응용한 디자인이 외국인에게 신고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내국인이 외국의 디자인을 더욱 선호한 관계로 외국 브랜드의 신발과 비교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디자인이 0.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심미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상징성에 대한 설문 결과는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디자인이 나이키와 오클리와 비교해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아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성공적으로 신발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적 이미지가 느껴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국인에게서 연꽃, 창살, 한글, 조각, 용, 매듭 순으로 0.9에 가까운 점수를 받음으로써 나이키, 오클리에 비해 월등한 좋은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이키, 오클리의 디자인이 한글, 연꽃, 매듭과 함께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이는 이번 연구결과 개발된 디자인이 한국적 이미지를 담고 있음과 동시에 특별히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의도된 디자인이 아닌 외국 브랜드와 비교해 외국인의 감각과 함께 하며, 자연스럽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적 이미지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국제적 감각으로 융화되어 표현되었음을 알려준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 디자인이 외국브랜드의 디자인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국제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국인에게서 나이키가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한국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자인, 창살, 용, 연꽃 역시 오클리와 같은 점수 0.7이상, 혹은 근접한 점수를 받아 국제시장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외국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매듭을 응용한 디자인은 오클리와 같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한글을 응용한 디자인은 0.72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로 국제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여실히 나타내었다.

- 실용성에 대한 설문 결과 역시 어떤 목적의 용도로 디자인되었는가에 차이가 있으므로 근래 미국의 액티브 스포츠를 선호하는 디자인을 여실히 보여주는 나이키와 오클리의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설문대상의 연령을 고려할 때,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디자인도 실용성에 있어서 성공적인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한글을 응용한 디자인은 두 문항 모두에서 나이키와 오클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실용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디자인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신었을 때 편안한 디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신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소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며, 외국의 디자인인 나이키와 오클리의 디자인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디자인이 서양의 신발에 한국적 이미지를 적용시키는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용성의 측면에 대해서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의 실용성과 기능이라는 면에서 최근의 기능주의적 스포츠 오리엔트 된 디자인에 대한 편협한 선호도와 외국 브랜드에 대한 왜곡된 선호도가 반영되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설문한 결과 한글과 매듭을 응용한 디자인은 나이키와 오클리의 디자인보다 높은 점수

를 받았으며, 이는 실용적 측면에서도 국제 시장에서 외국의 브랜드에 절대 뒤지지 않는 디자인임을 보여준다.

전체 평가 결과: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적 이미지를 묻는 문항에서 나이키나 오클리에 비해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한 새로운 디자인들이 월등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적 이미지를 신발디자인에 심는 이번의 일련의 작업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문항 중 디자인의 심미성 문항에서 내국인에게 설문 조사 결과는 연꽃, 매듭, 창살이 좋은 평가를 얻었고, 국제시장에서의 호응도, 편안한 착용감 문항에서 옹과 여의주 디자인이 나이키나 오클리에 뒤지지 않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게 설문한 결과는 매듭과 한글을 응용한 디자인이 나이키와 오클리와 같은 월등히 높은 점수로 평가되어, 심미성에 있어서 외국의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실용성에 대한 문항에서 새로운 디자인들이 나이키나 오클리에 비해 약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나이키나 오클리의 세계적인 브랜드로 인지도가 높아 평가시 후광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설문대상의 연령과 신발의 용도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글과 매듭의 디자인은 실용성에 있어서 나이키와 오클리에 뒤지지 않는 점수를 받았음에 주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심미성, 상징성, 실용성 모든 문항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개발된 디자인인 외국의 브랜드와 비교해 국제 시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높은 디자인 평가를 받았다.

2. 설문 결과

설문대상: 내국인 (의류전문인 15명 대상) 2001.8.3 실시

외국인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 5명) 2001.8.10 실시

가. 심미성

(1) 디자인의 우수성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현행-나이키		2	1	11	1
현행-오클리		1	8	5	1
개발-용과 여의주		4	6	3	2
개발-창살무늬		3	3	8	1
개발-한글		3	7	4	1
개발-조각보		2	9	4	
개발-연꽃		3	3	7	2
개발-매듭		3	6	1	5

(2) 이 디자인을 신고 싶은가?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현행-나이키	1	2	4	4	4
현행-오클리		1	6	6	2
개발-용과 여의주	2	4	2	6	1
개발-창살무늬		5	6	3	1
개발-한글		5	7	3	
개발-조각보		9	5	1	
개발-연꽃		3	8	2	2
개발-매듭		5	6	2	2

나. 상징성

(1) 한국적 이미지가 느껴지는가?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현행-나이키	8	6	1		
현행-오클리	7	6	2		
개발-용과 여의주		2	3	8	2
개발-창살무늬			1	8	6
개발-한글		2	1	8	4
개발-조각보			6	5	4
개발-연꽃				9	6
개발-매듭		2	5	4	4

(2) 국제 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현행-나이키			3	5	7
현행-오클리		1	6	7	1
개발-용과 여의주		1	6	7	1
개발-창살무늬		2	5	7	1
개발-한글		3	7	4	1
개발-조각보		3	7	5	
개발-연꽃		1	8	4	2
개발-매듭		4	7	3	1

다. 실용성

(1) 신을 때 편안한 디자인인가?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현행-나이키		1	2	8	4
현행-오클리		1	2	9	3
개발-용과 의주			5	9	1
개발-창살무늬		1	7	7	
개발-한글		1	8	6	
개발-조각보			6	8	1
개발-연꽃		1	5	7	2
개발-매듭		1	4	10	

(2)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신을 수 있는가?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현행-나이키			3	6	6
현행-오클리			2	8	5
개발-용과 여의주		6	4	4	1
개발-창살무늬			7	7	1
개발-한글			5	7	3
개발-조각보		4	3	7	1
개발-연꽃		7	4	4	
개발-매듭		2	4	9	

의류전문인 설문결과

	심미성	심미성	상징성	상징성	실용성	실용성	합계
	1	2	1	2	1	2	
	0.15	0.15	0.20	0.20	0.15	0.15	
나이키	0.56	0.53	0.31	0.85	0.60	0.63	3.48
오클리	0.51	0.54	0.33	0.71	0.59	0.63	3.31
용과 여의주	0.48	0.45	0.73	0.71	0.59	0.45	3.41
창살무늬	0.52	0.45	0.87	0.69	0.51	0.54	3.58
한글	0.48	0.43	0.79	0.64	0.50	0.58	3.42
조각보	0.47	0.47	0.77	0.63	0.55	0.50	3.39
연꽃	0.53	0.48	0.88	0.69	0.55	0.42	3.55
매듭	0.53	0.46	0.73	0.61	0.54	0.52	3.39

N=15

외국인 설문결과

	심미성	심미성	상징성	상징성	실용성	실용성	합계
	1	2	1	2	1	2	
	0.15	0.15	0.20	0.20	0.15	0.15	
나이키	0.60	0.58	0.56	0.87	0.60	0.63	3.84
오클리	0.51	0.59	0.53	0.74	0.61	0.60	3.58
용과 여의주	0.44	0.48	0.67	0.68	0.58	0.50	3.35
창살무늬	0.47	0.50	0.80	0.63	0.51	0.51	3.42
한글	0.48	0.53	0.82	0.68	0.58	0.61	3.70
조각보	0.46	0.52	0.71	0.66	0.53	0.52	3.40
연꽃	0.46	0.50	0.84	0.67	0.50	0.47	3.44
매듭	0.58	0.52	0.73	0.69	0.59	0.59	3.70

N=5

의류전문인 및 외국인의 설문결과

	심미성	심미성	상징성	상징성	실용성	실용성	합계
	1	2	1	2	1	2	
	0.15	0.15	0.20	0.20	0.15	0.15	
나이키	0.63	0.63	0.80	0.88	0.60	0.63	4.17
오클리	0.51	0.63	0.72	0.76	0.63	0.57	3.82
용과 여의주	0.39	0.51	0.60	0.64	0.57	0.54	3.25
창살무늬	0.42	0.54	0.72	0.56	0.51	0.48	3.23
한글	0.51	0.63	0.84	0.72	0.66	0.63	3.99
조각보	0.45	0.57	0.64	0.68	0.51	0.54	3.39
연꽃	0.39	0.51	0.80	0.64	0.45	0.51	3.30
매듭	0.63	0.57	0.72	0.76	0.63	0.66	3.97

N=20

제 4절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신발의 기능성 및 착용감



㉠ 나이키



㉡ 오쿠리



㉢ 용과여의주



㉣ 창살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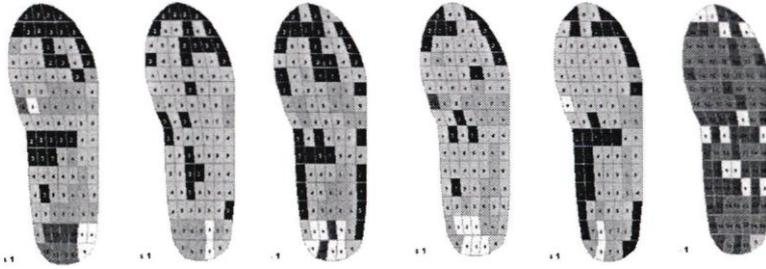
㉤ 한글



㉦ 트랙스타

1. 신발의 쿠션성 및 압력분포 평가

신발 착용시의 압력 분포를 평가하기 위해 Pedar Step Analysis System(Novel, 미국)을 사용하여 정지시 1초간의 오른발 족압 분포를 측정했다. 그 결과는 <그림1>과 같다. ㉤한글, ㉠나이키, ㉢용과여의주는 발뒤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이 다른 신발에 비해 컸다. 신발별로 족압 분포는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한글은 발바닥 전체에 큰 압력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의 보행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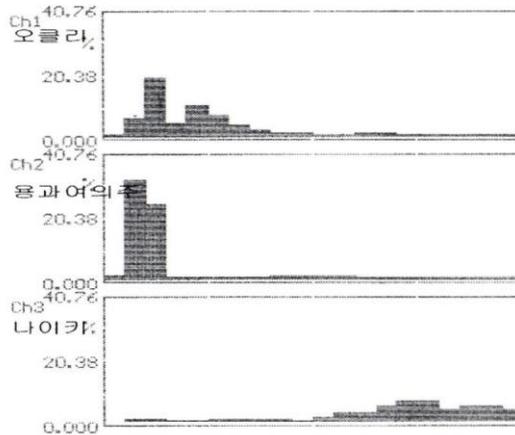
㉠ 나이키 ㉡ 오클리 ㉢ 용과여의주 ㉣ 창살무늬 ㉤ 한글 ㉥ 트랙스타

<그림1> 정지시 족압 분포 (단위 N/cm²)

2. 보행능률 및 동작적응능

보행 능률을 평가하기 위해 Muscle Tester ME3000(Mega Electronics LTD., Finland)을 이용하여, 관능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시판 신발인 ㉠나이키와 ㉡오클리, 개발된 신발 중 이들과 디자인이 유사한 ㉢용과여의주를 대상으로 30분간 보행시 비복근 하부 근전도를 측정했다(샘플링 빈도 : 1000Hz). 현장에서 장시간에 걸친 근활동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평균화된 근전도(Averaged EMG) 측정 결과, 평균화된 신호(10초간에 계속된 Raw Data를 평균한 값)로부터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 정도와 활동수준을 알 수 있었다. ㉡오클리, ㉢용과여의주는 보행 초반부에 근 활동이 높다가 점차 근 피로에 의해 근활동이 저하한 반면, ㉠나이키는 보행 시간 경과에 따라 근 피로의 누적을 수반하지 않고 오히려 근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장시간의 보행에도 적

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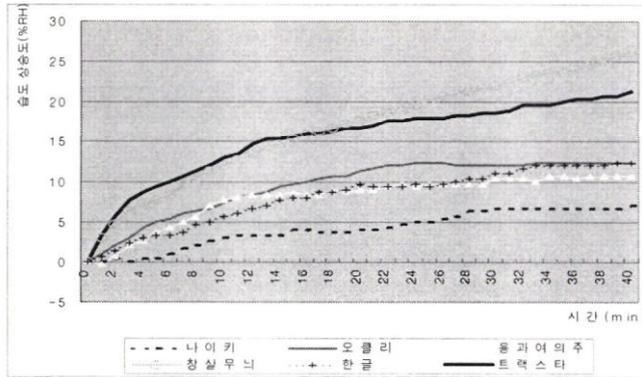


<그림2> 보행시 비복근 하부의 근전도 변화 (단위 %)

3. 신발의 통풍성 및 기후조절능

가. 보행시 신발 안 습도 측정에 의한 신발의 통풍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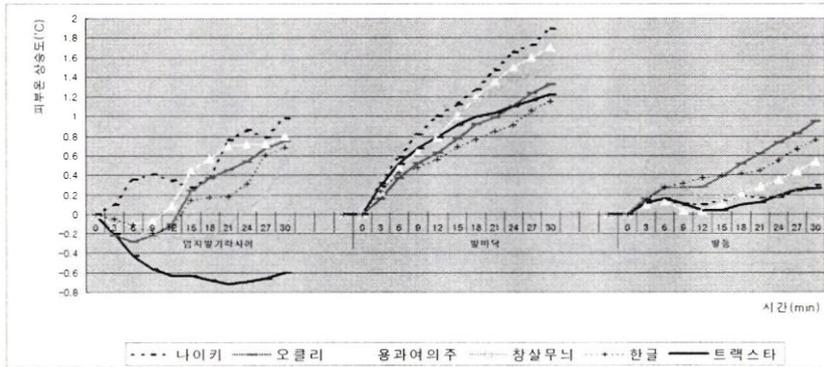
신발의 통풍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행시간 경과에 따른 신발 안 습도 측정 결과, 통풍성이 좋은 신발은 나이키>용과여의주·한글·오클리>트랙스타>창살무늬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키와 용과여의주는 통풍성이 있는 소재로 되어있고, 한글은 끈을 매는 디자인으로 통풍성을 도모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창살무늬는 보행시간 경과에 따라 신발 안 습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통풍성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관능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그림3> 보행시 신발 안 습도의 변화

나. 보행시 엄지발가락사이, 발바닥안쪽, 발등바깥쪽 피부온도의 변화

보행시 신발 안의 온도조절능을 평가하기 위해 ①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 사이, ②발바닥 안쪽, ③발등 바깥쪽 세 부위 피부 표면에 Thermistor(Takara, 일본) 센서를 부착하여 보행시간 경과에 따른 피부 온도의 변화를 측정했다. 엄지발가락사이 피부온도는 나이키, 용과여의주, 오클리, 한글은 보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증적으로 상승 경향인 반면, 창살무늬, 트랙스타는 하강 후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발바닥안쪽 피부온도는 보행시간 경과에 따라 모두 상승했다. 발등바깥쪽 피부온도는 오클리, 한글, 용과여의주는 보행시간 경과에 따라 완만하게 상승했고, 창살무늬, 나이키, 트랙스타는 더욱 완만하게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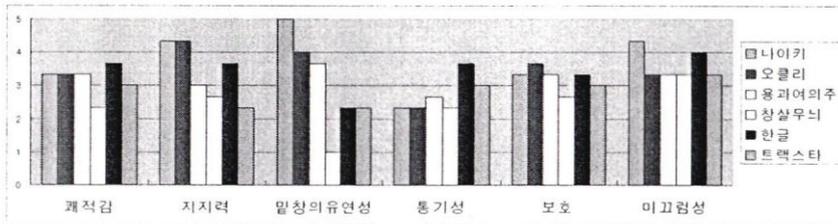
<그림4> 보행시간 경과에 따른 피부온 상승도

4. 착용감

보행시 주관적감각을 평가하기 위해 쾌적감, 지지력, 밑창의 유연성, 통기성, 보호, 미끄러움성 각 항목에 대해 5점(Very Good)~1점(Very Poor)의 점수를 주도록 했다. 각 항목별로 우수하다고 평가된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쾌적감(Comfort) : 한글 > 나이키·오클리·용과여의주 > 트랙스타 > 창살무늬
- ② 지지력(Support) : 나이키·오클리 > 한글 > 용과여의주 > 창살무늬 > 트랙스타
- ③ 밑창의 유연성(Sole Flexibility) : 나이키 > 오클리 > 용과여의주 > 한글·트랙스타 > 창살무늬
- ④ 통기성(Breathability) : 한글 > 트랙스타 > 용과여의주 > 나이키·오클리·창살무늬
- ⑤ 보호(Protection) : 오클리 > 나이키·용과여의주·한글 > 트랙스타 > 창살무늬
- ⑥ 미끄러움성(Slip) : 나이키 > 한글 > 오클리·용과여의주·창살무늬·트랙스타

시판 신발인 나이키와 오클리는 통기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신발의 개구부가 넓은 한글은 쾌적감, 통기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고, 발등부분 메쉬(Mesh) 처리가 된 트랙스타는 통기성이 우수한 것을 평가되었다. 창살무늬는 개구부가 좁고 밑창이 유연하지 않아 지지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그림3> 신발의 착용감

<종합평가>

신발 평가항목	나이키	오클리	용과여의주	창살무늬	한글	트렉스타
(1) 입력분포	① 무게중심이 발뒤꿈치 쪽으로 치우침	-	① 무게중심이 발뒤꿈치 쪽으로 치우침	-	① 발바닥 전체에 큰 입력이 가해져 장시간의 보행에 부적합함	-
(2) 보행능률	① 보행시간 경과에 따라 근 피로가 누적되지 않고 근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장시간의 보행에 적합함	① 보행시간 경과에 따라 근피로에 의해 근활동이 저하함	① 보행시간 경과에 따라 근피로에 의해 근활동이 저하함	-	-	-
(3) 통풍성	① 통풍성이 가장 우수함	① 통풍성이 우수함	① 통풍성이 우수함	① 통풍성이 나쁨	① 통풍성이 우수함	① 통풍성이 좋지 않음
(4) 착용감	① 지지력이 가장 우수함 ② 밀착의 유연성이 가장 우수함 ③ 미끄럼성이 가장 우수함	① 지지력이 가장 우수함 ② 보호성이 가장 우수함	① 쾌적감, 보호성이 우수함	① 쾌적감, 밀착의 유연성, 통기성, 보호성, 미끄럼성이 가장 나쁨	① 통기성이 가장 우수함	① 지지력, 미끄럼성이 가장 나쁨

제 7 장 결 론

본 연구는 범세계화와 퓨전문화 트렌드 추세에 따른 미래시장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과 양말 디자인의 개발과 이의 현대화와 세계화로서 세계인의 취향에 어울리는 고부가 가치의 문화상품개발과 이에 따른 수출 증대가 주된 목적이며, 또한 신발과 양말에 대한 사적 자료와 최근 패션트렌드에 대한 DB화 구축으로서 양말과 신발디자인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리지널한 패션정보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 서양과 우리나라 신발과 양말의 사적 자료를 축적함과 동시에 최근 패션트렌드와 병행하여 신발과 양말의 이미지 군을 분류하였고, 둘째 시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확한 패션정보 분석과 소비자 정보 및 시장환경 조사,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반영한 신발, 양말 디자인과 개발과 이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객관적 평가, 넷째 상품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성 및 착용감 연구, 다섯째 디자인 과정의 축적과 자료의 DB화다.

신발은 원래 신체보호성 및 신체능력 확대성, 장식표현의 욕구, 성적 표현성, 품위와 신분상징성의 욕구에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패션을 완성시키는 의복 품목의 일부로 패션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신발의 명품에서 디자인의 특성이 두드러지며, 소재, insole, outsole, midsole, 공정과정의 기술력에서 그 유행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스포츠 룩의 캐주얼화와 더불어 스포츠 운동화에서도 캐주얼화가 두드러지는 경향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산학협동 업체의 특성상 등산화의 캐주얼화 개발

에 초점을 맞추고, 한편은 생활한복이나 가벼운 운동화디자인, 즉 가능성을 최대한 살린 outdoor/ travel shoes 개발에 중점을 두고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차용된 용과 여의주, 창살무늬, 한글, 조각보, 연꽃무늬, 매듭이란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품을 구현하여 보았다. 한국적이미지는 문헌연구, 외국인들에게 질문조사, 그리고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축출되었다.

양말과 스타킹 또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자연 발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복식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품목으로 패션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 소재, 기술, 형, 장식, 색채 등에서 디자인의 변화를 가져오며, 20세기에는 남성은 흰색이나 검정색 등 한정적이며, 여성은 나일론 스타킹의 등장과 함께 살색이 지배적이나 최근에는 다양한 디자인이 등장되며, 양말에서도 다양한 패션 트렌드가 나오고 있다. 복고풍, 스포티, 에콜로지, 에스닉, 아방가르드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색동, 십이지간, 태극, 탈, 매듭, 용의 그림자 등의 주제를 가지고 스포티룩이나 에스닉룩을 구현하여 보았다.

개발된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디자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Grant 알파-베타 모델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한 새로운 디자인들이 월등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은 심미성에서 연꽃, 매듭, 창살에 좋은 평가를 하였고, 착용감과 국제시장에서의 호응도에서는 용과 여의주 디자인이 나이키나 오클리에 뒤지지 않는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게 설문한 결과, 매듭과 한글을 응용한 디자인이 나이키와 오클리와 같은 월등히 높은 점수로 평가되어, 심미성에 있어서 외국의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상품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성 및 착용감을 연

구한 결과 나이키가 일반적으로 우수하였으나 개발한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에서는 한글이 착용감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과 양말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의 DB화를 위하여 신발은 서양의 249개, 한국은 61개, 양말은 86개가 선정되었다. 신발은 시대, 조형성, 용도, 재료, 영감(이미지), 장식성, 스타일 등으로 범주화되었고, 양말은 시대, 길이, 스타일, 장식성, 소재, 그리고 조직으로 범주화되어 DB화 되었다.

본 연구의 홍보와 마케팅을 위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여 관람자들의 반응을 살펴 본 결과, 여러각도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우선은 예기치 않는 신발과 양말에 한국적 이미지의 적용이라 참신하면서도 의외성이라는 것이다. 분명 한국적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한 디자인이라는 점에 일치하면서도, 이러한 상품이 해외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을 가져올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유에서, 디자인 기준에 대한 충족도를 외국인에게 평가 한 결과, 나이키나 오클리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인지도가 높아 평가시 후광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매듭의 디자인은 나이키나 오클리에 뒤지지 않는 높은 점수가 나왔음에 주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심미성, 상징성, 실용성 모든 문항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개발된 디자인은 외국의 브랜드와 비교해 볼 때, 국제 시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을 확신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한국적 이미지가 가미된 문화상품 개발의 한 실례로 신발과 양말디자인이다. 운동화와 양말은 그야 말로 서양문화 매체로서 여기에 한국적 이미지를 접목시

킨다는 것은 맨처음 어려운 문제점이 여러 가지 수반되었지만, 의외로 우리것의 접목은 흥미있는 작업이었다. 우선은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 것을 우리화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서양 것에 우리것의 접목이 훨씬 세계화에 기여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결국 문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우리것의 분석능력 뿐 아니라 세계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분명 학교 교육은 이론과 지식의 축적 장이다. 실무와 현장감, 그리고 세계 시장경쟁력에 익숙한 참여기업의 세밀한 현장교육과 세미나, 그리고 디자인 평가는 더욱 현장경험이 없었던 연구원에게 대단히 고무적이었으며, 산업측에서는 신선한 연구원의 아이디어는 일상적인 사고에 청량제와 같은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디자인 교육은 무엇보다도 산학협동체제내에서 이루어져 교과과정뿐 아니라 인턴쉽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셋째, 현재는 정보화 사회이다. 그러나 정보가 이미 정보화가 되어 버리면, 이미 쓸모 없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연구의 자료는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 되었을 때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계속 하여, 본 연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한국적 이미지가 가미된 신발 양말디자인의 개발 뿐 아니라 DB화를 위한 자료도 보완 되어야 한다.

넷째, 지속적으로 산업계에서는 니치마켓에 관심을 갖고 개발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패션산업계는 물량수출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화를 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 이미 서양에서 점령하고 있는 하이 패션 보다는 가족제품, 스포츠웨

어, 운동화, 가방 등의 니치마켓 개발에 주력을 할 뿐 아니라 주체적이며 창의적인 시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시한 상품도 디스플레이, 패키지 디자인, 홍보 마케팅 등에서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우리나라 신발이나 양말 산업은 아직 디자인의 개념 보다는 기능적 측면에 기울고 있다. 조금만 디자인과 패키지 디자인에 관심을 갖는다면, OEM 시스템에서 터득한 기술력으로 단가를 분명 높힐 수 있는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국내

- 권영필, 금기숙, 김문환, 민주식, 송방송, 주남철, **한국미학시론**,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7
- 금기숙, 한국 전통복식미의 현대적 활용, **복식** 19호, 1992
- 김민자, 한국패션의 고유디자인에 대한 발전색 모색, **산업디자인** Vol.21, 1990
- 김민자, 임원자, 이은영, 구미지, 김윤희, 한국 복식변천과 사회변천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 학회지**, 1993년 17권 2호 , p318.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 김용운, 한, **서양신발 비교문화에 대한 고찰**, 서울대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19기
- 김정기, 김리나, 문명대, 안휘준, **한국 미술의 미의식**, 1984
- 김희정,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양말변천에 관한 연구**, 1991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일본대백과사전, 동경, 소학관 5권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노정심,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4 문명대, 한국조각사, 열화당, 1980
- 박기완, **도해 복식용어사전**, 서울, 유신문화사, 1980
- 박새별,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0
- 박신희, **1990년대 해외컬렉션과 국내컬렉션의 패션트렌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박영수, **유행속에 숨어있는 역사의 비밀**, (주) 살림 출판사, 1998
- 배천범감수, **패션사전**, 디자인 신문사, 1991
- 백영자, 유효순, **서양의 복식문화**, 경춘사, 1989
- (주)서광 홍보실, **신사복이야기**, 금비문화, 1993, 부록
- (주)서광 홍보실, **알고 입는 옷, 모르고 입는 옷**, 금비문화, 1995
- 신영진, **“양복바지에 관한 역사적 고찰”**,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의상디자인 전공 석사학위 논문, 1984
- 에두아르트 폭스, “풍속의 역사Ⅳ-부르즈와 시대”, 이기웅, 박종만 역, 1986, 도서출판 까티
 - 이정옥, 최경순, 최영옥, 서양복식 발달사, 형설출판사, 1989
 - 이해옥, 니트웨어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임영미, 옷과 장신구와 입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경춘사, 1984
 - 임영자,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30호, 1996
 -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이대출판부, 1980
 - 정대웅 외, 디자인 대사전, 서울, 승례문, 1994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 조규화, 복식사전, 경춘사, 1995채선미.유영선, 현대패션에 나타난 로맨티시즘 경향 복식 45호, 1999
 - 조희래, 김영인, 색동을 응용한 한국적 디자인의 개념(I), 한국의류학회지, 20권 5호, 1996
 - 최경화, 서양신발의 유형별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 1992
 - 최세완, 김민자,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 1980년대 이후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17권 1호, 1993년
 - 패션큰사전 편찬 위원회, 패션큰사전, 교문사, 1999
 - 학원대백과사전, 학원출판사, 1993, 20권
 - 한국섬유공학회, 섬유제품기술지침서, 서울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87
 - 한국의류산업연합회, 1999년도 섬유제품수출입현황, 한국의류산업연합회, 2000
 - 한국의류산업연합회, 2000년도 섬유제품수출입현황, 한국의류산업연합회, 2001
 - 한국의류산업연합회, 1999년도 도시가게 연보, 한국의류산업연합회, 2000
 - 한소원, 김영인, 1990년대 초반 복식유행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1999, 23권 2호

- 한지수, **피혁상품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1998, P3
- 허진영, **장길환, 신발디자인**, 조형사, 1992

국외

- 田中千代, **복식사전**, 동경, 동문서원, 1969
- 블랑쉬 페인. **복식의역사**. 1988, 까치.
-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이종남 외 , 복식의역사, 서울 : 까치, 1988
- Charlotte Seeling,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Konemann, 1999
- Doreen Yarwood, **The Encyclopedia of word costume**. New York Bonanza Book
- George Dickie, **美學入門**, 서광사, 1983
- Jennifer Harris, **Textiles 5,000years**, London : British Museum Press, 1933
- Karen W. Bressler, Karoline Newman, Gillian Proctor, **A Century Of Lingerie**, Chartwell Book, Inc., New Jersey, 1997
- Kim, Minja, Traditional Identity and its Aesthetic Value in Korean Fashion Design, The Journal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Supplements, 1991
- Lester, Morris Katherine and Derke, Viola Bess, **Accessories of Dress**, Illinois, Bennett, 1940
- Luciana Boccardi, **Party Shoes**, New York, Zanfi Editor, 1993
- Marybelles Bigelow, **Fashion in History: Apparel in the Western world** Minneapolis, 1970
- Mazza, samuele, **Cinderella's Revenge**. Chronicle Books. 1994
- Mcdowell C, shoes: **Fashion & Fantasy**. London: Thames & Hudson, 1994
- O'Hara Callan Georgina. **Dictionary of FASHION AND FASHION DESIGNERS**, London: Thames and Hudson, 1988

- Richard Rutt, **A History of hand Knitting**, Interweave, 1987
- Tweeddale, Kelly H, **Patterns of History, Vogue Knitting**, Fall 1999
- Toby Fischer-Mirkin, 허준, 안종설(역), **패션속으로, 새로운 사람들**, 1996
- Wilcox R. Turner, **The Mode In Footwear**, Charles scribner's sons, N,Y, 1948
- Wolfhart Henkmann and Konrad lotter, **Lexikon der Aesthetik**, 김진수(역), 미학사전, 서울, 예경, 1998

▶ DB 사진 참고문헌 ◀

신발 DB 참고문헌

국내

- 웅진, **서양의 복식**
- 고려대학교 박물관, **복식류명품도록**, 1990
- 문화재청 궁중유물전시관, **조선조후기궁중복식-영왕복식중심**, 1999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4-고구려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평양, 1992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7-백제 · 신라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평양, 1992
- 국립경주박물관, **박물관 도록**, 1996
- 국립전주박물관, **박물관 도록**, 1990
-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도록**, 1996
- 서울대학교 박물관, **박물관 도록**, 1983
-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박물관 도록**, 1998
- 원광대학교박물관, **박물관 도록**, 1984

국외

- Charlotte Seeling , **20000 years of fashion**, Konemann, Cologne, 2000
- Colin McDowell, **Manolo Blahnik**, Harper Collins, New York, 2000
- Colin McDowell, **Shoes / Fashion Fantasy**, Rizzoli, New York, 1998
- **'Footwear' vol. 1**,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Jan. 2000
- **'Gucci'** Pamphlet
- Linda O'Keeffe, **Shoes**, Workman Publishing, New York, 1996
- Louise Mitchell with Lindie Ward, **Stepping out(Three Centuries of Shoes)**, Power house museum, Sydney, 1997
- Lucy Pratt & Linda Woolley, **Shoes**,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1999
- Paola Buratto Caovilla, **Shoes(Objects of Art and Seduction)**, Skira, Milano, 1998
- Ray Ellsworth, **Platform shoes**, Schiffer, Hong Kong, 1998
- Tamsin Blanchard, **The Shoe**, Carlton, London, 2000
- Valerie Steel, **Shoes / A Lexicon of style**, Rizzoli, New York, 1999
- **'Which'**, Shoe magazine, France, 2000

양말 DB 참고문헌

국내

- 김민수 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 김민자, 임원자, 이은영, 구미지, 김윤희, **한국 복식변천과 사회변천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93년 17권 2호
- 김윤희,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 김지완, **현대패션에서의 레그패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 김현정, **꽃 이미지를 이용한 양말작품제작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 카톨릭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김희정,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양말변천에 관한 연구**, 1991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동아 원색 세계 대백과사전** 18권, 동아출판사, 1982
- 박신희, **1990년대 해외컬렉션과 국내컬렉션의 패션트렌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박영수, **유행속에 숨어있는 역사의 비밀**, (주) 살림 출판사, 1998
- **브리테리커백과사전** 15권, 한국브리테리커, 1993
- (주) 서광 홍보실, **신사복이야기**, 금비문화-부록, 1993
- (주) 서광 홍보실, **알고 입는 옷, 모르고 입는 옷**, 금비문화, 1995
- 신영진, **양복바지에 관한 역사적 고찰**,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의상디자인 전공 석사학위 논문
- **양말 교본**, 서울: 메리야스 검사소, 1976
- 유선태, **현대 섬유예술의 이해**, 미진사, 1995
- 유화숙, **편물이론**, 한국산업인력공단, 1997
-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이대출판부, 1980
- 이해옥, **니트웨어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일본대백과사전** 5권, 동경, 소학관
- 전완길 외 8명 공저, **한국 생활문화 100년**, 도서 출판 장 원, 주식, 1995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 주식회사 재미유통, **씩스탑 브랜드 개요**
-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 16권, 동서출판사, 1996
- **패션큰사전** 편찬 위원회, **패션큰사전**, 교문사, 1999

- 홍미희, 우리나라 양말디자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산업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학원대백과사전 20권, 학원출판사, 1993

국외

- Alison Carter, **Underwear**, B.T.Batsford Limited, London, 1992
-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이종남 외 , 복식의 역사, 서울 : 까치, 1988
- Boucher, Francois. **20000 Years of Fashion**, Harry N. Abrams, New York, 1987
-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 Clothes**, Dover Publications, INC., New York, 1951
- Carl Kohler. **A History of Costume**, new york, Dover Publication, INC. 1963
-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Fairchild Books, New York, 1998
- Fuchs Eduad, **Illustriete Sittengeschichte Vom Mittelater biz zur Gegenwart**, munchen: Langen, 1910
- Jennifer Harris, **Textiles 5000 years**, H. N Abrams, New York, 1993
- Karen W. Bressler, Karoline Newman, Gillian Proctor, **A Century of Lingerie**, Chartwell Book, Inc., New Jersey, 1997
- Mary D. Tranquillio, **Styles of Fashion**,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New York, 1984
- Michele Beaulieu, "**Le Cousume Moderne Et Contemporain**", 동경; 백영사, 1985
- Lester, Morris Katherine and Derke, Viola Bess, **Accessories of Dress** Bennett, 1940

- Patrick Mauries, **Christian Lacroix**, Simon & Schuster, New York, 1996
- Richard Rutt, **A History of hand Knitting**, Interweave, 1987
- Tweeddale, Kelly H., **Pattern of History, Vogue Knitting**, Fall. 1991

부 록

별첨 자료 1 : 소비자 조사 설문지

별첨 자료 2 : 전시회 사진

안녕하십니까?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패션정보기획사인 (주)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주)성호실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디자인기반 기술 개발지원사업인 '고부가가치를 위한 한국적 이미지의 신발, 양말 디자인 개발과 DB화 작업에 관한 연구'에 관련하여 실시하는 소비자조사의 일부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자료는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개인의 신상이나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 10.

(주) 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

감성DB 연구소장 이승엽

1. 보조 자료 1번에 각 신발에 대한 그림과 분류가 있습니다. 응답자 분들은 설문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살펴보고 본 설문 작성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 보조자료 2번은 문제8번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설문지의 그림을 칼라로 확대한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남성용 설문지입니다.1. 다음은 여러분이 신발을 구입할 때 중요시하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에 V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신발류를 구입할 때 가격을 가장 중요시 한다					
2	나는 신발류는 항상 세일 기간을 이용하여 구입한다					
3	나는 신발류는 오래 신을 수 있는 튼튼한 신발을 주로 구입한다					
4	나는 발이 편하고 활동에 적합한 신발을 구입한다					
5	나는 신발류를 구입할 때 항상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것을 구입한다					
6	가격이나 품질에 관계없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구입한다					
7	나는 고급 브랜드의 신발만을 주로 구입한다					
8	고가의 신발은 품질이나 디자인에 있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2. 다음은 여러분이 신발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나 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에 V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국산 브랜드보다 외제 브랜드 신발이 품질이나 디자인에서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평범한 디자인보다 뭔가 특이하고 튀는 디자인의 신발을 구입한다					
3	새로운 디자인의 신발이 나오면 반드시 구입하고 싶다					
4	신발을 구입할 계획이 없더라도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으면 반드시 구매하는 편이다					
5	신발은 가벼우면서 활동하기 편한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6	신발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신어보고 발이 편안함을 확인해야 한다					
7	신발을 구입할 때에 상품권을 이용해본 경험이 많다					
8	옷차림에 맞는 신발을 갖춰 입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9	신발을 살 때 종업원의 권유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					

번호	문항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	때때로 외출할 때 신고 나갈 적절한 신발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11	운동화나 목이 높은 농구화 스타일이 좋다고 생각한다					
12	구두는 부츠처럼 목이 높은 스타일이 좋다					
13	직장에 운동화나 캐주얼화를 신고 다녀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운동화나 캐주얼화보다 구두가 훨씬 많다					
15	나는 유명브랜드 신발의 모조 제품을 구입해 본 적이 있다					
16	나는 등산화나 볼링슈즈 같은 특수한 용도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17	나는 여러 쥘레의 구두를 가지고 날마다 바꿔가며 신는다					
18	나는 잡지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신발에 대한 정보를 자주 찾아본다					
19	나는 신발을 구입할 때 여러 군데의 매장을 둘러보고 꼼꼼히 상품을 살핀 후에 구입하는 편이다					

3. 다음은 여러분이 **운동화(스포츠화, 스니커즈, 등산화 모두 포함)**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나 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에 V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운동화는 국산 브랜드보다 외제 브랜드가 품질이나 디자인에서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평범한 디자인보다 뭔가 특이하고 튀는 디자인의 운동화를 구입한다					
3	유행하는 운동화가 있으면 반드시 구입하고 싶다					
4	운동화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드는 운동화가 있으면 구매하는 편이다					
5	운동화는 가벼우면서 활동하기 편한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6	운동화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신어보고 발이 편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7	운동화를 살 때 종업원의 권유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					

번호	문항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나는 유명브랜드 운동화의 모조 제품을 구입해 본 적이 있다					
9	나는 잡지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운동화에 대한 정보를 자주 찾아본다					
10	나는 운동화를 구입할 때 여러 군데의 매장을 둘러보고 꼼꼼히 상품을 살핀 후에 구입하는 편이다					
11	운동화의 가격이 너무 비싼 편이라고 생각한다					
12	나는 운동화는 주로 세일 기간을 이용해 구입한다					
13	나는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만을 구입한다					

4. 다음 각 신발의 종류에 대해서 최근 1년 동안 자신이 구입했던 개수와 일치하는 란에 V 표시해주시시오.

	신발의 종류	0켢레	1켢레	2켢레	3켢레	4켢레 이상
1	정장 구두					
2	캐주얼 슈즈					
3	부츠					
4	운동화, 등산화					
5	샌들, 슬리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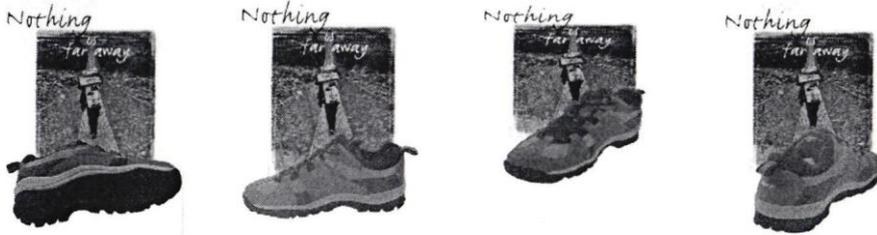
5. 다음 각 신발의 종류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자신이 구입했던 가격대와 일치하는 란에 V표시해 주십시오. 여러 켤레를 구입하신 경우 가장 최근에 구입한 신발의 가격대와 일치하는 란에 V 표시해 주십시오.

	신발의 종류	구입한적 없다	5만원 이하	5-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25만원	25만원 이상
1	정장 구두							
2	캐주얼 슈즈							
3	부츠							
4	운동화, 등산화							
5	샌들, 슬리퍼							

6. 다음 각 종류의 신발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자신이 구입했던 장소와 일치하는 란에 V표시해 주십시오. 여러 곳에서 구매하신 경우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 가장 자주 갔던 곳에 V표시해 주십시오.

	신발의 종류	구입한 적 없다	백화점	대리점	할인점	재래시장	tv-홈쇼핑	인터넷 쇼핑
1	정장 구두							
2	캐주얼 슈즈							
3	부츠							
4	운동화, 등산화							
5	샌들, 슬리퍼							

7. 다음 각 종류의 신발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자신이 구입했던 신발의 소재와 일치하는 란에 V표시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를 구매하신 경우에는 가장 많이 구입한 소재에 V표시해 주십시오.



	신발의 종류	구입한 적 없다	가죽100%	천100%	가죽과 천	합성피혁	신소재
1	정장 구두						
2	캐주얼 슈즈						
3	부츠						
4	운동화, 등산화						
5	샌들, 슬리퍼						

8. 다음은 운동화(스포츠화, 스니커즈, 등산화)의 광고에 쓰일 사진입니다. 각 광고에는 운동화의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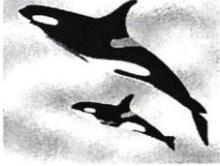
여러분이 여러 각도에서 찍은 운동화의 사진이 들어있는 광고를 보신다면 어떤 각도의 사진이 들어있는 광고가 자신이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의 디자인을 살펴보는데 가장 유용한 광고입니까? 가장 좋은 광고에 '1', 가장 좋지 않은 광고에 '4'를 매겨, '1'에서 '4'까지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보조자료 2번 참조)
 () () () ()

9. 신발 브랜드 가운데 귀하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운동화 브랜드**, **캐주얼 슈즈 브랜드**, **정장구두 브랜드**로 나누어 볼 때, 각 신발의 종류에 대해 좋아하는 브랜드를 적어주십시오. 또한 그 브랜드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를 보기에서 **한가지**만 골라 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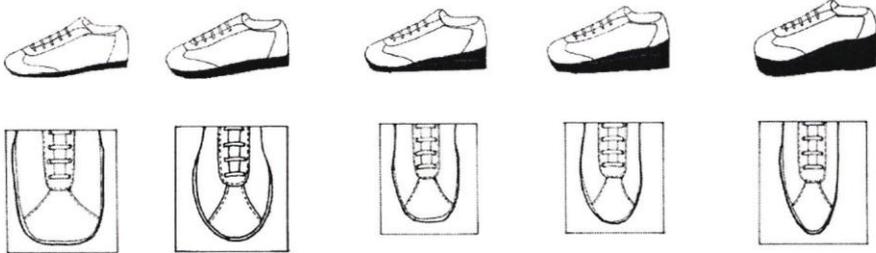
번호	구분	선호 브랜드	선호 이유
1	운동화(스포츠화, 스니커즈, 등산화)		
2	캐주얼 슈즈		
3	정장구두, 드레스 슈즈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디자인과 색상이 마음에 든다 ② 브랜드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③ 제품의 소재가 좋고 마무리가 잘 되어 있다 ④ 내가 구입하기에 가격이 적당하다 ⑤ 주위 사람들(친구, 직장동료, 이웃 등)이 대부분 좋아하는 브랜드이다 ⑥ 최신 유행 스타일을 제시하는 브랜드이다 ⑦ 그 브랜드 제품을 이전에 구매하여 사용해본 결과 매우 만족했다 ⑧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나의 발에 가장 잘 맞는 브랜드이다 ⑨ 기타
-----------	--

10. 아래의 그림들은 **운동화(스포츠화, 스니커즈, 등산화)** 제작시 응용될 이미지를 표현한 것들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에 '1',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도안에 '9'를 매겨, 1에서 9등까지 각 이미지에 대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순서에 따라 순위를 표시해 주십시오.

그림	순위	그림	순위	그림	순위
					
					
					

11. 다음은 운동화(스포츠화, 스니커즈, 등산화)의 디자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는 문항들입니다.



- (1) 나는 운동화의 굽은 ()cm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2) 다음 운동화 그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에 '1',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디자인에 '5'를 매겨 1에서 5까지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 () () () ()
- (3) 다음 운동화 그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에 '1',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디자인에 '5'를 매겨 1에서 5까지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 () () () ()
- (4) 나는 운동화를 구입할 때 끈의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상관없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나는 운동화를 구입할 때 밑창의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상관없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나는 운동화를 구입할 때 전반적인 색상이 어떤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상관없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 나는 운동화의 브랜드 로고가 뚜렷하고 큰 것이 좋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상관없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다음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매출이 높은 브랜드들을 각기 다른 쪽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다음 브랜드들에 대해 자신이 가장 구입하고 싶은 브랜드에 '1', 그 다음 브랜드에 '2', 가장 구입하고 싶지 않은 브랜드에 '3'을 부여해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잘 모르시는 브랜드가 있으면 가장 낮은 순위를 매겨서 빈 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각 문항에 있는 표에 빈 칸이 없도록 모두 1,2,3 등을 매겨주십시오)

1) 다음은 운동화 브랜드들입니다. 예)

브랜드명	순위	브랜드명	순위	브랜드명	순위	브랜드명	순위
랜드로버		팀버랜드		K2		트렉스타	2
버팔로		랜드로버		코오롱스포츠		랜드로버	3
트렉스타		오클리		랜드로버		버팔로	1

브랜드명	순위	브랜드명	순위	브랜드명	순위	브랜드명	순위
버팔로		K2		K2		트렉스타	
팀버랜드		오클리		트렉스타		오클리	
코오롱스포츠		버팔로		팀버랜드		코오롱스포츠	

브랜드명	순위	브랜드명	순위	브랜드명	순위	브랜드명	순위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쌈지스포츠	
리복		쌈지스포츠		나이키		아디다스	
아디다스		리복		쌈지스포츠		나이키	

2) 다음은 정장구두, 드레스 슈즈 브랜드들입니다. 예)

브랜드명	순위	브랜드명	순위	브랜드명	순위		순위
금강		레노마		비제마노		발렌시아가	2
기라로쉬		리갈		엘칸토		금강	3
발렌시아가		브랑누아		키사우모		엘칸토	1

브랜드명	순위	브랜드명	순위	브랜드명	순위
기라로쉬		리갈		키사우모	
레노마		금강		발렌시아가	
비제마노		엘칸토		브랑누아	

브랜드명	순위	브랜드명	순위	브랜드명	순위
발렌시아가		키사우모		브랑누아	
엘칸토		리갈		비제마노	
레노마		기라로쉬		금강	

13. 귀하는 한국적 이미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형상(예:구름, 학 등)**이나 **형용사**를 **한가지만** 적어주십시오.

()

14. 마지막으로 통계적 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14-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남성 ②여성

14-2 귀하의 연령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만 연령으로 답해주십시오)

- ①15~18세 ②19~23세 ③24~26세 ④27~30세 ⑤31~35세

14-3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서울 강남(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②서울 강동(강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③서울 강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④서울 강북(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⑤서울 남부(관악구, 동작구)
 ⑥서울 서부(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⑦서울 중부(용산구, 중구, 성북구)

⑧수도권(일산, 분당, 과천, 평촌, 안양, 산본)

14-4 귀하는 현재 결혼을 하셨습니까?

① 기혼 ② 미혼

14-5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① 없음 ② 있음

14-6 귀하의 현재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전업주부 ②학생 ③경영관리직(기업체 이사 이상) ④사무직 ⑤생산직

⑥기술직(엔지니어)

⑦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등) ⑧공무원 ⑨교사 ⑩판매/서비스직

⑪자유직(프리랜서) ⑫자영업 ⑬기타

14-7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한 귀하의 월 평균 총소득액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100만 미만 ②100만~199만 ③200~299만 ④300~399만

⑤400~499만 ⑥500만 이상

* ps : 조사대상 : 고등학생(10대후반) : 30명
20-25세 : 60명
26-30세 : 60명
30세 이상 : 50명
total : 200 명(남자, 여자의 경우 같음)
총 400명

조사지역 : 서울

*남자용은 설문-m.hwp이며, 여자용은 설문-f.hwp입니다.

*12번 응답자들이 모든 표에 빠뜨리지 않고 기입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주)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 이승엽 517-8722

< 별첨 자료 2 >

전시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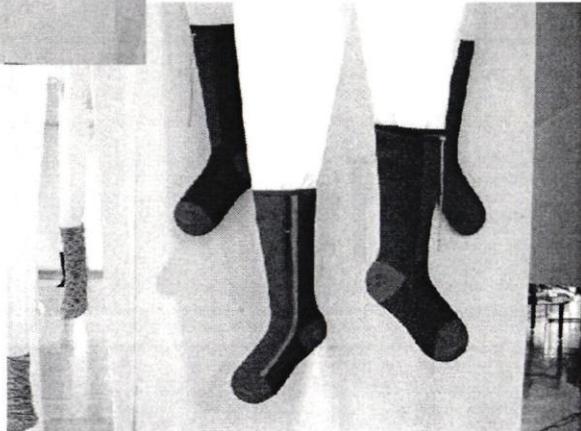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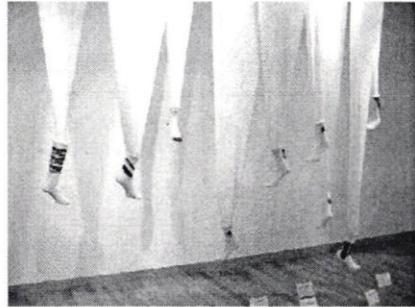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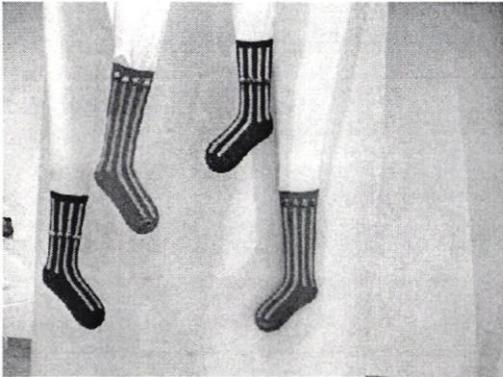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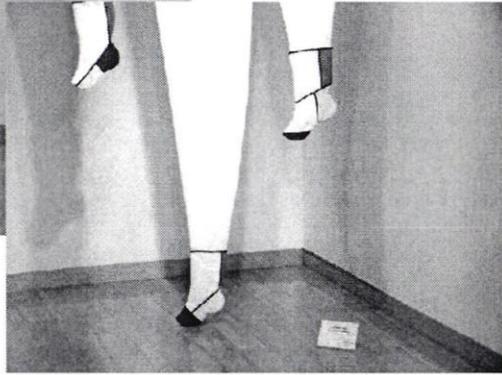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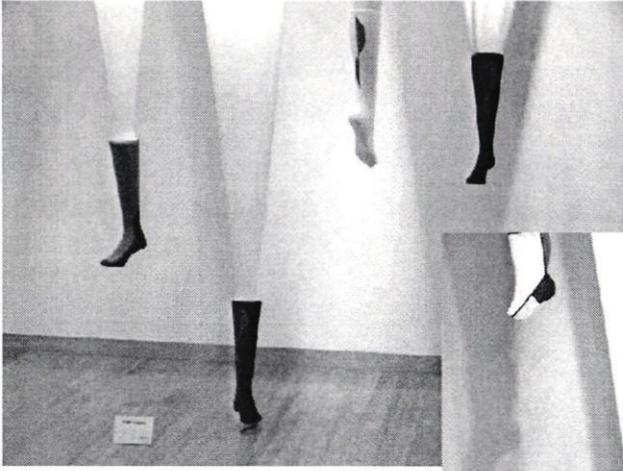


신
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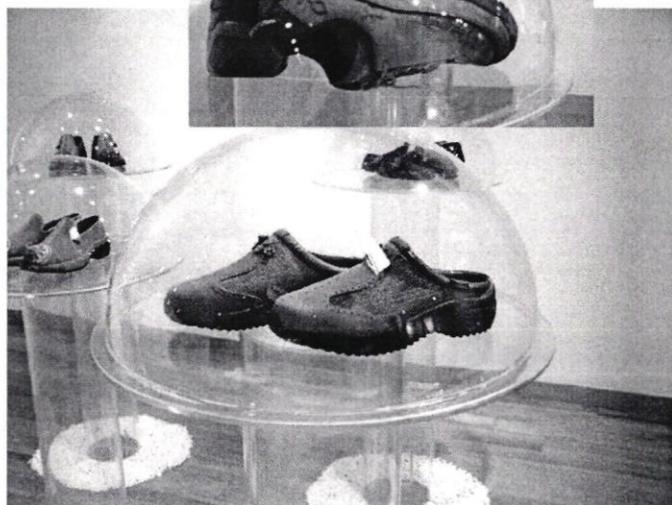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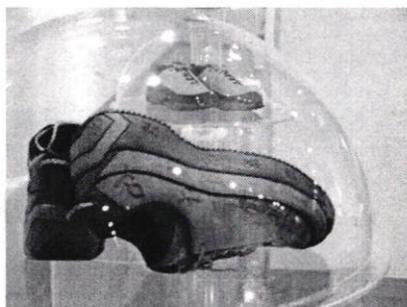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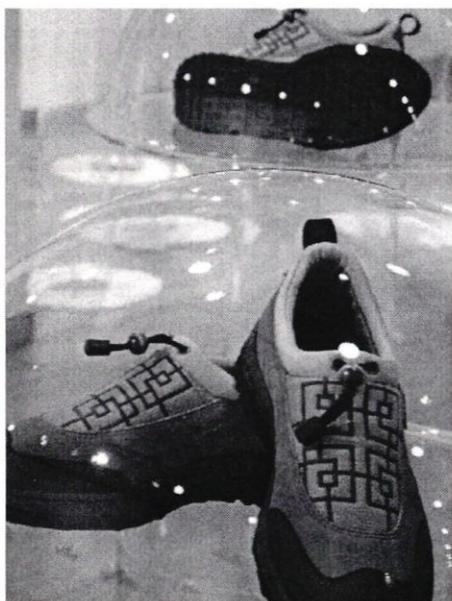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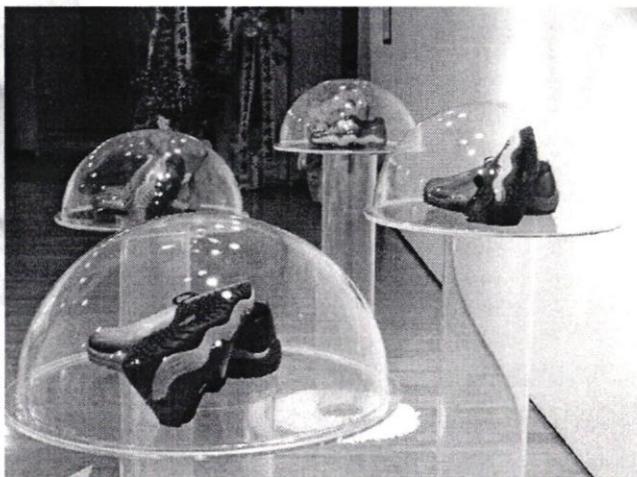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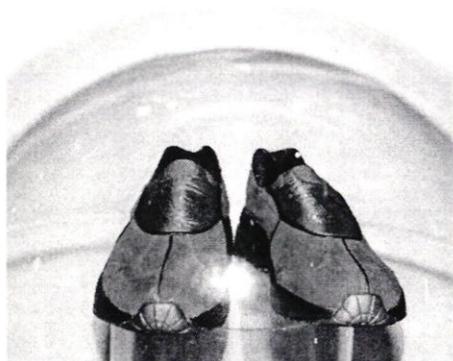


양
말
전

양 말 전



신발전



주 의

1.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디자인기반기술 개발지원사업의 디자인연구 개발 보고서입니다.
2. 이 연구개발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